

정답과 해설

I. 상고 시대	320
II. 고려 시대	328
III. 조선 전기	334
IV. 조선 후기	347

I. 상고 시대

1 | 고대 가요

001 공무도하가_ 백수 광부의 아내

28쪽

키포인트 체크 아내, 죽음, 체념

1 ⑤ 2 ④ 3 ① 4 이 노래의 화자는 이별을 수동적 태도로 수용하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이별을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1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슬픔을 담은 노래로, 개인의 서정성이 드러나는 고대 가요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②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가요이다.

③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중국 문헌에서 한역되어 전하다가 조선 시대 때 <해동역사>에 다시 한시로 수록되었다.

④ 악곡명으로는 <공후인>이라고 불린다.

2 ㉞에서 화자는 임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탄식하며 체념하고 있을 뿐,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임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며 떠나는 임을 만류하고 있다.

②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을 건너는 임을 바라보며 초조해하고 있다.

③ 물에 빠져 죽은 임과의 단절이 드러나 있다.

⑤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恨)'을 바탕으로 한, '한(恨)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지식+

• 정한 문학의 원류가 되는 <공무도하가>

이 작품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이별의 한이라는 주제는 백제 가요 <점음사>, 고려 가요 <가시리>, 정지상의 한시 <송인>,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으로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이다. 특히 '가신 임을 어이할꼬'에 나타나는 사랑하는 임의 죽음에 대해 탄식하며 체념하는 태도는, 이별의 '한'을 잘 보여 준다.

3 <보기>에서 '대동강(大同江)'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대상으로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②, ④ '사공(사공)'과 '널 비(가는 배)'는 임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재이다.

③ '네 가시'를 '네 각시 음란한지 몰라서'로 해석하면 사공의 부인을 의미하며, '네가짓 것이 주제 넘은지 몰라서'로 해석하면 '사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고즐(罇)'은 임이 만나게 될 새로운 여자를 의미한다.

4 이 작품의 화자는 임이 물을 건너려 하는 것을 만류하지만 결국 임이 물에 빠져 죽자 슬퍼하며 체념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자신을 떠나려는 임을 원망하며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002 구지가_ 구간등

30쪽

키포인트 체크 임금, 노래, 소망

1 ② 2 ③ 3 ① 4 노동(일을 하며 부른 노래이다).

1 대조란 두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작품에는 대조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머리를 내어라.'라고 하며 직설적으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인 거북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있다.

④ 청자인 '거북'에게 '거북아'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머리'의 원형적 상징으로는 '임금, 생명력의 근원, 새로운 생명, 우두머리'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쪽 옆이나 가장자리'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3 이 작품은 임금의 왕림을 기원하는 집단적 의식이다. 개인적 서정시는 <보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② 이 작품에는 '거북', <보기>에는 '피꼬리'라는 자연물이 핵심 소재로 등장한다.

③ 이 작품은 거북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며 부른 집단 무요로 특정 집단에서만 향유되는 성격을 지닌다.

⑤ <보기>는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4 두 작품 모두 기능 측면에서 노동요라는 점이 유사하다. <구지가>는 여러 사람이 흠을 파며 불렀다는 점에서 노동요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고, <보기>의 <논매기 노래>는 농사일을 할 때 불렀던 노동요이다.

지식+

• 작자 미상, <논매기 노래>

• 갈래: 민요, 노동요

• 성격: 낙관적, 낙천적, 긍정적

• 주제: 농사일에 대한 기쁨과 농사꾼으로서의 자부심

• 감상: 이 작품에는 농사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민중들의 낙관적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힘들고 고된 농사일을 흥겨움으로 승화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으며, 농사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표출되어 있다.

003 황조가_ 유리왕

32쪽

키포인트 체크 유리왕, 피꼬리, 탄식

1 ⑤ 2 ① 3 객관적 상관물 4 이 작품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했고, <보기>는 특정이념을 전달하기 위해 창작했다.

1 화자는 임과 헤어져 홀로 남게 된 외로운 심정을 '피꼬리'를 매개로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화자의 정서를 '외로워라(외로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임이나 피꼬리에 대한 원망의 정서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1, 2구에서 피꼬리를 바라보는 시선만 느껴질 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이 이동한 것은 아니다.

③ 1구의 '편편황조(翩翩黃鳥)'에서 '편편(翩翩)'은 훨훨 또는 가볍게 나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이다. 이러한 의태어나 의성어를 통틀어 음성 상징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는 없다.

④ 이 작품에는 외부 대상을 묘사한 다음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신경 후정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 2 ㉠과 <보기>에 등장하는 '피꼬리'는 둘 다 그 모습이 자연의 일부로 묘사되었을 뿐 의인화된 것은 아니다. ㉠과 <보기>에 등장하는 '피꼬리'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	생동감 있는 자연 속에서 짝을 지어 다정하게 노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시적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여 화자로 하여금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보기>의 '피꼬리'는 봄을 맞은 시적 화자의 흥취를 복돋는 존재이다.

지식 +

- 김영랑 <오월>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감각적, 낭만적, 묘사적
 - 주제: 5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 봄날의 생명력
 - 감상: 5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을 노래한 작품으로 시각적 심상과 운율, 의인법(보리, 산봉우리) 등의 표현이 잘 드러나 있다.

- 3 이 노래의 '피꼬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한다.

- 4 이 작품은 개인의 갈등과 좌절을 노래한 개인적 서정시이다. 반면에 <보기>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방책으로 유교적 이념을 제시하는 목적성과 교훈성이 강한 작품이다.

004 해가_작자 미상 34쪽

키포인트 체크 수로 부인, 해롱(거북), 위협

1② 2④ 3② 4수로 내놓아라.

- 1 이 작품은 '남의 부녀'를 구하기 위해 부른 노래이므로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거북'을 '네'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의인화하여 부르고 있다.

- ③ 3구에서 대상이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④ 4구에서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상을 위협하고 있다.
- ⑤ 호명·명령(1구), 가정(3구), 위협(4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2 <보기>의 '노인'은 언어의 힘을 믿는 고대인을 나타낼 뿐, 절대자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에 나오는 '수로'는 '수로 부인'을 뜻한다.

- ② 이 작품의 '거북'은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간 해롱을 의미한다.
- ③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른 노래의 가사대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어의 주술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 준다.
- ⑤ 언덕을 치며 노래를 부른 것은 노동요의 성격, 지역의 백성이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은 집단적 성격을 보여 준다.

- 3 <보기>와 이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상을 위협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했으므로, 대상을 위협하는 어조로 바꾸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보기>의 '구워 먹으리.'를 이 작품에서는 '그물을 넣어 사로잡아 구워서 먹으리라.'라고 표현하여 '그물'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추가했다.

③ 두 작품 모두 주술의 대상이 되는 소재는 '거북'으로, 이 작품에서 거북은 용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④ 이 작품과 <보기> 모두 먼저 '거북아 거북아'라고 호명한 뒤 명령을 내리고 있다.

⑤ 이 작품의 2구에 나타난 내용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대상이 지은 죄(남의 아내 훔쳐 간 죄)를 강조하고 있다.

- 4 이 작품은 수로 부인의 구출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노래이다. 즉, 1구에서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간 대상을 호명한 뒤 수로 부인을 돌려주기를 명령한 부분에서 주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005 정음사_어느 행상인의 아내 36쪽

키포인트 체크 남편, 달, 귀가

1③ 2④ 3⑤ 4돌,즌디

- 1 이 작품의 후렴구는 음악에 맞추기 위해 들어간 구절로, 후렴구에 화자의 마음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돌(광명)'과 '즌 디(어두운 곳, 위험한 곳 등)'가 대립을 이루고 있다.

② 후렴구를 제외하면 4음보의 3장 6구로, 시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배열할 수 있다.

④ '-르세라'는 '~할까 두렵다.'라는 의미를 지닌 의구형 어미이다.

⑤ '노피곰'과 '머리곰'의 '-곰'은 강조의 접미사이다.

- 2 이 작품에서 화자는 '돌'을 자신의 소망을 들어주고 남편을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성찰의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돌'은 화자의 소망을 들어주는 '천지신명'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 있다.

② '돌'은 화자인 아내와 남편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돌'은 '빛'의 이미지를 통해 남편을 지켜 주는 광명의 상징이다.

⑤ '돌'은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므로 남편에게 일어날 부정적인 상황을 제거하여 둘의 사랑을 지켜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3 ㉠은 해가 저물어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으로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은 남편이 가는 길에 빛을 환히 비추 달라는 기원으로 달에게 아내의 무사함을 청원하는 아내의 걱정이 드러난다.

② ㉡의 '저재', 즉 '시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편의 직업이 상인임을 알 수 있다.

③ ㉢는 밤중에 남편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협이나 위험을 비유한 표현이다.

④ ㉣는 어디에서든 (짐을) 놓고 쉬라는 의미로, 남편의 안위를 염려하는 아내의 간절한 당부가 드러난다.

4 이 작품에서 '달'은 단순한 자연물로서의 달이 아니라 남편이 돌아오는 길을 환하게 비추 주는 '밝음'의 달이자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 주는 '광명'의 달이다. 반면에 '즌 더'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며, 달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의 세계이다.

2 | 향가

006

서동요_ 서동

38쪽

키포인트 체크 아이들, 서동, 선화공주, 음해(모함)

1 ④ 2 ③ 3 ② 4 서동이 선화 공주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이다. (서동이 선화공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이다.)

1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선화 공주가 서동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내용이고, 이면적으로는 서동이 선화 공주에 대한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슬픔에 따른 애상적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앞으로 일어날 일인 서동과 선화 공주의 혼인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참요라고 할 수 있다.

② 창작 배경을 참고하면 선화 공주가 서동과 남몰래 정을 통한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이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으므로 대상(선화 공주)을 포함한 것이다.

③ 아이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진 노래이므로 동요이자 민요라고 할 수 있다.

⑤ 이 작품에 나타난 사건, 즉 선화 공주와 서동의 밑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노래한 것에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작품은 주술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작품에서는 표면적으로 선화 공주와 서동의 은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을 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기> 역시 '거북'이 화자의 명령과는 다르게 머리를 내어놓지 않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4구체 향가이며, <보기>는 4구로 된 한역 시가이다.

② 이 작품은 선화 공주가 밤에 몰래 서동을 안고 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보기>는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고 위협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실현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바미 물 안고 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 거북이 머리를 내어놓는(왕이 강림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⑤ 이 작품은 제삼자인 '아이들이' 부름으로써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보기>는 청자인 '거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3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선화 공주가 서동을 사랑하여 구애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선화 공주에 대한 서동의 사랑을 담은, 주객이 뒤바뀐 표현

이 나타나고, <보기>에서도 사실 '내가' '그대(민들레꽃)'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대'가 '나'를 찾아오는 것으로 주객을 전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에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민들레꽃을 '그대'로 표현하여 의인화하고 있다.

③ 이 작품에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기>에는 '나'라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다.

④ 실제로 표현하려는 뜻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라고 하는데 두 작품 모두 반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겉으로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나 그 속에 진리를 내포한 표현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두 작품 모두 역설은 사용되지 않았다.

지식+

• 조지훈, <민들레꽃>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여성적, 고백적

•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

• 감상: 민들레꽃을 의인화하여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민들레꽃을 통해 사랑하는 임을 떠올리며 외로운 화자의 그리움을 여성적인 어조로 고백하고 있다.

4 서동이 이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것은 '늬م 그스지 얼어 두고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라고 선화 공주를 음해함으로써 선화 공주와 인연을 맺으려는 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서동이 선화 공주를 아내로 삼기 위해 지어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지식+

• <서동요>의 배경 설화에 담긴 신화적 성격

<서동요>의 배경 설화는 서동이라는 미천한 신분의 남성이 높은 신분의 여성과 혼인하여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는 백제 무왕과 관련된 신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없이 바로 행복한 결말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신화라 보기는 어렵다.

007

모죽지랑가_ 득오

40쪽

키포인트 체크 화랑, 애도(추모), 죽지랑

1 ⑤ 2 ④ 3 ③ 4 ③

1 이 작품은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로, 화자는 죽지랑이 생전에 보였던 모습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② 죽은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への 기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죄책감이나 분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종교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개인의 정서를 표출한 서정적인 시가로서 주술성은 찾아볼 수 없다.

2 시조의 종장 첫 구로 계승되는 향가의 감탄사는 10구체 향가의 9구 앞머리에서 나온다. 이 작품은 8구체 향가로 '낭(郎)이여'는 의미 없는 감탄사가 아니라 시적 대상을 부르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그리매'는 죽은 죽지랑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부분이다.

- ② 죽지랑의 과거 모습을 회상한 뒤, 죽지랑이 죽고 없음으로 인한 현재의 '시름'을 표현하고, 죽지랑을 다시 만나기 위해 '너를 길'을 노래한 것에서 '과거-현재-미래'의 흐름이 나타난다.
- ③ '모든 것사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죽지랑의 죽음을 울면서 슬퍼함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죽지랑과 다른 세상(저세상)에서 만나는 것을 '다복쑥(우거진) 마을에서 잘 밥'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3 이 작품의 '무수미'는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가리키고, <보기>의 '무수미'는 시적 대상인 기과랑의 마음을 의미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8구체, <보기>는 10구체 향가이다.
- ② 이 작품은 '낭이여'에 시적 대상인 죽지랑이 드러나고, <보기> 역시 '기랑이 즈시'에서 시적 대상인 기과랑이 드러난다.
- ④ 이 작품은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 표출이 주를 이루고, <보기>는 시적 화자가 흠모하는 기과랑의 인품 예찬이 주를 이룬다.
- ⑤ 이 작품에서는 죽지랑의 모습을 '아름 나토샤은 / 즈시 살쭈 디니제'라고 묘사했고, <보기>는 기과랑을 '둘, 자싯가지' 등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4 ㉠은 죽지랑의 아름다운 과거 모습을 회상한 것으로, 죽지랑의 훌륭한 인품에 대한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은 죽지랑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 또는 죽지랑이 살아 있을 때를 의미한다.
- ② 죽지랑과 함께했던 날이 다시 올 수 없기에 '시름'을 느끼는 것이다.
- ④ 죽지랑의 주름진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구절이다.
- ⑤ ㉠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의미로, 죽지랑과의 재회가 빨리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008 **현화가** _ 권우 노인 42쪽

키포인트 체크 노인, 수로 부인, 연모

1 ㉡ 2 ㉠ 3 ㉤ 4 지뵈

1 이 작품은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없는 개인적 서정시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집단적 성격의 노래가 아니라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개인 서정시이며, 4행(구)으로 된 4구체 향가이다.
- ③ 3구에서 '나'라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④ 아름다움의 상징적 인물인 수로 부인에 대한 순수한 예찬을 표현한 노래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라인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 ⑤ 시적 화자인 '권우 노인'이 시적 대상인 '수로 부인'에게 연모의 정을 드러낸 노래이다.

2 배경 설화에 따르면 '바회(바위)'는 아무나 오르지 못하는 높은 벼랑이다. 시적 화자가 이 벼랑에 올라가 꽃을 꺾어 바치려 한 것은 시적 화자의 비범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3 이 작품에서 '꽃(꽃)'은 수로 부인에 대한 화자(권우 노인)의 사랑과 예찬을 드러내고 있는 소재이자 화자와 대상을 매개하는 사물이다. <보기>에서 '나초'는 '공주'와 '문지기 청년'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에 해당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비시누'는 '도움'과 '선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결혼'은 '공주'와 '문지기 청년' 사이의 사랑의 성취를 보여 준다.

4 '지뵈'는 '자춧뵈'를 의미하는 색채어로, 수로 부인에 대한 시적 화자(권우 노인)의 강렬한 사랑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009 **제망매가** _ 월명사 44쪽

키포인트 체크 누이, 향가, 종교적

1 ㉡ 2 ㉠ 3 ㉣ 4 나는 가느다 말사도 / 몬다 니르고 가느뵈고

1 시구의 반복이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처럼 비슷하거나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이러한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틀어보기 ①, ⑤ 9구~10구에서 화자는 죽은 누이와 '미타찰(부처가 있는 세상)'에서 만날 날을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기다림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5구~8구에서 '같은 부모(혹든 가지)'에게서 태어난 '누이(님)'가 '갑작스럽게 죽은(7술 이른 버툼매)' 상황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④ 화자는 1구~2구에서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9구~10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2 A의 '바람'은 단순히 꽃을 지게 만드는 자연 현상일 뿐, 화자의 시련과는 관계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② ㉠은 '님(있)'이 지게 된 원인이며, B의 '바람'은 나무가 쓰러지게 된 원인이다.

③ A의 '도화', 즉 뜰에 가득히 핀 복숭아꽃은 봄날의 경치를 만끽하는 화자의 흥취를 부각하지만, ㉠은 죽은 누이를 이르는 시어이므로 화자에게 슬픔을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B의 '나무'는 입을 잃은 화자 자신을 비유한 것이고, ㉠은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바람에 의해 떨어지거나 쓰러진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의 죽음이 지병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병으로 죽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고, ㉡가 뉘우치고 한탄하는 회한에 빠져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와 ㉡는 '혹든 가지라 나고'라고 하여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혈육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③ ㉠의 죽음에 대해 ㉡는 '생사 길흔 / 이에 이사매'라고 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⑤ ㉡는 '가는 곧 모드론더.'라고 하며 ㉠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 '미타찰아 맛보올 나 / 도 닷가 기드리고다.'라고 하여 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4 3구~4구의 '나는 가느다 말사도 / 몬다 니르고 가느뵈고.'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누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과 그로 인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010 찬기파랑가_ 총답사 46쪽

키포인트 체크 기파랑, 자연물, 예찬

1 ③ 2 ④ 3 ① 4 이전까지 전개된 시상을 집약하면서 전환하고 있다.

1 화자는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서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② 화자는 기파랑을 그리워하며 그를 볼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할 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벼슬에 오르려 하거나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등의 정치적 포부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자연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자연과 가까이하면서 살아가려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작품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2 이 작품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려는 화자의 마음을 혼자 말하는 방식, 즉 독백체로 표현하고 있다.

②, ③ 이 작품은 기파랑을 자연물인 '달', '물', '갯가지' 등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파랑의 고결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9구 ~ 10구에서 '푸른색(갯가지)'과 '흰색(눈)'이 대비되면서 '눈(시련)'에 굴하지 않는 '갯가지(기파랑의 절개 또는 기상)'를 나타내고 있다.

3 이 작품의 '눈'과 <보기>의 '풍상'은 모두 '시련, 역경'을 상징하며, 이 작품의 '자식가지'와 <보기>의 '황국화'는 '푸른 기상'과 '절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자식가지 - 눈'의 관계는 <보기>의 '황국화 - 풍상'에 대응된다.

☞ 오답 틀어보기 ②, ③ 이 작품과 <보기> 모두 시간의 흐름이나 대상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대상의 부재 상황은 이 작품에만 해당된다.

⑤ 이 작품에는 화랑의 우두머리인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지만, <보기>에서는 화자가 '님(임금)'에게 국화를 받고 '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님(임금)'을 원망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작품은 낙구인 9행 첫머리에 나타난 감탄사 '아야'를 통해 이전까지의 시상을 집약한 뒤, 시상을 전환하여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보기>의 종장 첫 음보에 나타난 '어즈버' 역시 감탄사로,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식 +

- 갈래: <오백 년 도읍지를>
- 갈래: 평시조, 서정시
- 성격: 회고적, 감상적
-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 감상: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보며 느끼는 감회를 노래한 회고가(懷古歌)의 대표작으로, 망국의 한과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011 도술가_ 월명사 48쪽

키포인트 체크 해결, 해, 산화공덕

1 ② 2 ④ 3 ④ 4 미륵좌주 뒤편 나뭇가. 완곡하지만 명령의 형태로 미륵불을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이 작품에는 꽃을 뿌리며 부처님을 모시는(산화) 불교적인 의식이 언급되어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노동과는 관련이 없다.

③ 꽃에게 명령하는 부분은 나타나지만,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4구체 향가로는 <도술가> 외에도 <서동요>, <헌화가> 등이 전한다.

⑤ 이 작품은 주술적 성격이 두드러진 노래로, 개인적 서정시와는 거리가 멀다.

2 향가의 발전 과정은 민요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4구체 향가에서 시작하여, 4구체 향가가 형식적으로 발전하여 배수를 이룬 8구체 향가, 그리고 여기에 형식적 정제미를 갖추어 낙구에 감탄사가 제시되는 10구체 향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10구체 향가가 4구체, 8구체 향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민요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향가는 행수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뉜다. <도술가>는 4구체, <처용가>는 8구체, <제망매가>는 10구체 향가이다.

②, ⑤ 4구체 향가가 형식적으로 발전하여 배수를 이룬 8구체 향가가 되고, 여기에 형식적 정제미를 갖추어 10구체 향가가 나타난다.

③ 10구체 향가에서는 대개 9행의 앞머리에 감탄사를 넣어 시상을 집약한다. 이러한 향가의 감탄사를 시조 종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영탄구의 연원으로 보아, 향가를 시조 형식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3 ㉞은 산화공덕 의식을 정성을 다해 치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로 여기에서 화자의 서정적 감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배경 설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두 개의 해가 나타난 괴변을 물리치고자 부른 노래이다.

② ㉝은 불교 예식의 일종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의의 의미를 지닌다.

③ ㉞의 '너'는 '산화' 의식에서의 꽃을 인격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⑤ ㉞은 '미륵보살'을 의미하며, 산화 의식을 행하는 대상이다.

4 이 작품에서 주술적 특징을 보이는 부분은 4구로, 미륵불을 모셔 두 개의 해가 나타난 괴변을 물리치고자 하는 소망을 완곡한 명령의 형태로 제시했다.

012 처용가_ 처용 50쪽

키포인트 체크 역신, 노래, 관용

1 ③ 2 ⑤ 3 ③ 4 가루리 네허어라.

1 이 작품은 고려 가요 <처용가>의 모태가 되기는 했지만, 한역되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향찰로 표기된 향가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신라 현강왕 때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현전하는 마지막 향가이다.

② 시적 화자인 처용은 무격, 지방 호족의 아들, 아랍 상인 등으로 보기도 하며, 시적 대상인 역신과 아내도 처용의 정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④ 축사(逐邪)란 사악한 것을 쫓는다는 의미이며 벽사진경(辟邪進慶)은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이 노래를 불러 역신을 쫓아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처용가>는 고대 가요 <구지가>와 <해가>에 이어 주술 시가의 맥을 계승한 작품으로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2 <보기>의 처용은 역신을 위협하고 저주하며 역신에 대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보이는 역신에 대한 관용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의 처음 여섯 구절이 <보기>에 제시된 고려 가요 <처용가>에 그대로 계승되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상황, 즉 밤늦게 놀다 들어오니 잠자리에 다리가 넷이 있었다는 상황이 두 작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② <보기>의 '산이나 들이나 천 리 먼 곳으로 / 처용 아버를 피해 가고 싶다.'에 처용을 두려워하는 열병신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다.

③ <보기>의 '이런 때에 처용 아버 곧 보시면 / 열병신 따위야 헛감이다.'에 처용의 위엄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④ 이 작품의 화자는 아내를 빼앗긴 처용으로 볼 수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처용이나 역신이 아닌 제삼자이다. <보기>의 화자는 축사(逐邪)의 능력이 있는 처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처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자 처용을 불러 역신을 물리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 ㉠에서 '둘'은 아내의 다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것이 '내해었고(내 것이었고)'라고 말하는 이는 화자인 '처용'이다. 즉, ㉠은 '아내가 본디 내 것이었다.'라는 의미로 처용이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에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 '시불(신라의 서울인 서라벌)'과 시간적 배경 '불기 둘(달밤)'이 나타나 있다.

② ㉠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역신)가 아내를 범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④ ㉠은 또 다른 두 다리의 주인이 '뉘'인지 물으면서 축사 대상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⑤ ㉠은 '엇디 흥릿고.'라는 체념적 어조로 절제와 관용을 통한 달관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4 <보기>의 밑줄 친 '빼앗긴 들'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대유법이다. 대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보기>에서는 '빼앗긴 들'이라는 부분을 통해 일제 시대에 '빼앗긴 우리 국토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부분은 '네 가랑이(다리)'라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4구이다.

3 | 한시

015 여수장우중문시_ 을지문덕

54쪽

키포인트 체크 을지문덕, 항복, 조롱

1 ③ 2 ③ 3 ⑤ 4 수이 결항(乞降) ㅎ야스라, 적을 위협하여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1 이 작품에는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나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된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1구와 2구에 대구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② 3구의 '싸움에 이기어'라는 구절을 통해 이 작품이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⑤ 전쟁 상황에서 적장 우중문의 평정심을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쓴, 고도의 전술적 성격을 띤 시라고 할 수 있다.

2 1구~3구는 반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상대방을 조롱한 것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1구~3구에서는 상대방의 책략을 치켜세우고 있다.

② 4구는 '만족하고 그만두라'라고 하여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다.

④ 이 작품에서 처음에는 상대방을 칭찬하다가 뒤에서 조롱하는데 이는 역양법에 해당한다.

⑤ 1구~3구는 '칭찬', 4구는 '경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조를 통해 항복하라는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3 ⑤의 사설시조는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은 쉬운 말로 쓸 수 있는 것을 굳이 한자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현학적이고 과시적인 장사꾼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안민영의 시조로 삶의 처세 방식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다. 높은 낮든, 길든 작든, 순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② 황희의 시조로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에 술이 익어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풍류와 가을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③ 임에 대한 그리움을 자연물의 모습에 대응하여 그려 낸 작품으로, 임을 그리워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얼굴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입을 만날 수 있다면 입과 화자 사이에 있는 높은 고개를 단숨에 넘어갈 수 있다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4 ㉠은 전쟁을 그만두자는 권유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항복하라는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구절을 <보기>에서 찾으면 '수이 결항(乞降) ㅎ야스라(빨리 항복하여라).'이다.

016 야청도의성_ 양태사

56쪽

키포인트 체크 나그네, 다듬이, 그리움

1 ① 2 ③ 3 달, 은하수 4 나그네, 화자는 먼 이국땅 낯선 고장에 있는 나그네이다.

정답과 해설

- 1 이 작품에는 임의 부재가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고향이다.
- ☞ 오답 뜯어보기 ② 다듬이질하는 이웃집 여인의 모습과 마음을 추측하여 상상하고 있다.
- ③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등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가을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쓸쓸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2 '바람'은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를 화자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 화자는 상황을 개선하거나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 뿐이다.
- ☞ 오답 뜯어보기 ① 화자는 가을밤에 환한 '달'빛과 '은하수'를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다듬이 소리'는 가을밤 쓸쓸하게 앉아 고향을 그리워하던 화자의 마음을 더욱 심화하는 소재이다.
- ④ '별이 낮도록'은 앞 구절의 '밤 깊고'와 연결되며,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 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구절이다.
- ⑤ '서로 비슷하네'는 과거에 고국에서 들었던 다듬이 소리와 현재 일본에서 듣고 있는 다듬이 소리를 비교한 구절이므로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 3 이 작품의 1행에서는 가을밤의 달과 은하수가, <보기>에서는 하얀 배꽃에 비친 달빛과 은한(은하수)이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지식 +

-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 갈래: 평시조, 서정시
- 성격: 애상적, 감각적, 다정가(多情歌)
- 주제: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서
- 감상: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를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하얀 배꽃'과 '환하게 비추는 달빛', '은하수' 등 고독과 애상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소책사의 울음을 통해 한의 정서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4 객관화된 화자란 화자가 자신을 마치 제삼자처럼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먼 이국땅 낯선 고장에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② 이 작품에서는 모순되는 말로 의미를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현재 모습만 나타낼 뿐 과거의 처지는 알 수 없다.
- ④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을 뿐,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2 3구의 '향기', 4구의 '그림자' 모두 꽃이 완숙한 모습으로 성장했음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뛰어난 능력을 비유하고 있다.

- ☞ 오답 뜯어보기 ① 1구~2구에서 '거친 발 언덕 쓸쓸한 곳'에 '꽃송이'가 탐스럽게 피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꽃(촉구화)'은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수레 탄 사람'은 임금을 비롯한 고관대작, '벌 나비'는 하층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서로 대조를 이룬다.
- ⑤ 화자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천한 땅에 태어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작품에서 자신을 형상화한 '꽃' 역시 '천한 땅에 태어'나 버림받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3 <보기>의 화자는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이 작품의 화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을 벗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내용의 충고를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 ☞ 오답 뜯어보기 ②, ③ <보기>의 화자는 자연 속에 묻혀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므로, 계속해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복돋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이 작품의 화자에게 빈곤 속에서 만족함을 찾으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지식 +

- 윤선도, <만흥>
- 갈래: 연시조(전6수)
- 성격: 자연 친화적, 한정가(閑情歌)
-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님의 은혜
- 감상: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롭고 흥겨운 심정을 읊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제2수에서는 소박한 삶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

- 4 이 작품은 작가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 갔을 때 지은 것으로,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자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출신지를 의미하는 ㉠은 '신라', 화자를 알아주지 않은 ㉡은 '당나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017 촉구화_ 최치원 58쪽

키포인트 체크 유학, 접시꽃, 한탄

- 1㉡ 2㉢ 3㉤ 4㉠: 신라, ㉡: 당나라 사람들

- 1 7구와 8구에서 화자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스스로 천한 땅에 태어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오답 뜯어보기 ① '꽃(촉구화)', '매화 비', '보리 바람' 등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 수는 있으나 계절의 순환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018 추야우중_ 최치원 60쪽

키포인트 체크 외로움, 괴로워함, 현실

- 1㉡ 2㉤ 3㉢ 4 당나라에 머물 때 창작한 것으로 본다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이고, 귀국했을 때로 본다면 지식인의 고뇌와 외로움이 주제가 된다.

키포인트 체크 최치원, 현실, 절망, 좌절

1 ② 2 ⑤ 3 ⑤ 4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숨어서 살고 싶다.

1 이 작품에서 '비'와 '등불'은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소재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을 바람', '밤', '비' 등의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암울한 처지와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③ 3구와 4구는 다섯 개의 한자가 각각 완벽하게 대응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다.

④ 작품의 제목 '추야우중'은 '가을밤에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가을과 밤과 비가 결합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암시한다.

⑤ '지음(知音)'이라는 단어는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를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없음을 말하며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2 ㉔에서는 화자가 지닌 고독과 비애의 심리가 '만 리'로 표현되어 있을 뿐, 화자가 지닌 지식의 깊이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㉔에는 화자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힘들게 시를 읊게 되었다는 창작 동기가 드러나 있다.

②, ③ ㉔에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나타나 있으며,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소외감과 세상에 대한 탄식을 '지음(知音)' 고사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㉔에서 화자는 객관적 상관물인 '밤'과 '비'를 통해 자신의 고독한 심정을 심화하고 있다.

지식 +

• '지음(知音) 고사

'지음(知音)'이란 지기(知己)와 같은 뜻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 《열자(列子)》의 《담문편》에 실린 백아와 종자기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백아가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면 그의 벗 종자기는 옆에서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이 눈앞에 있구나."라고 하였다.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기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를 부수고 줄을 끊은 다음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겠다고 한다. 이 세상에 다시는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알아주는 이[知音]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3 <보기>에 따르면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방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고국에 돌아왔고, 이후 고국에서 경세의 뜻을 펼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은거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㉔을 이해한다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과 떨어진 화자의 마음을 '만리심'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④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최치원이 산 속에 은거한 것은 자연 친화,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피한 소극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화자는 관직에 올라 뜻을 펴고자 했으나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멀어지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③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 당시 그곳에서 이방인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이 작품에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세상에 대한 한탄, 고뇌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창작 시기를 당나라 유학 당시로 본다면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뒤로 본다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고뇌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 작품의 화자는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을 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본래 물이 산 주위를 흐르고 있는 것을 화자 자신이 물로 산을 돌렸다고 표현하여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③ '물'로 세상과 단절된 것으로 보아 화자는 현실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1구의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에서 활유법을 사용하여 물의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1구~2구에서 강렬한 물소리로 외부 상황을 제시한 후, 3구~4구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이 작품은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상의 발달, 전개, 결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조의 3단 구성에 맞게 정리하면 '첩첩 바위 사이를 물이 매우 큰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다. → 물소리가 너무 커서 가까운 곳에서의 말소리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 이 물로 산을 둘러서 듣기 싫은 세속의 시비 소리를 막아 버렸다.' 정도의 흐름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흐름이 잘 드러난 것은 ㉔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말소리를' 바르게 듣지 않으니 이 작품의 주제 의식에 어긋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세속의 말소리를 거부하고 있다.

② '말소리 시비 소리 분간하고 싶은데'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에 어긋나며, 종장에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다.

③ 주제 의식이 종장이 아닌 초장에 담겨 있다.

④ '은 산에 시비성은 둘러 두고 듣고저.'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에 어긋난다.

3 ㉔은 물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소리라면, ㉔과 ㉔은 인간의 소리이므로 멀리하고 싶은 소리, 즉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소리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④ ㉔은 물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속세의 인간들이 내는 소리인 ㉔과 ㉔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② ㉔의 '울리니'의 주체는 4구의 '흐르는 물'이다.

③ ㉔, ㉔, ㉔은 모두 마음속에 소리가 떠오르게 하는 청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4 이 작품은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사물인 물소리에 '산속에 은거하여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마음'을 투영하여 주관적 변용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II. 고려 시대

1 | 고려 개요

020 가시리_ 작자 미상

70쪽

키포인트 체크 여인, 돌아오기, 체념

1 ④ 2 ③ 3 ⑤ 4 이 작품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 대해 체념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1 이 작품은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소박한 시어를 통해 이별의 아픔을 그려 내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나눈’은 여음이고 ‘위 증증가 대평성티’는 후렴구 또는 여음구로, 이들은 특별한 의미 없이 악절을 맞추거나 노래로 불리기 위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시리(가시리이고)’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면서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③ 1연에서 4연까지 3음보 2형을 기본으로 하고, 각 연의 마지막에 후렴구를 배치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⑤ 높임 표현,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말투 등에서 여성 화자의 어조가 느껴지며, 이를 통해 슬픔을 참는 화자의 정서를 극대화하여 드러냈다.

2 ㉞는 떠나는 입을 붙잡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으로, 입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보기 ① ㉠는 ‘(정말) 가시렵니까?’의 의미로,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의 슬픔이 드러난다.

② ㉡는 ‘(당신이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의 의미로, 입에 대한 원망과 화자의 고조된 감정이 드러난다.

④ ㉣는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뜻으로, 화자는 입이 화를 낼까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⑤ ㉤는 입의 마음이 바뀌어 곧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3 이 작품은 화자가 청자로 설정된 ‘입’을 향해 직접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입’을 청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입에게 직접 호소하는 형식의 말하기 방식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보기 ① <보기>의 초장 ‘울며 잡고 이별한 남’에서 이별의 상황이 나타난다.

② <보기>의 중장에서 화자는 ‘저도 날 생각는가(저도 날 생각하는가)’라고 했는데, 이는 곧 화자가 여전히 입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중장에서도 이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③ <보기>의 초장 ‘이화우 후후릴 제’에서 화자가 입과 이별한 시기가 봄이었음을 알 수 있고, 중장의 ‘추풍낙엽’을 통해 이별 뒤에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낸다.

④ 이 작품의 화자는 입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보기>에서도 입과 이별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입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이 작품의 화자는 떠나는 입을 붙잡지 못한 채 상황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며 입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보기>의 화자는 입과 이별하게 된 상황에서 생활 터전과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입을 따르겠다는 열정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021 동동_ 작자 미상

72쪽

키포인트 체크 임, 세시 풍속, 원망

1 ④ 2 ⑤ 3 ⑤ 4 ④ 5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노니이다 6 ④ 7 ⑤ 8 ① 9 월령체 형식이며, 후렴구가 연(달)마다 반복되고 있다.

1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는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보기 ① 정월령, 4월령, 6월령, 7월령에 임과 함께 지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나타난다.

② ‘흐을로 녀셔(홀로 살아가는구나)’, ‘다호라(갈구나)’, ‘돌윗고지여’ 등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4월령에 ‘늑사님’(벼슬 이름)이라는 임의 신분이 언급되어 있다.

⑤ ‘등(燈)스불 다호라(갈구나)’, ‘빗 다호라(갈구나)’와 같은 직유법을 통해 임과 화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 3월령에서는 임의 이름다움을 ‘돌윗꽃’에 비유하여 찬양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보기 ① ‘아으 동동다리’는 모든 연에서 반복되는 형식적 장치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이다.

②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의 덕과 복을 비는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정월령은 정월의 ‘넷물’과 비교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2월령은 ‘높이 켄 등불’에 빗댄 임이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지녔음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등(燈)스불’은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라고 할 수 있다.

3 ㉠은 화자가 사랑하는 임께 바치는 사랑을 의미한다. ⑤의 ‘님의 옷’은 화자가 사랑과 정성을 담아 입을 위해 만든 사랑의 징표를 의미하므로 ㉠과 시적 의미가 유사하다.

오답 풀이보기 ① <구지가>로 ‘머리’는 ‘임금’을 의미한다.

② <청산별곡>으로 ‘떨위랑 드래’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한다.

③ 조식의 시조로 ‘뵈웃’은 ‘벼슬하지 않는 신분’을 의미한다.

④ 윤선도의 <견회요>로 ‘외기러기’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4 <보기>의 ‘찌꼬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며 ㉠ 역시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므로 ‘찌꼬리’와 발상과 표현이 유사하다.

자식+

•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 이입

감정 이입이란 화자의 감정을 소재에 집어넣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감정 이입 주체와 대상은 동일한 감정을 지닌다. 이에 비해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동원된 사물, 정황, 사건일 따름이므로 드러내고자 하는 사물의 감정과 주체의 감정이 일치할 필요가 없다.

예 ‘길가의 나무도 기본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춘다.’에서 ‘나무’는 객관적 상관물이며, 이러한 표현 자체는 감정 이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길가의 꽃이 시들어 보인다.’라는 표현에서 ‘꽃’은 우울한 마음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이 표현 자체는 감정 이입이라고 할 수 없다.

키포인트 체크 이별, 사공, 거부

1 ③ 2 ② 3 ② 4 대동강은 화자와 임이 이별하는 공간이자 임과의 공간적·심리적 단절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1 2연에서는 '구슬'과 '끈'에 빗대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을 뿐(②), 상황 변화나 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1연에서는 임과 함께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길쌈하던 베)을 버리고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④, ⑤ 3연에서는 임이 강을 건너면 다른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배를 내어놓느냐며 임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게 돌리고 있다. 여기서 '강'은 임과 화자의 단절(이별)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2 '자연에 대한 동경'은 고려 가요 중 <청산별곡>의 주제와 연결된다.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⑦)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③ 이 노래는 전체 3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성인 분연체를 따른 것이다.

④ '아즐가'는 악률을 맞추기 위한 여음이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는 후렴구이다.

⑤ '서경(西京), 대동강(大同江)'과 같은 고유 명사나 '신(信)'을 제외하면 대부분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

3 [A]의 '신(信)'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A]와 [B]의 '바위'는 모두 그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과 '붉은 마음'이 '바위'로 형상화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와 [B]에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 깨지거나 흩어질 수 있는 대상인 반면,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신(信)'을 통해, [B]에서는 '붉은 마음'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A]와 [B]에는 모두 '구슬과 끈'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티프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모티프가 각각 고려 가요와 한시라는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A]에는 '아즐가'라는 여음구와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라는 후렴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반면, [B]에는 특별한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4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대동강'은 임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공간이면서 임과의 단절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5 6월령에서 화자는 자신이 '별해 벼론 빗(벼랑에 버려진 빗)'과 같다고 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니노이다(돌아보실 입을 잠시나마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며 입을 따르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6 이 작품은 분연체의 고려 가요(ㄷ)로 북 치는 소리를 본뜬 '동동'이라는 의성어로 흥취를 고조하고 있으며(ㄴ), 서사를 제외한 나머지 12연이 일 년 열두 달로 구성된 월령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ㄹ).

① 이 작품의 후렴구에는 주제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ㄷ.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3음보의 율격을 보인다.

7 이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화자가 그리는 임이 당대의 벼슬을 나타내는 '녹사'라고 표현되었다는 점(ㄱ), 화자가 여성 주변의 사물인 '빗'과 '젓가락' 등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ㄷ),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에 대한 한탄이 작품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ㄹ)을 들 수 있다.

ㄴ. 이 작품에서는 '-소이다', '-노이다' 등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청유형 어미는 나타나 있지 않다.

8 정월령에서 봄을 맞이하여 녹으려 하는 '나릿들'은 세상에 태어나 홀로 살아야 하는 외로움 때문에 얼어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11월령의 '봉당 자리'는 추운 계절에 홀적삼을 덮고 누운 차가운 공간으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② 5월령의 '반죽노이다'에는 단옷날 아침 약을 바치는 화자의 정성이, 7월령의 '비습노이다'에는 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비는 화자의 기원이 담겨 있다.

③ 6월령의 '좃니노이다'는 입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7월령의 '흔 디너가저'는 임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이 드러난 표현이다.

④ 6월령의 '빗'은 벼랑에 버려진 것이고, 10월령의 '벼룻(보리수나무)'은 꺾여 버려진 것으로 둘 다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물이다.

⑤ 10월령의 '업스삿다(없어라)'는 임에게 버림받아 함께 지낼 사람이 없는 화자의 상황을, 11월령의 '스식움 녀셔(각각 살아가는구나)'는 임과 이별하고 홀로 살아야 하는 화자의 고독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9 <보기>는 '정월이라 ~ 뗏단다', '이월이라 ~ 뗏단다'의 형태로 월령체 형식을 갖추고 있고, 연(달)마다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이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지식 +

• 작자 미상, <자진방아 타령>

- 갈래: 민요
- 성격: 낙천적, 긍정적
- 주제: 월령과 절기에 따른 농촌의 모습과 세시 풍속
- 감상: 월령체의 민요로서 정월에서 5월까지만 월령체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다른 가사로 이어진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민요에 속한다. 기능적으로는 방아를 짚으면서 불렀던 노동요가 아니라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 불려진 칭(唄)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023 정과정_ 정서

78쪽

키포인트 체크 모함, 결백, 충절

1② 2① 3② 4충신연주지사, 향가계 고려 가요(향가계 여요)

1 이 작품에는 고려 가요의 형식상 특징 중 하나인 후렴구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내 죄를 우기던 이, 그 누구입니까).에 자신을 포함한 존재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③ '내 님들 그리스와(내가 임을 그리워)', '슬웃븐더(슬프구나)'에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④ '아소 님하'와 같은 여음구나 3단 구성을 통해 이 작품이 향가계 여요임을 알 수 있다.

⑤ 이 작품은 고려 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인 3음보를 따르고 있다.

2 ① '접동새'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여기는 감정 입의 대상이며, 화자가 결백을 토로하는 대상은 ㉠ '잔월효성'이다.

☞오답 틀어보기 ② ㉠은 고전 시가에서 한과 고독의 정서를 드러낼 때 주로 사용되는 자연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억울하고 고독한 상황과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③, ④ ㉠은 화자의 결백함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이다.

⑤ 달이 지고 새벽 별이 나오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작품의 화자는 임(임금)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며 임금이 자신의 진심을 헤아려 다시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②의 화자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임이 알아서 헤아려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을 강의 한가로운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③ 이별한 임(단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④ 굽힘 없는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⑤ 땅한 고려의 궁궐터를 보면서 느끼는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4 이 작품은 유배지에서 외로운 처지가 된 작가가 연인에게 버림받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왕에 대한 충정을 표현한 '충신연주지사'이다. 그리고 형식 면에서는 10구제 향가의 3단 구성을 이어받은 점과 '아소 님하'와 같은 낙구의 감탄사를 사용한 것에서 향가에서 고려 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의 '향가계 고려 가요(향가계 여요)'라고 할 수 있다.

024 정석가_ 작자 미상

80쪽

키포인트 체크 사랑, 불가능, 의지

1④ 2① 3③ 4①

1 시상의 전개와 무관한 서사의 내용을 통해 이 작품이 궁중 연회에서 불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ㄴ). 또한 '유덕(有德)하신 님들 여히와와지이다.'는 표면적으로는 입과 이별하겠다고 하여 입과의 영원한 사랑의 소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ㄹ).

☞오답 틀어보기 ㄱ. 이 작품의 후렴구는 입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실질적 의미를 담고 있다.

ㄷ. 이 작품에서는 감각의 전이, 즉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딩아 돌하'에서 '딩'과 '돌'은 일반적으로 악기 소리의 의성어로 해석한다. 나머지는 2연~5연에 등장하는 소재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3 <보기>에서는 고려 가요가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된 의도와 맥락을 제시하여 이 작품이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군신 간의 충의'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작품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한 임금만을 섬기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후자의 맥락에서 본다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은 임(임금)과의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 '천 년'을 '외따로이' 사는 것은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끊어질 리 있겠냐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은 임(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의'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 이 작품은 입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①의 <황계사> 역시 역설과 과장을 통해 오지 않는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입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황진이 시조의 어순을 바꾼 도치법이 쓰였다.

③ 정철의 <사미인곡>으로 설의법을 사용하여 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이정보의 시조로 자연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의인법이 쓰였다.

⑤ 조선 후기의 민요인 <시집살이 노래>로 여러 민물의 특징을 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025 사모곡_ 작자 미상

82쪽

키포인트 체크 어머니, 농기구, 효, 칭송(예찬)

1② 2④ 3⑤ 4㉠: 아버지의 사랑, ㉡: 어머니의 사랑

1 이 작품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효(孝)라는 유교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불교의 윤회 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호미'와 '낮'은 농기구로,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재이다.

③ '위 덩터동성'은 노래의 내용과 관계없는 의미 없는 여음구이다.

④ 이 작품은 연의 구분이 있는 일반적인 고려 가요와 달리 연의 구분이 없다.

⑤ 이 작품은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요적 성격을 띠며, '어머니의 노래'라는 뜻의 <옛노리(옛노래)>라고도 한다.

2 이 작품에는 과장법을 사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어마님 7티 괴시리 업세라.'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아버지의 사랑을 '호미'에, 어머니의 사랑을 '낮'에 빗대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호미'와 '낮'을 대조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아소 님하'와 '-업세라'는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3 이 작품의 화자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⑤에서 화자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우선적 행동을 하는 대상에게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고국을 떠나는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당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서로 화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④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의 소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는 '아버지의 사랑'을 빗댄 소재이고, ㉡는 '어머니의 사랑'을 빗댄 소재이다.

026 청산별곡 _ 작자 미상 84쪽

키포인트 체크 청산, 바다, 체념

- 1 ④ 2 ③ 3 ③ 4 울림소리 '르, 이'를 사용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5 ㉠: 화자의 분신(감정 이입의 대상), ㉡: 피할 수 없는 운명(화자의 운명)

1 이 작품은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2연의 '우러라'를 '노래하다'로 해석하면 2연의 2행은 '너보다도 근심이 많은 나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현실에 대한 만족이라기보다는 화자가 현실의 고통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이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동경, 삶의 비애와 고독, 속세에 대한 미련, 외로움 등을 보이는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지만, 그것이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새'에게 화자의 슬픔을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② '살어리 살어리랏다', '우러라 우러라 새여',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등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우러라 우러라 새여 ~ 우니노라'에서 화자가 청자인 '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살어리 V 살어리 V 랏다'와 같이 3·3·2조의 3음보 율격과 '살어리(a)-살어리랏다(a)-청산(靑山)에(b)-살어리랏다(a)'의 'a-a-b-a' 구조가 반복되며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3 <보기>처럼 5연과 6연의 위치를 바꾸면 2연은 5연과 의미상 대응한다. 따라서 2연의 '우러라 우러라 새여'는 5연의 '어디라 더디던 돌코'와 대응하며, 5연의 '미리도 괴리도 업시'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라는 뜻으로 2연의 '날라와 시름 한 나도'와 대응한다.

4 ㉠은 내용과 관계없이 노래의 흥을 돋우어 주는 후렴구이다. 울림소리인 '르, 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5 2연에서 화자는 '새'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그리고 5연에서 화자는 어디로 던지는지, 누구를 맞히는지도 모르는 '돌'에 맞아서 울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현재의 삶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 경기체가

030 한림별곡 _ 한림 제유 88쪽

키포인트 체크 신진 사대부, 자부심, 풍류

- 1 ⑤ 2 ② 3 ⑤ 4 <제8장>은 순우리말 표현이 많고, 그네 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1 이 작품에는 전체적으로 순우리말보다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순우리말 사용은 <제8장>에만 두드러진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경기체가는 3·3·4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율격을 특징으로 한다.

② <제1장>과 <제2장>에서 시부와 서적과 관련된 대상들을 나열함으로써 문인들의 학문에 대한 기개를 영탄하고 있으며, '경(景) 그 엇더흐니잇고'와 같은 후렴구를 통해 사대부들이 자신의 학문적 실력을 뽐내는 광경이 매우 굉장하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이 작품은 한림원의 여러 선비가 지은 것으로, 그들의 자부심과 의욕적 기개가 반영되어 있다.

④ '경(景) 그 엇더흐니잇고'라는 구절은 후렴구로, 이는 '경기체가'라는 갈래의 이름이 붙게 된 연유가 되었다.

2 이 작품과 <보기> 모두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위 ~ 경(景) 그 엇더흐니잇고', <보기>에는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알라'라는 후렴구가 존재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두 작품 모두와 관련 없는 설명이다.
- ③ 이 작품은 주로 관념적이고 교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한림원의 여러 선비가 지은 것으로, 민중들의 구체적 상황보다는 지배층의 관념, 사유 방식을 엿볼 수 있다.
- ⑤ 이 작품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보기>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3 이 작품의 <제8장>에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현실 세계에 대한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보기>는 '바다'라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라는 현실 인식에 따른 좌절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의 <제8장>과 <보기>는 모두 '그네'라는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이 작품의 <제8장>에서는 화자가 청자인 '명소년'에게 말을 건네고 있고, <보기>에서는 화자가 청자인 '향단'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③ 이 작품의 <제8장>에서는 '위 휴슈동유스 경(景) 그 엇더흐니잇고'에서 풍류 생활을 찬양하는 고조된 정서를 나타내고 있고, <보기>에서는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에서 설렘의 고조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이 작품의 <제8장> '내 가논'에서는 '내'라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

정답과 해설

에 드러나 있고, <보기>에서는 '나를 밀어 올려 다오.',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에서 '나'라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4 한자어 및 이두 표현이 주로 쓰인 이 작품에서 문학성을 인정받는 부분은 <제8장>이다. 이는 순우리말 표현이 등장하고 그네 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3 | 시조

033~035 한탄과 애상 92쪽

키포인트 체크 유신, 백발, 소쩍새, 신진 세력, 백발, 배꽃, 한탄, 늙음, 애상적

1④ 2③ 3② 4백설, 매화

- 1 (나)의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면서 인생무상을 느끼고는 있으나 이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대처하는 달관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가)는 고려의 국운이 쇠퇴해 가는 상황에서 우국지사(憂國志士)가 나타나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으며, (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 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백설(고려의 유신)', '구름(조선의 신홍 세력)', '매화(고려의 국운을 되살릴 우국지사)', '석양(고려의 쇠락한 국운)' 등, (나)는 '춘산(청춘)', '서리(백발)' 등을 비유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③ (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 가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다)는 봄밤을 배경으로 하여 애상과 우수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는 고려가 쇠망해 가는 상황을 언급한 뒤 화자 자신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으며, (다)는 깊은 봄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언급한 뒤 화자의 애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2 '반가운 매화'는 '구름(구름)과 대조를 이루는 시어로, 고려의 국운을 되살릴 우국지사를 상징한다.

- 3 '은한이 삼경'에서 시간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으며(ㄱ), 초장과 중장에서는 달빛이 배꽃을 비추는 가운데 밤늦은 시간에 느껴지는 봄밤의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ㄷ).

☞오답 풀이보기 ㄴ. 초장에서는 주로 백색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 색채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ㄹ. 중장에 등장하는 '자규'는 작가가 자신의 애상적 정서를 표출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客觀的 相關物)이기는 하나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 4 ㉠의 '구름'은 조선 초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신진 세력을 상징하며, '백설'과 '매화'는 고려의 유신(遺臣)이나 고려의 우국지사(憂國之士)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과 대비를 이룬다.

036~037 명분과 현실의 대립 94쪽

키포인트 체크 이방원, 회유, 거절, 우회, 충성심

1⑤ 2① 3만수산 드령츄 4오상고절

- 1 직설적인 화법으로 굳은 의지를 강조한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가)에서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인간사를 자연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조선의 신진 세력이 정당성과 명분의 확보를 위해 당시 명망이 높았던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권유의 방식으로 설득하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드령츄(쫄탕굴)에 비유하여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다.

② 직설적인 말은 내비치지 않고 권유의 방식으로 시세에 영합하기를 우회적으로 회유하고 있다.

③ (나)의 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초장과 중장에서 '죽음. → 일백 번 고쳐 죽음. → 백골이 진토가 됨.'과 같이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 2 (나)에서는 저물어 가는 왕조에 대해 충성을 다하려는 충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ㄱ'의 반응은 적절하다. 또한 화자는 죽어서라도 자신의 충절을 지키려 하고 있으므로 'ㄴ'과 같은 반응도 적절하다.

☞오답 풀이보기 ㄷ. (나)의 화자는 고려의 왕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ㄹ. (나)에서 세속을 등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 3 (가)에서는 '만수산 드령츄'처럼 얽혀 살아간들 어떠하냐는 말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자고 정몽주를 회유하고 있다.

- 4 (나)의 '일편단심'은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또는 절개를 의미한다. <보기>에서 이러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오상고절(傲霜孤節; 서릿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절개를 지킴.)'이다.

4 | 한시

042 송인_ 정지상 98쪽

키포인트 체크 슬픔, 자연사, 인간사

1④ 2⑤ 3④ 4임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 1 이 작품은 비 갠 독의 고운 풀빛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사의 이별의 슬픔을 대비하여 이별의 정한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이 작품에 지난 삶을 반성하고 살피는 성찰의 자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작품에서는 이별의 정한이 심화·확대되고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대동강 주변으로, 특별한 공간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의 정서는 이별의 슬픔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⑤ 이 작품에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시각을 청각화하거나, 청각을 시각화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 2 '무상감'은 모든 것이 덧없음을 뜻하는 말로, 주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거나 세월의 흐름으로 과거와 많이 변한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할 때 사용한다. 이 작품에는 이별의 정한이 드러날 뿐 현실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결구의 '푸른 물결'은 '이별 눈물'과 호응하여 이별의 정한을 드러낸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결구의 '푸른 물결'은 기구의 '풀빛(푸른색)'의 이미지와 시각적으로 어울린다.

- ②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 물을 보탠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 ③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 물을 보탠다는 결구의 내용은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전구와 의미상 호응한다.
- ④ 이별의 눈물과 대동강 물을 동일시하여 슬픔의 깊이를 확대하고 있다.

3 머지않아 다가올 아름다운 봄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별한 입에 대한 애잔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이수복의 <봄비>(③)를 비롯하여, <가시리>(①), 황진이 시조(②), <서경별곡>(⑤)은 모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이다. ④는 박목월의 <나그네>로 '나그네'나 '강나루'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별의 정한보다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달관의 경지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지식 +

- **이수복, <봄비>**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애상적, 관조적, 향토적, 민요적
 - 주제: 봄비 내리는 날의 애상적 정서
 - 감상: 대립적인 이미지(자연 → 입을 잃은 화자의 정서)를 통해 입이 부재하는 현실에 대한 애상감을 드러낸 시로, 향토적 소재와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며 각운(-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박목월, <나그네>**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향토적, 회화적, 민요적
 - 주제: 체념과 달관의 경지
 - 감상: 조지훈이 박목월에게 보낸 <완화삼>이란 시에 화답한 작품으로, 외롭게 떠도는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 체념과 달관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4 이 작품의 '대동강'은 시적 화자의 이별 공간이다. <보기>의 '물' 역시 입과 화자를 갈라놓는 이별의 공간으로, 화자가 사랑하는 입의 죽음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두 작품에서 '물'(대동강, 물)은 모두 이별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43 설중방우인불우_ 이규보 100쪽

키포인트 체크 빗, 이름, 그리움

1 ⑤ 2 ③ 3 ⑤ 4 친구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친구에게 자신이 다녀갔음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 1** 빗을 찾아갔지만 빗이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자 화자는 눈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성찰이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의 뜻이다. 이 작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이 작품에서 자연은 화자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하지만 화자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긴다고 볼 수 없으며, '눈'과 '바람'을 통해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친구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냉소적이란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냉소적이지도 않고,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이지도 않는다.
 - ④ 화자는 만나러 간 친구가 없자 아쉬워하지만 바로 발걸음을 돌리는 대신 채찍으로 눈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2 3·4구에서는 자신이 눈 위에 남긴 이름이 벗에게 전해지도록,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면서 시상이 종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바람이 불어 눈 위에 쓴 글자가 지워지는 장면이 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④ 제목인 <설중방우인불우>는 '눈 속에 빗을 찾아갔다 만나지 못함.'이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 주인공이 눈을 헤치며 벗을 만나러 갔지만 벗이 부재중인 상황을 그릴 수 있다.
- ② 2구에서 화자는 채찍으로 눈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다.
 - ⑤ 3·4구에서 화자가 바람에게 주인이 올 때까지 불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다.

3 <보기>의 화자는 계집종이 술을 사러 간 사이 화원에서 훨훨 나는 나비를 보며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고, <보기>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다.
- ② <보기>의 화자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
 - ③ <보기>의 화자는 벗은 만나지 못했지만 작은 계집종을 만났다.
 - ④ <보기>나 이 작품에서 추측할 수 없는 내용이다.

4 화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말을 달려 먼 길을 왔으나 친구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 아쉬움을 달래고 자신이 다녀갔음을 친구에게 알리기 위해 눈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044 사리화_ 이제현 102쪽

키포인트 체크 탐관오리, 피폐, 착취, 고발

1 ④ 2 ③ 3 ③ 4 농민들이 목이 쉬고 근심하며 얻은 꽃, 즉 곡식을 의미한다.

- 1**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의 불합리한 모습을 돌아보고 있을 뿐 성찰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참새', '농사', '늪은 흠아비', '벼며 기장' 등의 상징적 소재가 사용되었다.
- ② 농민들이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③ '참새'라는 부정적 대상에 대한 풍자가 드러난다.
 - ⑤ '참새'에 비유된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는 농민들의 고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 2** 이 작품과 <보기>는 모두 탐관오리들에게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작품은 당시 민간에서 백성들 사이에 불리던 노래이고, <보기>는 양반인 작가가 백성의 현실을 그려 낸 작품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 모두 화자를 관리로 볼 근거는 없다.
- 3** '참새'는 민중을 수탈하는 '권력자'를 상징하며, '늪은 흠아비'는 '수탈을 당하는 나약한 민중'을 상징한다. <보기>에서 힘없는 민중을 의미하는 것은 '포리'이며, 이를 수탈하는 자는 '두터비'이다. '백송골'은 '두터비'보다 큰 권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 4** '사(沙)'는 '목이 쉬다', '리(里)'는 '근심하다', '화(花)'는 '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리화'는 백성들의 목이 쉬고 근심하며 얻은 꽃, 즉 곡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III. 조선 전기

1 | 악장

048

용비어천가_ 정인지, 권계, 안지 등

112쪽

키포인트 체크 건국(창업), 정당성, 권계, 천명, 기원

1 ② 2 ⑤ 3 내히 이러 바루래 가누니 4 훈민정음으로 된 최초의 작품이며 한국 문학의 독특한 갈래인 악장의 대표 작품이다. 5 ⑤ 6 ③ 7 ④ 8 (불근) 새, 부암(부야미) 9 (다)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10 ① 11 ⑤ 12 ⑤ 13 ① 14 (나)는 후대의 임금들에게 권계하는 내용이지만, <보기>는 당대의 임금인 태조의 성덕을 찬양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1 이 작품은 악장으로, 일정한 음보율을 띠고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에서는 조선 건국을 이룬 이성계 등을 ‘용(龍)’으로 상징하여, 그들이 건국 과정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불휘 기픈 나모’와 ‘시미 기픈 물’은 각각 ‘기초가 튼튼한 나라’와 ‘유서 깊은 나라’를 상징하며, ‘꽃’과 ‘여름’은 ‘문화’를 상징한다.

④ (나)에는 순우리말로 된 시어만 사용되었다.

⑤ (다)에서는 전절과 후절이 대구를 이루며, 고공단보와 목조의 비교를 통해 조선 왕업의 기초가 이미 여러 대 전부터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2 <용비어천가>는 후대 왕들에게 왕권 계승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주로 110장~125장에서 드러나며 (가)~(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다)에는 주로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는 1절 3구체의 형식으로 형식적 과격성을 보이고 있다.

② (가)의 ‘해동 육룡’은 조선 창업의 주역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가리킨다.

③ 이 작품은 대체로 서사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나)는 그러한 성격이 배제되어 있다.

④ (가)에는 ‘고성(古聖)’, (다)에는 ‘주국대왕(周國大王)’과 같이 중국의 제왕이 언급되어 있으나, (나)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점지받은 나라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라는 의미로, 복을 받은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나)의 후절은 냇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왕조가 무궁하게 발전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

4 이 작품은 악장 문학의 대표작으로,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자 장편 영웅 서사시이다.

5 (가)~(다)의 전절에서는 중국의 역대 위인이나 제왕의 사적을 들고, 후절에서는 익조, 도조, 태조의 행적을 들어 중국의 위인이나 제왕에 못지 않은 선조들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절의 중국 고사는 현재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익조와 이성계와 관련된 단편적인 사건을 제시한 것이지 일대기를 다룬 것은 아니다.

②, ④ (가)~(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대구법을 사용하여 전절과 후절을 효과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조선의 창업이 천명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지식+

• <용비어천가>의 등장인물

전체 125장 중에서 특정 인물의 사적(事績)을 제재로 다룬 것은 서사인 1, 2장과 결사인 110~125장을 제외한, 본사에 해당하는 107개 장이다. 이들 노래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섯 명(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이지만, 가장 초점이 맞추어진 인물은 태조 이성계이다. 본사를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제3장에서 제16장까지는 천명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제17장에서 제26장까지는 목조부터 환조까지 등장시켜 왕가(王家)의 고귀한 혈통을 제시했으며, 제27장에서 제32장까지는 태조의 비범한 성장기를, 제33장에서 제66장까지는 잦은 외침에 대응하는 태조의 영웅적 활약과 탁월한 능력을 드러냈다. 제67장에서 제89장까지는 태조가 정권 창출 과정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마지막 제90장에서 제109장까지는 태종의 탁월한 능력과 고결한 품위를 제시했다.

6 (가)와 (나) 모두 조선의 건국 전에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7 <보기>는 이 작품의 서사로, ㉠는 작품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주장이며, (가)~(다)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 또는 사례에 해당한다.

8 ‘불근 새’와 ‘부암(부야미)’은 모두 하늘의 계시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9 (다)의 화자는 태조 이성계를, <보기>의 화자는 신록을 존중하며 찬양하고 있다.

지식+

• 이양하, <신록 예찬>

• 갈래: 경수필

• 성격: 주제적, 관조적, 낭만적, 예찬적, 사색적

• 제재: 5월의 신록

• 주제: 신록의 혜택과 아름다움, 신록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소망

• 감상: 5월의 신록을 보며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색을 전하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신록의 숲속에서 푸른 잎사귀들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 현상에서 느낀 정서적인 체험에 사색이 곁들여지면서, 인생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자연에 대한 심미안적 통찰력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10 이 작품은 조선 왕조의 창업이 하늘의 뜻에 의한 역사적 순리라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역설하고 선조들의 영웅적 업적을 소개하여 후대 왕들에게 왕권 수호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훈민정음 창제에 따라 그 실용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로 창작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간섭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1 (가)와 (나)는 후대 왕에게 권계하는 장으로, 후대의 임금들을 청자로 상징하여 통치자로서 지켜야 할 것과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중국의 고사는 (나)에만 나타나며(ㄱ), (가)와 (나) 모두 비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ㄴ).

12 ‘부자는 망해도 삼 년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속담은 본래 부자이던 사람은 망했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가)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가)에서는 조선 왕조 창업이 사조(四祖)의 고생

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선조들의 간난辛苦(艱難辛苦);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적절하다.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헛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가)의 화자가 할 말로 적절하다.

④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의 청자도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히 왕조를 이루어 가야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격언이라고 할 수 있다.

13 ㉠은 태강왕의 고사를 통해 후대 왕들에게 태강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 상황에서 후대 왕이 지녀야 할 태도로 적절하다.

☞오답 틀어보기 ㉡ 결초보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③ 새옹지마: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④ 백년하청: 중국의 황허강(黃河江)이 늘 흐르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⑤ 태평성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려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14 (나)는 '경천근민(敬天勤民) 호사사', '님금하 아르쇼셔'를 통해 후대의 임금들에게 경천근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는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대(聖代)'를 니르어샷다.', '덕둥(德重) 호신 강산(江山) 즘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등을 통해 태조의 성덕을 송축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2 | 연해

051 강촌_ 두보 120쪽

키포인트 체크 자연, 강촌, 안분지족

1 ㉡ 2 ㉤ 3 ㉢ 4 ㉠은 화자의 평화로운 삶과 조화를 이루는 소재로 친근감을 주지만, <보기>의 '새'는 시적 대상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1 이 작품에는 특별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③ 마을 전경에서 집 안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④, ⑤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강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자연 속에서 한가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자족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2 7~8구에서 화자는 약간 구하면 지금 이 생활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화자의 처지가 [B]의 아내와 아들의 평화로운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 2구의 '일'은 강촌에서 볼 수 있는 그윽한(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A]에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② [A]는 제비와 갈매기, [B]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대구를 이룬다.

③ [A]와 [B]는 강촌의 평화로운 모습을 눈앞에 펼쳐듯 묘사하고 있다.

④ [A]에 그려진 자연의 모습과 [B]에 그려진 인간의 삶의 모습이 서로 대응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이 작품에서 화자는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보기>에서 화자가 부유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 <보기>의 화자는 '지뵈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소도다.', 즉 집에서 보내 온 편지가 만금보다 값지다고 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작품의 화자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애태에 그리워하던 가족을 상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는 봄, 이 작품에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보기>에서는 자연과 인간사가 대비되고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자연과 인간사가 조응하며 한가로운 정취를 부각한다.

⑤ <보기>에서는 폐허가 된 성에 무성한 풀과 나무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는 데 반해 이 작품에서는 한가롭고 정겨운 강촌의 정경을 수채화처럼 묘사하고 있어 서로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4 ㉠의 '굴머기'는 강촌에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소재이나, <보기>의 '새'는 눈이 내리는 차가운 강에서 혼자 낚시질하는 노인의 고독감을 두드러지게 하는 소재이다.

지식+

- 유종원, <강설>
- 갈래: 한시, 5언 절구
- 성격: 묘사적, 관념적
- 주제: 눈 내린 강의 풍경
- 주제: 눈 내린 대자연 속에서 홀로 고기를 낚는 어옹의 고적한 모습, 눈 내린 강의 고적한 풍경
- 감상: 작가 유종원이 영정 혁신의 실패로 영주(永州)로 유배당했을 때 지은 시로, 속세를 초월한 듯 대자연에 은거한 고기잡이 늙은이의 모습에 작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관조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정치적 실의와 유배 생활의 고독감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담고 있다.

052~053 등악양루·강남봉이구년_ 두보 122쪽

키포인트 체크 방랑객, 회상, 악양루, 이구년, 외로움, 무상함

1 ㉠ 2 ㉡ 3 ㉤ 4 외루원비

1 (가)에서는 악양루에서 바라본 광활한 경치와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대비를 이루고, (나)에서는 강남의 좋은 풍경과 화자의 초라한 처지가 대비를 이룬다.

☞오답 틀어보기 ㉡ 두 작품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과거와 현재의 대조는 (나)에만 드러난다.

④ 특정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기법은 (나)에만 사용되었다.

⑤ 두 작품 모두 색채 이미지의 대비는 드러나지 않는다.

- 2 화자는 친한 벗에게서도 편지를 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친한 벗에게서 서신을 받고 슬퍼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의 화자는 전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향의 상황과 자신의 외로운 처지로 인해 애상감을 느껴 눈물을 흘리고 있다.
 ③ 악양루에 올라 두 나라를 구분하고 밤낮 해와 달이 떠 있는 동정호의 광활한 모습을 바라본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
 ④ 화자는 외로운 방랑객인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뇌와 전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싸움터의 말이 관산 북쪽에 있다는 표현을 통해 전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나)에서 화자가 이구년과 미래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화자는 1구와 2구에서 명창으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이구년의 화려했던 과거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② (나)에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나 있다.
 ③ 이구년은 과거에 명창으로 세도가들의 집을 순회하며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④ 3구에서 현재의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4 (가)에서 화자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자신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외로운 비'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 시조

058~060 | 망국의 슬픔과 무상함 126쪽

[키포인트 체크] 벼슬, 나그네, 회고, 말, 궁궐터, 고려, 망국, 무상감, 극복

1⑤ 2③ 3② 4 필마(匹馬)

- 1 (다)는 고려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조선 개국 공신의 회고가로, 망국의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고려 왕조를 잇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입장에 있는 (다)의 화자가 힘을 내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자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의 화자는 '꿈이런가 흐노라.'라고 하며 고려 왕업의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④ (나)의 화자는 잡초가 우거진 고려의 궁궐터를 돌아보며 무상감을 느끼고 눈물겨워하고 있다.
 ③ (다)의 화자는 오백 년의 왕업이 물소리밖에 남지 않았으며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2 (다)의 종장에서는 '고국 흥망을 무려 무엇하리오.'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더 이상 고려 왕조의 흥망을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조선 왕조와 함께 하자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는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는 '추초'와 '목적(피리 소리)'을 통해, (다)는 '물소리'를 통해 쇠락한 고려 왕조를 생각하며 느낀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

고 있다.

- ② 고려 왕조의 멸망이라는 과거의 사건이 사상 전개의 바탕이 되고 있다.
 ④ 고려 왕조의 멸망에 관해 (나)의 화자는 탄식하며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다)의 화자는 무상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왕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나)에서는 '목적(피리 소리)', (다)에서는 '물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 3 (나)에서 이질성이 드러나는 공간을 서로 대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와 <보기> 모두 4음보율을 바탕으로 한다.
 ③ (나)에서는 망국으로 인한 슬픔이, <보기>에서는 봄을 맞이한 자연 속에서의 흥취가 주로 느껴진다.
 ④ (나)의 '석양'은 고려 왕조의 멸망과 연관되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보기>의 '석양(석양리)'은 '도화 행화'의 붉은 이미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⑤ (나)는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를 사용한 독백체의 어조가, <보기>는 '홍진에 못친 분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가 드러난다.
- 4 (가)의 화자는 조선 왕조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가 오랜만에 혼자서 옛 도읍지를 찾아온 상황이다. 이처럼 벼슬하지 않고 수행원도 없이 홀로 다니는 외로운 신세를 가장 잘 표현한 시어는 혼자서 말을 타고 간다는 의미의 '필마(匹馬)'이다.

061~063 | 지조와 충절 ①

128쪽

[키포인트 체크] 임금, 백이, 숙제, 대나무, 절개, 지조

1③ 2⑤ 3④ 4 중의적인 표현: 수양산, 의미: 백이와 숙제가 숨어 살던 산, 수양대군 5 화자의 절의(절개)를 방해하는 세력

- 1 (가)는 은나라의 충신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굳은 절의를 부각했고, (나)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고 해도 끝까지 자신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노래했으며, (다)는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들어 지조와 충절을 노래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지조와 충절을 담고 있는 절의가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다) 중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 없다.
 ② (가)~(다) 중에는 대상을 희화화한 작품이 없다.
 ④ (가)~(다) 중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작품이 없다.
 ⑤ 창의적 발상은 전통적인 지조의 상징인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 (가)에만 나타난다.

[지식+]

• 계유정난과 사육신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조선 제6대 임금이 되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자신의 세력을 규합한 다음 김종서, 황보인 등 반대파 중신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는데, 이를 계유정난이라 한다. 이후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 성삼문, 박팽년, 허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을 사육신(死六臣)이라 한다. 이들의 시조는 유교 이념인 굳은 절개와 충절을 주제로 하고 있다.

2 (가)는 백이와 숙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절개와 지조를 강조했고, <보기>는 백이와 숙제의 절개를 옹호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와 <보기>는 백이와 숙제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절개와 지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동일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와 <보기> 모두 백이숙제의 고사를 소재로 삼고 있다.

② <보기>는 백이와 숙제에 대한 성삼문의 비판을 반박하며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를 먹으려고 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고사리를 꺾으려고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옹호하고 있다.

③ <보기>의 '수양산(首陽山)'은 중국의 산 이름이지만, (가)의 '수양산(首陽山)'은 '수양 대군'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④ <보기>의 '물성(物性)'이 구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나)와 (다)는 모두 수양 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절의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 화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 ④는 적절하지 않다. (나)와 (다)는 화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표현 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나)에서는 '소나무', (다)에서는 '대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 유교적 충의와 화자의 절의를 표현했다.

③ (나)에는 상징과 가정, (다)에는 상징과 설의, 의인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됐다.

⑤ (나)와 (다)의 작가가 다름에도 유사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통해 '군신유의'라는 유교적 덕목이 당시 사대부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가)에서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숨어 지내던 산 이름이자 수양 대군을 지칭하는 중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5 (나)의 '백설'은 부당하게 왕(단종)을 몰아낸 수양 대군의 세력을 나타내고, (다)의 '눈' 역시 새 왕조에 협력하라는 압력과 회유를 나타낸다. 이를 절의를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와 연관 지으면 '백설'과 '눈'은 절의(절개)를 지키려는 화자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064~066 지조와 충절 ② 130쪽

키포인트 체크 충성, 황국화, 단종, 의중(의도), 충성심, 절개

1 ⑤ 2 ② 3 ④ 4 시련과 고난

1 (가)에서는 '가마귀'와 '야광명월', (나)에서는 '바람'과 '낙락장송', (다)에서는 '황국화'와 '도리'가 각각 대조적인 소재로 사용되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설의법은 (가)에만 사용되었다.

② 두 작품 모두 평시조로 4음보의 율격을 통해 안정된 리듬감을 보이고 있다.

③ (나)와 (다) 모두 색채어를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감정 이입은 (나)와 (다) 모두에서 찾을 수 없다.

2 (나)에서 '흐물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 므슴 흐리오.'라는 말은 '못다 핀 곳' 역시 '눈서리'로 인해 성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다. '못다 핀 곳'은 곧 수양 대군의 왕위 찬탈로 희생된 젊은 인재들을 의미하므로 수양 대

군의 왕위 찬탈에 따른 화를 모면했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한밤중에도 빛나는 밝은 달('야광명월')과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낙락장송')는 변함없는 충성을 상징한다.

③ (나)의 '바람'과 '눈서리'는 수양 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을 의미한다.

④ (가)와 (나)의 작가는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 사육신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⑤ (가)에서는 수양 대군이 왕위를 빼앗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밤'으로 표현했으며 (나)에서는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로 표현했다.

3 '도리'는 쉽게 변절하는 존재로서 간신을 상징하며, '황국화'와 대비된다.

☞오답 틀어보기 ① '풍상'은 '바람과 서리'를 의미하며 이는 '황국화'가 견뎌야 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② '황국화'는 '풍상이 셋거 친 날'에도 편다는 점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상징하며, 화자는 이를 보낸 임금의 뜻을 알겠다고 했으므로 '황국화'는 화자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③ 임금이 화자에게 보낸 '황국화'를 '옥당'으로 보냈으므로 '옥당'은 화자가 거처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⑤ '님의 뜻'은 '풍상이 셋거 친 날'에도 피는 '황국화'를 본받으라는 것, 즉 지조와 기품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①과 ①은 모두 시련이나 고난, 역경을 상징한다.

067~069 사대부의 연군 132쪽

키포인트 체크 이별, 촛불, 시냇물, 사랑, 그리움

1 ③ 2 ⑤ 3 (가)는 촛불에, (다)는 시냇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했다. 4 (다)와 <보기>에서 '물'은 모두 이별의 이미지이지만, (다)의 '물'은 임과 이별한 애절한 마음을 이입한 대상이고, <보기>의 '물'은 임과 이별한 슬픔의 정서를 반영한 대상이다.

1 (나)에서 대상을 의인화하여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구절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는 단종과 이별하는 마음을 촛농을 흘리며 타들어 가는 촛불에 비유한 작품으로, '속타는 줄 모로도다'에서 '속'은 '초의 심지'이면서 '화자의 애타는 마음'을 의미한다.

② (나)는 추상적인 개념인 '마음'을 구체적인 사물인 '별, 달'로 형상화하여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했다.

④, ⑤ (다)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깊이를 '천만 리'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형상화했고, '밤길'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했다.

2 (가)~(다)는 시조이고 <보기>는 가사에 해당한다. 두 갈래 모두 창작과 향유 계층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확대되므로 창작과 향유 계층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서 가사의 생명력이 약했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가사와 시조는 모두 4음보의 율격을 지니며 종결 형태가 유사하다는 갈래적 특징이 있다.

③ (가)~(다)는 시조로, 시조는 서정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에 적합한 갈래이다.

정답과 해설

④ <보기>는 가사로, 가사는 시조보다 길어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 3 (가)와 (다) 모두 감정 이입의 표현법을 사용했다. (가)에서는 촛불에, (다)에서는 시냇물에 시적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표현했다.
- 4 (다)는 시냇물이라는 자연물을 인격화하여 시적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한 시조이고, <보기>는 대동강 물에 화자의 눈물이 보태진다면 서서 애절한 이별의 정한을 표출한 한시이다.

070~072 자연을 누리는 삶 134쪽

키포인트 체크 자연, 낚시, 초가삼간, 풍요로움, 물아일체, 농촌

1② 2④ 3⑤ 4④ 5욕심이 없는(사심이 없는)

- 1 (가)~(다)는 모두 자연을 친숙한 존재로 여기며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⑤ (가)~(다) 모두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거나 자연을 현실 복귀를 위한 일시적 거처로 생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다)의 화자 모두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 ④ (가)에서만 달빛과 하나가 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 2 (나)의 '들'과 '청풍'은 '강산'과 함께 자연과 물아일체를 이루려는 화자의 세계관을 보여 주는 시어로 세속적인 풍요로움과는 관련이 없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종장의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로 미루어 화자가 낚시를 하는 것은 자연을 즐기기 위한 것이지 실제 고기를 낚으려는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빈 배'는 세속적 욕망을 버린 화자 자신과 동일시된다.
- ③ (나)에서 '초려 삼간'은 '세 칸짜리 초가'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
- ⑤ (다)에서 '술'은 '대초', '밤' 등과 어우러져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면서 전원생활에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을 나타낸다.
- 3 종장에서 근경(近景)을 제시하다가 종장에서 원경(遠景)을 제시하고 있다.
- 4 (다)에서는 풍요롭고 한가로운 농촌의 정경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즐기 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종장의 '아니 먹고 어이리.'에서 의문형을 활용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즐기 고자 하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대추가 붉고 밤이 떨어진다는 점, 벼 벨 그루터기에 게가 내려온다는 점으로 보아 가을임을 알 수 있다.
- ② '대추, 밤, 벼, 게, 술' 등의 전원적이고 향토적인 소재의 나열을 통해 가을 농촌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대초 불'에서 붉게 익은 통통한 대추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시각적('대초 불 붉건'), 청각적('뽏드르며'), 후각적('술 닉자')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풍요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5 욕심이 없는 삶의 자세를 '무심한 달빛'과 '빈 배'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073~075 사랑과 그리움 ① 136쪽

키포인트 체크 임, 뒷버들, 겨울밤, 기억, 사랑

1④ 2③ 3③ 4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

- 1 (가)~(다)와 같은 기녀 시조에서만 세련된 표현 기교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며, 조선 시대 시조 문학의 한 부류였던 기녀 시조가 조선 시대 시조 문학의 전형을 이룬다고 할 수는 없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기녀 시조는 사대부 시조와 달리 자신들의 애정과 이별의 문제를 진솔하게 노래함으로써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 ② 기녀 시조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시적 언어로 발전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 ③, ⑤ 기녀 시조는 사대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시조의 작자층을 확대하고 시조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2 (나)에서는 시간을 잘라 놓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시각적(구체화)으로 형상화했다. ③에서 '흥'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전나귀의 등에 실을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넙넙히 수성(愁聲)이로다.'에 감정 이입이 사용되었다.
- ② '대봉(전설상의 큰 새)'과 '곤륜산(중국 전설상의 높은 산)'에 과장법이 사용되었다.
- ④ 종장에 화자가 자문자답하는 문답법이 나타난다.
- ⑤ '매화'를 인격화하여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지식 +

• 김상용, <오동에 두는 빗발>

• 갈래: 평시조, 수심가

• 성격: 우국적

• 주제: 힘겹고 시름 많은 삶과 고뇌

• 감상: 인조반정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화자가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오동(梧桐)'과 '나'와 '비'가 수심(愁心)으로 일치되고 있다.

- 3 (다)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니, 임도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보기>에서는 옛날과 같은 물이 없듯이 임도 물처럼 떠나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 변화에서 시간이 갈수록 화자의 사랑이 더 깊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② <보기>와 (다)에서는 화자를 변하지 않는 '산'으로, 임을 흘러가는 '물'로 빗대어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보기>의 '가고 안이 오노미라.'에서 임이 떠났음을 알 수 있다.
- ⑤ (다)와 달리 <보기>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돌아오지 않는 임)을 안타까워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낸다.
- 4 임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 새잎이 나거든 자기로 여겨 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뒷버들'은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076~078 사랑과 그리움 ② 138쪽

키포인트 체크 이별, 자책, 그리워, 죽음

1② 2① 3③ 4이화우, 추풍낙엽 5잔을 잡아 권할 사람이 없는 것, 즉 황진이기가 세상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 1 (가)~(다)는 모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화자 곁에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2 (나)에서는 외로운 화자가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으며 이별한 임을 원망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 ☞오답 틀어보기 ② 중장에서 임도 '나'(화자)를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 ③ 중장의 '외로운 꿈'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추풍낙엽'이라는 말에서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 ⑤ 초장에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때 임의 손을 잡고 울며 이별하던 당시의 상황과 이를 회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3 도치로 보면 '제'가 지시하는 대상은 '임'이 되고, 행간 걸침으로 보면 '제'는 화자가 된다. 그리고 화자가 임을 붙잡지 않아서 임이 떠난 것이므로, 도치로 보든 행간 걸침으로 보든 이별의 책임은 화자에게 있다. 또한 행간 걸침으로 볼 경우 화자의 내적인 자존심과 임에 대한 연모의 감정 사이에서 비롯되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를 더욱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 4 '이화우', 즉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것과 '추풍낙엽', 즉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하강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별할 때 배꽃이 떨어진 것처럼 현재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5 화자는 잔을 잡아 권할 사람이 없는 것, 즉 황진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다.

079~080 풍류와 취락

140쪽

키포인트 체크 술, 성 권농, 꽃, 해소

1 ① 2 ② 3 ③ 4 이슬, 잔 후жат고야

- 1 (가)의 화자는 술을 풍류의 도구로, (나)의 화자는 술을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어 (가), (나)의 화자 모두에게 술은 긍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② (나)는 4음보의 정형성이 깨지고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진 사실시조이다.
 - ③ (가)에는 전원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나타나지만, (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와 (나)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나)에는 인생무상의 허무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⑤ (가)와 (나) 모두 농촌 생활의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 2 (가)는 우리말의 구사, 압축과 생략을 통한 서술, 생동감 있는 행동 묘사로 예술성 높은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어 냈으며, 평시조의 형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 3 ㉔는 성 권농의 집을 함께 찾아간 화자의 친구가 아니라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성 권농의 집에 술이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술친구를 찾아가기 위해 소를 억지로 깨워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 ② 성 권농의 집에 도착하여 성 권농이 집에 있는지를 물으며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④ 거적에 덮여 실려 가는 초라한 죽음과 비단 장막이 쳐진 상여를 타고 많은 사람이 울며 따라가는 화려한 죽음이 대조되고 있다.
- ⑤ ㉔의 '누른 흰 흰 돌 7는 비 굴근 눈 쇼소리 바람'은 모두 자연 현상이며, 이들을 열거하여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4 <보기 2>의 마지막 부분은 정철이 술로 갈등을 해소하면서 먼저 공인으로서의 임무를 다 한 다음(이 술로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한 후), 개인의 풍류(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를 기약하는 내용이다.

081 어부사_이현보

142쪽

키포인트 체크 고기잡이, 속세, 미련

- 1 ① 2 ⑤ 3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키 이시랴. 4 ㉔의 '달'은 '강호(자연)'라는 탈속적 공간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화자를 무욕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나, <보기>의 '달'은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1 이 작품의 화자인 어부는 실제 어부가 아니라 세속과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사는 가어옹(假漁翁)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②, ⑤ 이 작품은 고려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부가>를 개작한 것으로, 강호가도의 맥을 이었으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주었다.
 - ③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자연과 속세의 삶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상투적인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여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 2 (다)에서 화자는 장안(속세의 공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중장의 내용으로 보아 결국 화자가 선택한 곳은 강호 자연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만첩'은 화자가 살고 있는 청산과 속세('장안')가 그 만큼 거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홍진'은 번거로운 세상을 의미하므로 '월백'(강호에 비치는 달)과 대비되어 월백의 청정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 ③ '더욱 무심하애랴'에서 세속적 욕망 없이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④ 화자는 <제5수>의 중장에서 '고기잡이배에 누워서도 (나뭇잎을) 잊은 적이 없다(니즌 스키 이시랴)'라고 하며 세속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
 - 3 (다)에서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장안'의 '복궐'을 잊은 적이 없다는 내용을 통해 화자가 임금을 모시고 선정을 베풀겠다는 사대부 본인의 자세(현실에 대한 지향 의식)를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이 작품에서 '강호'는 '인세', '십장 홍진'과 대조되는 곳으로 탈속의 공간을 의미한다. 여기에 '월백'의 청정한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무심(無心)'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보기>의 '월백'은 '다정(多情)도 병(病)인 낭하여'와 연결되어 봄밤의 애상적인 정감을 부각하고 있다.

082 강호사시가_ 맹사성

144쪽

키포인트 체크 만족, 임금, 충의

1④ 2③ 3③ 4① 5 화자는 자연을 즐기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므로 조선 시대의 유교적 충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을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속세와 자연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보인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강호(江湖)에 ~이 드니', '이 몸이 ~하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등의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② 강 물결이 신의가 있다고 하며 강 물결에 인격을 부여한 <하사>의 '유신한 강파'에서 의인법을 찾을 수 있다.

③ <춘사>의 '금린어', <하사>의 '초당', <추사>의 '소정(작은 배)', <동사>의 '삿갓', '누역' 등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⑤ <춘사> ~ <동사>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계절마다 각 한 수씩 읊고 있다.

2 이 작품은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배경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ㄱ), 초장에서 '강호에 ~이 드니', 중장에서 '이 몸이 ~하음도 역군이 샀다'를 반복함으로 형식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ㄷ). 또한 각 수 중장에서 계절에 따른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다(ㄹ).

3 <추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자는 초장에서 가을의 풍요로움('고기마다 살져 있다')을 즐긴다. 그리고 중장에서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흐르는 대로 던져두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고기를 잡으려 한다가보다 살이 오른 물고기를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과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춘사>의 초장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다.

② <하사> 전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다.

④ 풍류를 즐기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점('역군은(亦君恩)이샀다'라는 표현의 반복)에서 태평성대에 유유자적하는 사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동사>의 중장과 종장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다.

4 ㉠ '미친 흥(興)은 봄을 맞이하여 주체할 수 없이 솟구치는 흥겨움과 생동감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5 '역군은(亦君恩)이샀다'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이 모두 임금의 은혜 때문이라는 유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표현이다.

1 <언지 1>에서는 자연 친화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언학 4>와 <언학 5>에서는 학문에 전념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가)~(다)를 소개하는 문구로는 ⑤가 적절하다.

2 '녀든 길'은 학문 도야의 길을 의미하지만, '년 디 댁'은 벼슬길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의미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천석고황'은 자연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시어이다.

③ 의문형 진술을 통해 오랜 세월 학문이 아닌 다른 곳(벼슬살이)에 마음을 두었음을 후회하면서 오로지 학문 수양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④, ⑤ 변하지 않는 '청산'과 밤낮없이 흐르는 '유수'를 보며 자신도 이들처럼 변함없이 푸르고('푸르르며') 그치지 않으며('긱지 아니논') 학문 수양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3 이 작품은 유학자로서의 자세가 드러나고, <보기>는 안빈낙도의 삶이 나타난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두 작품 모두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두 작품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두 작품 모두 물질적 여건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

⑤ 두 작품 모두 속세에서 자연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4 '어디, 년 디'는 입신양명의 길인 '벼슬길'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084 고산구곡가_ 이미

148쪽

키포인트 체크 은거, 학문, 예찬

1④ 2② 3④ 4 학문 수양(탐구)

1 (다)에서는 화암의 경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으며, 자신의 심성을 닦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고산 구곡담'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 것이다.

② (가)의 중장에서 주자의 삶이나 학문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중장에서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는 풍류와 운치를 느낄 수 있다.

⑤ (나)에는 아침('히 빗천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다)에는 늦봄('춘만')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2 시조는 고려 후기에 생겨난 양식으로 이미 정형화된 틀이 있으므로 시조의 작가가 시조의 형식까지 창안할 필요는 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①, ⑤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 표현의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고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시조의 3단 구성은 고전 시가 갈래 전반에서 확인되는 특성이므로 다른 시가의 구조를 파악할 때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④ 시조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시조 창작을 위해서는 먼저 형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3 ㉠은 안개가 '걸힌' 아침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묘사한 부분이다. ㉡은 '잡초가 무성한 들'에 안개가 걸히니 먼 곳 가까운 곳이 그림 같구

083 도산십이곡_ 이항

146쪽

키포인트 체크 벼슬, 후회(자책), 학문

1⑤ 2② 3③ 4 어디, 년 디

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은 고산에 있는 석담의 뛰어난 경치를 알려 주고 싶다는 뜻과 학문에 정진하는 즐거움을 알려 주고 싶다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은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을 밝힌 부분으로, 작품을 창작하게 된 궁극적인 동기에 해당한다.

③ ㉢에 나타난 '~곡은 어디미고 ~다.'라는 문장 구조는 <서곡>을 제의한 때 곡의 초장에 반복되는데, 이를 통해 형식적 통일성을 드러낸다.

⑤ ㉤은 학문의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를 염두에 둘 때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고산에서 진행되는 학문 탐구의 대열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4 이 작품이 '강호가도'를 표방하는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연스럽게 시조의 형식 속에 녹여 냈다는 점이다.

085 한거십팔곡_ 권호문 150쪽

키포인트 체크 현실, 은거, 해소

1 ⑤ 2 ③ 3 ④ 4 강호에서 노니는 삶, 성주를 섬기는 삶

1 화자는 <제4수>에서 출사와 강호 한정 사이에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으나, <제19수>에서 속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에서 화자가 세속적인 삶을 비판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화자는 출사와 강호 한정 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강호에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한다.

③ 화자는 갈등 끝에 속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한다. 이때 자연은 일시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물아일체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④ 이 작품에서 화자가 자아 성찰의 자세를 보이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2 <보기>의 화자는 운명론적 인생관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지를 복돋는 것으로 소위된 양반 계층으로서 겪는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화자의 갈등이 심화된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과 달리 <보기>에서는 사대부의 신분이지만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 가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② <보기>에서는 한자 어구를 사용하면서도 화자의 현실적 처지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④ <보기>와 달리 이 작품에서는 <제12수>에서 '제월', '십분청광'을 통해 달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이 작품의 <제8수>의 '빈천거를 호오리라.'와 <보기>의 '단사표음'에도 만족하며 '삼긴 티로 살'겠다는 표현에서 안빈낙도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3 ㉠~㉢과 ㉤은 모두 시적 화자가 주체이나, ㉤은 '굴머기'가 주체이다.

4 이 작품의 화자는 출사와 강호 한정 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

러한 갈등이 (가)에서 '강호에 노자하니'와 '성주를 섬기자하니'로 표현되었다.

4 | 가사

095 상춘곡_ 정극인 156쪽

키포인트 체크 봄, 자연, 물아일체

1 ③ 2 ③ 3 ② 4 한국 문학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난다.

1 (라)에 청자인 '이웃'이 등장하지만, 이는 화자의 갈등을 표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형식으로 봄의 흥취를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마지막 구절에서 '~ 이만흔들 잊지하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이 작품은 봄 풍경에 대한 묘사와 그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④ (사)에서 공명과 부귀를 주제로, 화자 자신을 객체로 설정하여 안빈낙도와 자연 친화적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⑤ 4음보의 연속체, 대구 표현('답청오란 ~ 조수호새.' 등)을 사용하여 봄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2 화자가 산봉우리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내용은 있으나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은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3 이 작품은 공간(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그 공간은 '수간모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봉두'와 같은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공간인 '봉두'에서 화자는 부귀공명에 대한 생각이 현재 삶에 대해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로 보아 공간의 확장을 탈속의 경지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은 확인할 수 없다.

4 <상춘곡>과 같은 고전 시가를 비롯하여, <보기>와 같은 현대 시에도 향상화된 자연 친화적 태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등장하는 한국 시가 문학의 전통적인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지식+

- 김관식, <거산호 1>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한정적, 풍자적
- 주제: 세속적 부귀공명을 초월한 삶에 대한 소망
- 감상: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노래한 김관식의 연작시 <거산호>의 첫 번째 시이다. 짧은 시행 속에 자연에 귀의하여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잔잔하게 전해진다.

096 만분가_ 조위 158쪽

키포인트 체크 여성, 억울함, 그리움

1 ⑤ 2 ③ 3 ③ 4 화자는 자신의 억울함(그리움)을 두견, 구름을 통해 임금에게 전하려 한다. 5 ⑤ 6 ⑤ 7 ③ 8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1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가)의 '천상 백옥경(白玉京), 자청전(紫淸殿), 삼청동리(三清洞裏), 자미궁(紫微宮)' 등은 모두 옥황상제 또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임(임금)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② (나)에서 화자는 자신을 '초객(楚客)'과 '가태부(賈太傅)'에 빗대고 있다.

③ 먼 길을 '구만 리'라고 하거나 험한 물결을 '천층랑'이라고 한 데서 드러난다.

④ 화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때 화자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C]는 화자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조정의 혼란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보기 ①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자신을, 모함으로 유배당하고 좌천되었던 '초객(굴원)'과 '가태부(가의)'에 빗대고 있다.

② '형강', 즉 유배지를 고향으로 십 년을 떠돌았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노나라의 흐린 술이 조나라의 서울인 한단과 관계없고, 진나라 사람이 취한 잔이 월나라 사람과 관계없다는 말로 자신이 무오사화와 관계없음을 드러내는 한편, 무오사화로 인해 '옥석', 즉 충신과 더러운 신하가 함께 화를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자신을 어버이를 그리는 새끼 새에 비유하여 가을바람에 위협에 처한 알들과 같이 자신이 위협에 처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3 ㉞ '바람'은 화자와 대상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보기 ① ㉠ '구만 리'는 화자와 대상 사이의 물리적 거리라기 보다는 심리적 거리라고 볼 수 있다.

② ㉡ '구름'은 화자가 임을 보기 위해 되고 싶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④ ㉢ '초객'은 초나라 시인 굴원으로 억울한 죽음의 대명사로 볼 수 있는데, 화자는 자신이 초객의 후신이라면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 '백구'는 화자가 벗이 되어 함께 놀고 싶은 대상이므로 화자가 교감하고 싶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4 (가)에서 화자는 유배당한 자신의 억울함과 한탄을 '두견'과 '구름'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임금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사물이 되어서라도 임금 곁으로 가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5 '구름 들 불근 밤'은 임과 헤어져 있어 슬픈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시간적 배경이고, '월중'은 임의 옷에 비친 그림자라도 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제시되는 시간적 배경이다. 즉, 이는 모두 이별한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배경으로,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보기 ① 공산의 해골같이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솟아오른다는 표현에서 상승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② '만장송'과 '매화'는 전통적으로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로,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깨끗한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바람 비 썩린 소리'와 '두어 소리'는 모두 소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님의 귀'에 들리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매화'의 '썩화'와 '가디'는 이별로 인한 한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의 정서를 형상화한 소재로 이해할 수 있다.

6 '침번(枕邊)의 이위눈'은 매화가 된 화자가 눈 속에서 혼자 피어 배갯머리에 시드는 듯하다는 것으로, 화자의 시름과 고통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 오답 풀이보기 ① 이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옥황상제(玉皇上帝)'에게 하소연하는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② '공산(空山) 축루(觸露)'는 빈 산의 해골, '외나모'는 홀로 자란 나무라는 뜻으로 임의 곁을 떠난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나타낸다.

③ '만장송(萬丈松)', '금강산(金剛山) 학(鶴)'은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임에게 전해 줄 분신이다.

④ '바람 비 썩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임의 귀에 들렸으면 하는 소리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7 ㉠에서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뜻을 알 사람이 있으면 오랫동안 교류하며 서로 공감하고 지내겠다고 하고 있다.

8 <보기>로 보아 '매화'는 어려움을 이겨 내고 뜻을 지키는 존재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매화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097 면양정가_ 송순

162쪽

키포인트 체크 면양정, 만족, 감사

1 ⑤ 2 ② 3 ② 4 쌍룡, 김 5 ③ 6 ⑤ 7 ⑤ 8 (가) 산람 (나) 녹양(황형)(다) 즈서리(라) 빙설 9 작가는 자신의 풍류 생활을 악양루에서 풍류를 즐기던 이태백의 풍류보다 낫다고 자부하며 그 자부심을 호탕 정화와 연결 짓고 있는데 이는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1 이 작품은 직유, 은유, 의인 등의 비유와 대구 및 반복,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2 (가)에서 '늪은 용이 선잠을 깨었다'는 것은 산봉우리의 형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상을 펼치기에 늦었다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은 '넓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의 뜻으로 넓고 길고 푸르고 흰 면양정 앞 시냇물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는 작가의 정서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②이다. ②는 정철의 <관동별곡>의 한 구절로 '날거든 뛰지 말고 서 있거든 솟아오르지나 말지'라며 ㉠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보기 ①은 정극인의 <상춘곡>, ③과 ④는 각각 정철의 <속미인곡>과 <관동별곡>, ⑤는 허난설헌의 <규원가>에 나오는 구절로 ㉠과는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어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다)에서는 면양정 앞 시냇물의 모습을 '쌍룡이 뒤흔는 듯'과 '긴 김(비단)이 가득 펼친 듯'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 (바)에서 자신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이 태평성대와 같다고 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고 싶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이 작품의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 몸이 이렇 굵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마), (바), (사)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나타나 있다.

6 (라)에서는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경궁요대(호화로운 궁전)'와 '옥해(옥 같은 바다) 은산(은 같은 산)'으로 비유하고 있을 뿐, 본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말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반어법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에서는 '흰색, 푸른색, 붉은색' 등의 색채어를 활용하여 면양정 주변의 봄 경치를 묘사하였다.

② (나)에서는 화자의 흥취를 '황앵(피꼬리)'에 이입하여 드러내었다.

③, ④ (다)에서는 단풍이 든 가을 산을 '금수(수를 놓은 비단)'에 비유하고, '어적도 흥을 계워 둘를 쫓라 브닌나.'에서 청각과 시각이 함께 어우러지게 표현하였다.

7 ㉠는 자연을 즐기는 시간도 모자라다는 뜻이며, ㉡는 화자가 자연을 한가롭게 즐기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둘을 연결하면 자연을 한가롭게 즐기는 시간도 모자라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8 비유적 표현을 제외하면 (가)는 봄으로 '산람(산아지랑이)', (나)는 여름으로 '녹양(푸른 버드나무)', '황앵(피꼬리)', (다)는 가을로 '즌서리(된서리)', (라)는 겨울로 '빙설'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말이다.

9 이 작품에 호연지취(浩然之趣)의 흔적은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그 결정적인 근거는 (사)에서 자신의 풍류 생활을 이태백의 그것보다 낫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이를 호탕 정회(浩蕩情懷)와 연결 지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098 관동별곡 _ 정철

166쪽

키포인트 체크 관동 팔경, 여정, 꿈

1 ③ 2 ④ 3 ③ 4 ② 5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 6 ④ 7 ① 8 ④ 9 화자는 산에서 바다로 이동하는데 산에서는 관리로서의 공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바다에서는 사적인 욕망에 따른 개인적 풍류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10 ⑤ 11 ⑤ 12 ③ 13 파도, 물결, 물보라(포말) 14 화자는 꿈에 신선을 만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세상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갈등을 해소한다.

1 이 작품은 관찰사로 부임한 후 관내를 순력하는 화자의 여정, 즉 공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하다.'와 '연추문(延秋門) 드리드라'로 볼 때 화자는 관찰사의 소임을 맡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죽림(竹林)의 누엇더니'로 볼 때 화자는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행장(行裝)을 다 썰티고'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을 시작하려 함을 알 수 있다.

③ 철원의 궁예 왕의 대궐 터에서 까마귀와 까치가 지지귀는 것을 보고 흥망성쇠를 생각하며 인생무상의 감회에 빠져들었다.

⑤ '영동(營中)이 무수(無事)하고 시절(時節)이 삼월(三月)'로 볼 때 관청 안이 한가해지고 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에는 관찰사로 부임해 가면서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에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인물로 유명한 중국의 금강유처럼 자신도 선정을 베풀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관찰사로 부임하기 전 생활 모습이다.

② 금강산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만폭동으로 가는 모습이다.

③ 자연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겼던 것으로 유명한 중국 송나라의 임포(‘서호 넷 주인’)에 자신을 비유하여 풍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4 ㉠ '은(銀) 7톤 무지계 옥(玉) 7톤 룡(龍)의 초리'는 폭포를 역동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명(東溟)을 박치는 듯, 북극(北極)을 괴왔는 듯' 역시 산봉우리를 역동적으로 드러내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놀거든 쫓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③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는 시냇물이 맑고 깨끗함을 대구와 대조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영농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도(數聲啼鳥)는 이별(離別)을 원(怨)하는 듯'은 감정 이입을 사용하여 금강산을 떠나가기 아쉬운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⑤ '공수(工垂)의 성녕인가, 귀부(鬼斧)로 다 ㄷ든가'는 대구를 사용하여 충석정을 만든 솜씨가 빼어남을 표현하고 있다.

5 (다)에서 화자는 금강대에서 학을 보자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 즉 서호에서 풍류를 즐기며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는 임포를 떠올리며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고 있다.

6 (다)에서 대구 표현에 의한 유사한 어구의 반복('실 7티 플터이서 보 7티 거리시니')이 나타날 뿐, (다)와 (마) 같은 단어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사람처럼 표현하였고, (라)는 시냇물('녕농 벽계')과 새('수성 데도')가 이별을 원망한다고 표현하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을 사용했다.

② (가)의 '부용을 고갯는 듯 ~ 북극을 괴왔는 듯', (바)의 '상운이 집피는 동, 녹농이 바피는 동'에 대구법이 쓰였다.

③ (나)의 '노룡'은 화룡소의 물 또는 화자 자신, (바)의 '일출'과 '녘구름'은 해와 지나가는 구름 또는 임금과 간신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중의법을 사용했다.

⑤ (다)의 '천심절벽(천 길이나 되는 절벽)'과 (바)의 '호발(아주 가느다란 털)을 헤리로다.'에 과장법이 쓰였다.

7 ㉠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에서 노국이 좁다고 말한 것은 공자의 경험이므로 세상의 넓음을 경험한 화자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 '어와 더 디워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는 천하를 줌다고 말한 공자의 호연지기를 드러낸 말이므로 공자의 높은 경지를 함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런는다.'는 흡족한 비를 내려 바람에 있는 시든 풀을 다 살리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화자의 선정의 포부와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④ ㉢ '마하연(磨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어'는 거처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단어의 연결을 돕는 조사를 생략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 '남여 완보(藍輿緩步)하야 산영누(山映樓)의 올라하니'는 화자가 발걸음을 천천히 하여 산영루에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8 ㉣는 화자가 삼일포에 3일 동안 머물렀던 신라의 화랑들을 생각하며 추모의 정을 느끼는 내용이다.

④는 곱힐 줄 모르는 절의를, ⑥는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인재의 출현에 대한 소망을, ③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는 임금에 대한 격정과 충정을 자연물에 빗댄 표현이다.

9 이 작품의 공간은 크게 금강산과 동해, 즉 산과 바다로 구별된다. 산에서의 화자는 주로 우국충정과 선정의 의지 등 관리로서의 책임감을 표현한 반면에, 바다로 나오게 되면 신선을 쫓으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주로 드러내고 있다.

10 이 작품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 광경을 유람한 경험을 노래한 기행 가사로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① 시간적 배경이 (나)에서는 낮이었다가 (다)에서는 밤으로 바뀌고 있다.

②, ④ (다)까지는 현실이지만 (라)에서 꿈으로 전환되며, 화자가 꿈을 꾸는 과정에서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며 지상과 천상이 이어지고 있다.

③ (가)에서는 '경포', (나)에서는 '죽서루'와 '망양정'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11 ㉠의 '명월'은 관리로서의 포부가 아닌 임금의 은혜를 비유한 말이다.

① '우개지물'은 신선이 타는 수레로, 화자 자신을 신선에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 물줄기를 임금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는 말로 화자의 연군지정을 드러냈다.

③, ④ 좋은 것을 백성들과 함께하려는 화자의 애민 정신과 선정의 포부가 드러난 부분이다.

12 [A]는 관찰사로서의 의무와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본연의 욕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다.

13 [B]는 화자가 망양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면서 과도를 묘사한 부분이다. 따라서 '고래'는 성난 과도를, '은산'은 과도의 물결, '빅설'은 물보라(포말)를 의미한다.

14 화자는 관리로서의 책임과 개인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라)에서 꿈에 신선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서 '이 술 가져다가~또 혼 잔 후갓고야.'에 나타나듯 먼저 관리로서의 책임을 다한 다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겠다며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키포인트 체크 여성, 계절, 그리움

1 ⑤ 2 ④ 3 ① 4 입을 그리워하는 여성이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면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5 ① 6 ② 7 ② 8 임금님께서(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1 (가)에 '하늘(하늘)'이 나타나지만, 이는 입과 화자의 인연이 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화자가 초월적 존재에게 입과 함께 지내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① 가사 문학의 특징이다.

② (나)의 '동풍이 건듯 부러 ~ 두세 가지 피여세라.'에 나타난다.

③ 이 작품은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이별한 입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④ (가)의 '엇그제 님을 뵈서 ~ 하계에 노려오니,'에서 자신의 상황을 신선이 사는 궁전에 살다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은 '더위와 서늘함'을 뜻하는 말로, 계절의 변화 또는 세월의 흐름을 나타낸다. 따라서 당과 싸움에서 승리한 세력을 비유하는 말로 볼 수 없다.

3 ㉡ '미화(梅花)'는 시적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소재로, 화자는 이른 봄 추위 속에 핀 매화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입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화자는 입이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대신하여 매화를 보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보기>에서는 '뿔버들'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4 버림받은 신하가 임금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에서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는 이유는, 임금과 신하 관계를 보편적인 남녀 관계로 바꾸어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 작품의 본사에서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과 생활의 변화를 그리면서 그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이 작품에는 특별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일관되게 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화자의 정서는 변하지 않는다.

③ 작품의 서사에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과거와 현재가 서로 엇갈리는 장면은 없으므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작품은 계절에 따른 자연과 생활 모습의 변화를 보여 줄 뿐,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는 찾아볼 수 없다.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진행은 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6 <보기>의 화자[B]는 마지막 구절에서 '돌려 들으시어 나를 사랑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① 이 작품의 화자[A]가 <보기>의 화자[B]에 비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③ 이 작품에서 화자[A]는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 모두 자신에 대한 입의 사랑을 확신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⑤ [A]와 [B] 모두 체념적인 자세가 아닌 입에 대한 일편단심과 그리움

을 드러낸다.

- 7 (나)의 '눈물(눈물)'은 밤하늘에 뜬 별을 보고 임인가 반가워하면서 기쁨에 흘리는 눈물이다. 여기에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임금에 대한 원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8 '심산궁곡'은 온 나라 방방곡곡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소망이 담긴 표현이다.

100 속미인곡 _ 정철 176쪽

키포인트 체크 여인, 대화, 사랑

1 ㉠ 2 ㉡ 3 ㉢ 4 임이 잘 지내는지(건강한지) 걱정하고 있다. 5 ㉤
 6 ㉦ 7 ㉧ 8 ㉨ 9 '낙월'은 멀리서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지만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실 만큼 오랫동안 임 가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월'이 임에 대한 사랑을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면, '구준비'는 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 1 (나), (라)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갈등하고 있으며, 이 갈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의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② 중심인물인 '을녀'와 보조 인물인 '갑녀'의 대화로 내용이 전개된다.
 ③ 이 작품은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④ 임과 이별한 여인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2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체념하고 있다. 따라서 임과의 즐거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나), (라)의 화자인 [A]는 이별이 슬프지만 겉으로는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애이불비(哀而不悲)의 태도를 보이는 전통적인 여인상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보기>의 화자 [B]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면서 임에 대한 원망을 보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보기>의 화자 [B]는 임을 배에 타워 건너편에 내려준 사공을 원망하는 형식으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② <보기>의 화자 [B]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기보다 사공에 대한 원망을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라)에서 화자 [A]는 '춘하고열은 엇디허야 디내시며 추일동친은 누라서 뵈섯는고.'라면서 임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A]는 임의 부재에서 오는 고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반해 [B]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에서 임의 부재에서 오는 고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라)에서 화자는 연약한 임이 더위와 추위는 잘 이겨 내는지, 식사는 잘 하고, 잠은 잘 자는지 염려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추운 겨울에 임이 어떻게 지내는지 염려하면서 따뜻한 봄기운을 임에게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 5 (라)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퍼하는 화자를 위로하는 내용이며, 반어적인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틀어보기 ②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화자는 산으로 강으로 다니고 있다.
 ③ 풋잠이 잠깐 든 화자는 꿈에서 임을 만나게 된다.
 ④ 죽어 없어져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표현으로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표현하고 있다.

- 6 이 작품에서 갑녀는 우선 을녀의 하소연을 끌어내어 들어 주고 공감하며 을녀를 위로해 줄 뿐 아니라 화제를 전환하거나 매듭짓는 기능을 한다. 특히 (라)에서는 작품을 극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종결짓는 것과 동시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작가의 궁극적인 목소리를 '구준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을녀의 행위를 평가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7 (가)에서 화자는 서둘러 '높은 산(‘눅픈 뵈’)에 올라 ‘임(‘일월)’을 보려 하지만 ‘장애물(‘구름’과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눅픈 뵈’는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틀어보기 ② ‘구름’과 ‘안개’는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③ ‘뱃길(‘비 길)’은 ‘눅픈 뵈’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④ ‘빈 배(‘빈 비)’는 화자의 허무함과 외로움이 반영된 것이다.
 ⑤ ‘꿈’에서라도 임을 만난 것은 그만큼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임과의 거리를 단축해 보려는 화자의 소망이 꿈처럼 허무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 8 (나)에서 화자는 꿈에서 임을 만나 마음속에 맺힌 사연을 마음껏 말하려고 하나 눈물만 흘리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 9 '낙월'은 멀리서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을녀의 슬픈 눈물을 함축하고 있는 '구준비'는 오랫동안 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임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드러낸다.

101 규원가 _ 허난설헌 180쪽

키포인트 체크 독수공방, 남편, 자조(한탄)

1 ㉠ 2 ㉡ 3 ㉢ 4 당시 조선의 여인들은 행실이 좋지 않은 남편을 만나도 자책하며 살아야 했다. / 당시 조선의 여인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것을 평생의 원으로 생각하였다. 등 5 ㉤ 6 ㉦ 7 ㉧ 8 ㉨

- 1 (나)에서 화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인연을 굶쳐신들 싱각이야 업습소냐. 얼굴을 못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러문'과 같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화자는 자신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임을 원망하고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늙어 버린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만, 이를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화자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외로움과 한을 달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는 드러내지 않는다.

⑤ 화자는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즉 어린 시절의 즐겁던 일을 생각하니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으므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통해 힘겨운 현실을 이겨 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은 입과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 부분으로, 남편과의 인연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보기>에서 '물(물)'은 울면서 밤길을 가는 것으로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실술'에 자신의 슬픈 감정을 이입하고 있으므로 '실술'이 <보기>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연광(年光)'과 '봄바람'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③, ④ '자취눈'과 '구준비'는 화자의 쓸쓸함과 슬픔을 심화하는 대상으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4 <보기>에서는 허난설헌이 감성립의 아내가 된 것을 한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좋은 남편을 만나 사는 것을 평생 원으로 생각하던 화자가 '장안 유희 경박자'를 만나 '면목가중'의 모습이 된 것을 한탄하고 자책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5 이 작품에서는 대상(임, 소재, 상황 등)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대상을 풍자하는 내용도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② (나)에서 '디는 님', '우는 즘생', '초로', '모운', '새소리' 등에 빗대어 화자의 원망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의 '소상 아우의 댛소리 섯도는 듯, 화표 천년의 별학이 우니는 듯'에서 거문고 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가)의 '댛소리와 (나)의 '새소리'에 나타난다.

⑤ (나)의 '천상의 견우직녀 ~ 소식조차 쓰켓는고.'에 나타난다.

6 <보기>는 화자가 떠나가는 입을 잡아 두려다가 보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작품은 소식 없는 입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자의 상황인 <보기>에서 이 작품으로 변했다면, 화자는 '입을 보내 주었는데 어찌하여 소식조차 없을까?'라고 한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보내 주길 잘한 것 같다.'는 이 작품의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이 작품의 화자는 일관되게 입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내가 입을 버렸는데'라는 내용은 <보기>나 이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이 작품의 화자는 지금도 입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왜 그렇게 애달파했을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7 (나)의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칠월 칠석 일년 일도 실기치 아니거든.'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만나는 견우직녀와 입과 소식조차 끊긴 화자의 상황을 대비하여 입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녹기금'은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를 환기하고 부각하여 전달한다.

② '부용장'은 입의 부재를 느끼는 적막한 공간이다.

③ 화자는 잠이 들어 '꿈'에서나마 입을 만나고자 한다.

⑤ '약수'는 입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다.

8 <보기>에서 입과 나 사이에 있는 '고기'는 거대한 장애물로 이 작품에서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방해하는 '은하수'와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

5 한시

102 만보_이항

184쪽

키포인트 체크 가을 풍경, 대조, 학문적

1 ㉠ 2 ㉡ 3 ㉢ 4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1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인 가을은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계절로 결실의 시기이다. 이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즉, 이 작품은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수미 상관'에 대한 설명으로, 이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작품에는 사색과 성찰의 어조가 드러나며 부분적으로 영탄의 어조도 나타나지만, 과거를 회상하는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작품에는 시어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가을로, 계절의 흐름이나 이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묘사한 부분은 없다.

2 '구름 낀 고개'는 화자가 학문적 성취가 미진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라본 자연물일 뿐 이 작품과 <보기>에서 '구름 낀 고개'를 학문적 성취를 방해하는 외부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어지러이 '뿔아 놓은 책들'은 많은 책을 보았다는 의미므로 학문을 수양하는 모습과 연결할 수 있다.

③ '해오라기'의 '흰'한 모습이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는 것은 화자와는 다르게 해오라기가 제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작가가 도달하려는 학문적 경지와 연결할 수 있다.

④ '숙원'은 학문적 숙원이므로 '오래도록'을 작가가 학문 수양에 힘쓴 시간과 연결할 수 있다.

⑤ 오랜 숙원이 풀리지 않고 거문고만 타고 있으므로, 이를 학문적 성취가 미진한 작가의 고뇌와 연결할 수 있다.

3 ㉠은 시간적 배경, ㉡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 ㉠은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 즉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고, ㉡은 결실의 시간으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고 있다.

4 <보기>는 운동주의 <자화상>으로, 일제 강점기 때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자아 성찰을 의미하며,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과 <보기>의 시적 화자는 모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지식+

• 운동주, <자화상>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성찰적, 고백적

• 주제: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愛憎)

· 감상: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우물에 비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우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화자의 이러한 부끄러움은 암담했던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로 볼 수 있다.

103~104 무어벌·봄비 186쪽

키포인트 체크 소녀(아가씨), 여인, 살구꽃, 슬퍼함, 안타까움

1 ① 2 ③ 3 ② 4 수줍음 많은 아가씨가 말 한마디 못 하고 입을 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5 객관적 상관물(자연물)을 통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표현했다.

- (가)에서는 '배꽃 사이 달'이, (나)에서는 '봄비'와 '찬 바람', 떨어지는 '살구꽃'이 작품의 상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② (가)와 (나)에서 세속적 이익에 대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 ③ (가)와 (나)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을 뿐,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나)에서 '봄비, 찬 바람, 살구꽃'의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가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자연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 <보기>는 허난설헌의 <규원가>로, 주요 독자층은 규방에 갇혀 한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여성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작가와 독자가 모두 실제 삶을 통해 작품과 유사한 체험을 하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의 주요 독자층은 한문 서정시를 읽을 수 있는 교양을 갖춘 이들, 특히 작가와 독자 측면에서 시의 내용에 관념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류층 남성과 일부 여성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화자는 '봄비'에 떨어지는 살구꽃을 바라보면서 허망하게 지나가는 자신의 젊은 날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봄비'가 '살구꽃'을 피어나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나)는 5인 절구의 한시로, '기 - 승 - 전 - 결'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 ③ 장막 속에 스며든 '찬 바람'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 ④ '뜬시름'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규방 여인의 한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⑤ '뜬시름' 못내 이겨 병풍 기대니'에서 화자가 '뜬시름'을 이기지 못하고 병풍에 의지함을 알 수 있다.
- (가)의 제목 <무어벌(無語別)>은 '말없이 이별하다', '말 못 하고 헤어지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채 이별을 맞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아가씨의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 (나)의 절구에서는 화자의 고독하고 외로운 심사를 '살구꽃'에 의탁하여 표현했다. 곱게 피었던 살구꽃이 봄비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 봄날이 지나가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는 젊음, 혹은 여인의 아름다움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IV. 조선 후기

1 | 시조

109~111 우국과 절개 196쪽

키포인트 체크 국화, 병자호란, 선비, 꽃, 풀, 절개, 비분강개

1 ③ 2 ⑤ 3 ③ 4 삼월 동풍 5 청나라에 대한 치욕을 되갚고자 한다.

- (가)는 '국화', (나)는 '삼각산'과 '한강수', (다)는 '만산 홍록'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색채어는 (다)의 '청강', '홍록'에서만 나타난다.
 - ② (가)~(다) 모두 유사한 어구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명령적 어조는 (다)의 '두어라'에만 나타난다.
 - ⑤ 도치법은 (나)의 초장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에만 쓰였다.
- (가)는 '삼월 동풍'과 '낙목한천', <보기>는 '황국화'와 '도리(복숭아꽃과 자두꽃)'의 대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이를 통해 국화의 절개와 지조를 강조하고 있을 뿐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고발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낙목한천'과 '풍상'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나타난다.
 - ② 두 작품 모두 '국화'에 지조와 절개의 정신세계를 빗대고 있다.
 - ③ (가)는 '국화야, 너뿐인가 호노라.'라고 하며 국화에게 말을 건네고 있고, <보기>는 '도리(桃李)야, 꽃이온 양 마라'라고 하며 복숭아꽃과 자두꽃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오상고절은 너뿐'이라고 하여 국화만이 높은 절개를 지닌 존재라고 했고, <보기>에서는 '도리'와 비교하여 황국화가 지조가 있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 ㉠ '청강'은 '淸江(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靑江(푸른 물)'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청나라 혹은 청나라의 득세를 의미하는 부정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은 겨울의 춥고 쓸쓸한 풍경 또는 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 ② ㉡은 북한산의 옛 이름으로, 대유법이 사용되어 조국을 나타낸다.
 - ④ ㉢은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지는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전쟁에 패배하여 볼모로 끌려가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청나라 사람들의 비웃음을 꽃과 풀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 ㉣은 병자호란을 겪고 왕자들이 청나라에 볼모로 붙잡혀 가는 어두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가리킨다. 이와 대조적 의미를 지닌 것은 (가)의 '삼월 동풍'으로 이는 '평온하고 순탄한 시절'을 상징한다.
- <보기>의 <박씨전>에서는 계화를 통해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청나라 세력이 오래 가지 않고 곧 꺾일 것이라고 하여 청나라로 인한 치욕을 씻을 날이 올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즉, ㉤와 <보기>에 모두 청나라에 당한 민족의 치욕을 되갚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112~113 사대부의 시름과 그 승화 198쪽

키포인트 체크 시련, 비, 바람, 지조, 낙관적, 옹호

1 ⑤ 2 ⑤ 3 ④ 4 ①에는 비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화자의 여유 있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1 (나)는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먹으려고 캔 것이 아니라 고사리의 굵은 속성이 애달과 캔 것이라고 하여 백이숙제의 절의(絶義)를 옹호하고 한층 높여 이상화하고 있다. 더불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세상 인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있을 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비와 바람이라는 대상, 즉 시련을 주는 존재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을 뿐 대상에서 받은 인상을 감각적으로 그려 낸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긍정적인 태도로 ‘풍우’에 대처하며 삶에 대한 달관적·낙관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이숙제의 행위와 절의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2 (가)의 화자는 천리만리 길에서 ‘풍우’라는 시련을 만났음에도 ‘황혼’이 머니 쉬어 간들 어떠하겠느냐고 하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준다. 따라서 화자가 ‘황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보기>의 ‘나른 히’는 남은 하루 또는 남은 인생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화자는 이 또한 풍류적·낙천적으로 즐기고자 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② 두 작품 모두 풍류를 누리는 한가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③ (가)는 ‘쉬어 간들 어떠러’에서 삶의 역경에 대한 달관적 태도를 찾을 수 있고, <보기>는 ‘전원에 나른 ~ 모도 싶고’에서 전원의 흥취를 즐기는 태도를 찾을 수 있다.

④ (가)에서 ‘풍우’는 천리만리 길을 가기 힘들게 만드는 시련을 의미하고, <보기>에서 ‘계산’, 즉 계곡을 낀 산은 화자가 흥겨워하며 돌아오는 공간으로 흥취를 즐기는 자연과 관련된다.

지식 +

• 선조들의 ‘풍류’의 세계

문인들의 풍류 생활은 단순히 즐기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나 문장의 형태로 전 달되면서 문학적으로 축적되었고, 풍류 생활을 이루는 주된 요소 중 하나인 음악은 뚜렷한 음악 문화와 연결되었다. 이 밖에도 풍류는 그림의 주요 소재가 되기도 했다. 풍류를 읊은 문학 작품으로는 <고려사> 악지에 전하는 <저허동>, <한림별곡>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의 수많은 시조를 들 수 있다. 시와 글(책 또는 글씨), 술과 음악으로 채워지는 풍류는 그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유형을 보여 준다.

3 (나)의 화자는 ‘이제’를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보는 보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의 화자가 보이는 ‘이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드러낼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에서 화자는 고사리를 캔 행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고사리를 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③ <보기>에서는 ‘이제’가 캔 고사리가 주나라의 땅에서 나는 풀이었음을 들어 이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이제’가 추구했던 절개와 지조의 가치에 주목하여 그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⑤ (나)와 <보기> 모두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4 ①은 비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시련의 상황에도 낙관적이고 달관적인 자세를 보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으로, 화자의 여유 있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114~116 전원생활의 즐거움 200쪽

키포인트 체크 농부, 자연, 꾀꼬리, 도시락, 술, 나무, 가족, 노동, 만족, 자연

1 ② 2 ② 3 ④ 4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1 (가)에는 ‘무림산중’에 들어가거나 ‘새암(샘)’을 찾아가는 등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 있지만, (나)에는 달빛 아래 낙엽에 앉아 술과 안주를 즐기려는 모습이 나타날 뿐 공간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가)는 농사일을 하는 농부의 하루 일과를 묘사한 작품이다.

③ (다)의 화자는 낮잠을 자다가 꾀꼬리 우는 소리에 깨어 바라본 가족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④ (가)는 농부의 바쁜 일과를, (다)는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⑤ (가)와 (다)는 사실시조로, 시조의 정형적 양식에서 벗어나 중장이 길어지고 초장과 중장이 정해진 음수율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파격이 나타난다.

2 (가)와 <보기>에는 모두 농민의 삶이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 농부의 하루 일과가 나타나 있고, <보기>에서도 농사일을 하느라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는 농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보기>는 평시조로 일정한 글자 수를 지키고 있는데 비해 (가)는 사실시조로 중장이 길게 늘어나 있다.

③ <보기>에서 ‘소남네(손남네, 나그네)’가 화자의 휘파람 소리에 반응하느라 걸음을 멈추어 소리를 듣고 있다.

④ (가)에서는 ‘꽃노래, 긴 소리 저른 소리’, <보기>에서는 ‘파람(휘파람)’에서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⑤ (가)의 화자는 농사일을 하는 중에도 점심을 먹은 후 담배를 피우며 꽃노래를 부르는 등 여유를 즐기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땀 흘려 일하는 중에도 청풍을 맞으면서 휘파람을 부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3 (다)에서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희화화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다)는 중장이 길어진 형태의 사실시조에 해당한다.

② 평범한 가정의 평화로운 일상을 나열하여 묘사하고 있다.

③ 화자가 낮잠을 자다가 꾀꼬리 우는 소리에 깰다고 밝히고 있다.

⑤ 낮잠을 자던 화자가 꾀꼬리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는 모습에서 한가로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으며,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4 화자가 ‘집 방식’을 거절한 이유는 낙엽에 앉으면 되기 때문이고, ‘술불’을 거절한 이유는 어제 젖던 밝은 달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다. 화자는 ‘집 방식, 술불’과 같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낙엽, 달’과 같은 자연적인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17~119 자연에 대한 사랑 ① 202쪽

키포인트 체크 자연, 금강산, 백구, 일부, 물아일체, 순응, 겨울

1 ⑤ 2 ② 3 리듬감이 4 리듬감을 형성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가)~(다) 모두 자연 속에서 살아가거나(가), (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가), (다)하는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날 뿐, 자연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가)는 '백구(갈매기)와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② (나)의 각 장마다 반복되는 '절로(절로)'는 '제 스스로, 또는 인공의 힘을 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의 의미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 ③ (다)는 각 장을 '~이로다', '~어라', '하노라' 등의 감탄하는 말투로 끝맺으며 금강산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거나, 자연을 예찬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서 물아일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유사한 것은 ②로, ② 역시 자연과 더불어 즐기는 물아일체의 경지가 나타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훈민가>의 제3수로 근면과 상부상조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⑤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체인 '기러기'를 걱정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식 +

• 작자 미상, <기러기 떼 많이>

- 갈래: 사설시조
- 주제: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기러기에 대한 걱정
- 감상: 이 작품은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체인 기러기에 대한 걱정을 화자와 포수의 대화 형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보기>의 ㉠에서 '원래의 간격'이란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리듬감을 말한다. 이를 시조 읽기에 적용하면, 일정한 간격이란 '옥이|로|다'와 같이 한 호흡에 4글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말하며,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는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3글자로 표현된 '힐|성|루'와 같은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서 급한 느낌이 드는 부분은 한 음보에 7글자가 배치된 '세|부|진|화|부|득|은'이며, 다시 원래의 간격인 4글자를 회복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바로 '금|강|산|인가'이다.
 - (나)에서 '절로(절로)'는 각 장마다 위치나 형태를 달리하여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120~121 자연에 대한 사랑 ② 204쪽

키포인트 체크 빈천, 세속, 덤, 자연, 벗

1 ② 2 ⑤ 3 ④ 4 권문 5 자연은누구든지향유할수있는대상이다.

- (가)와 (나)는 모두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삶'을 주제로 하고 있다.
- (가)의 화자는 자연이 힘센 이가 다루는 대상, 즉 세속적 가치로 평가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빈천을 팔고자 하지만 그 대가로 자연을 지불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연을 세속적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나)의 초장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빈천을 팔고자 간 곳(㉠)은 권문(權門)이다. 종장에서는 '강산과 풍월을 달나 흐니'라고 했으므로 권문이 요구한 것은 '강산, 풍월', 즉 자연(自然)임을 알 수 있다.
- (가)의 '힘센 이'는 권력을 가진 자, 세속에서 가진 것이 많은 자를 의미한다. (나)의 시어 중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은 '권문(權門)'으로, '권문'이란 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을 의미한다.
- (가)의 종장에는 자연을 즐기고자 할 때 이를 금할 수 있는 자는 없으며 누구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다는 자연의 속성이 제시되어 있다.

122~124 임을 향한 그리움 206쪽

키포인트 체크 여인, 구름, 고개, 귀뚜라미, 진술, 적극적

1 ③ 2 ② 3 ③ 4 고개

- (가)~(다)는 모두 화자가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임이 화자와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화자는 임과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다)에서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귀뚜라미에게 이입하여 자신을 잊은 임의 잠을 깨우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체념적 어조를 보이지는 않는다. (나)는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체념적 어조와는 거리가 멀다.
 - ④ (가)~(다) 중 꿈이 등장하는 것은 (다)뿐이다. 하지만 (다)에서도 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상사몽이 되는 것이지 꿈이 임과 만나는 공간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 ⑤ (가)~(다) 중 색채 이미지를 보이는 것은 (가)뿐이다. (가)의 경우 벽사창과 벽오동에서 푸른색의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작품 전체에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 (가)와 <보기> 모두 화자가 대상(구름)을 임으로 착각하여 밖으로 나간 모습이 나타나는데, 두 화자는 모두 그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따라서 희화화의 대상은 (가)와 <보기> 모두 화자로 볼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가)와 <보기>는 모두 초장에서 임이 온 것으로 착각해 밖으로 나가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한 뒤 종장에서 착각한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는 화자가 본 달밤의 모습과 봉황새 같은 구름의 모양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데 비해 <보기>에는 상황이 간결하게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보기> 모두 구름(그림자)을 임으로 착각하여 나갔다가 착각을 깨닫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화자의 착각이 시적 상황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가)와 <보기> 모두 '창밖이 어둡어려하여 임이 온 줄 알고 나갈. → 임인 줄 알았던 것의 정체는 구름(그림자)였음. → 밤이 아니었으면 남에게 우스운 모습을 보일 뻔함.'이라는 시상 전개틀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시상 전개와 주제가 유사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들이 창작되던 시기에 이와 유사한 유형의 시조들이 유행처럼 창작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은 화자가 임으로 착각한 대상이고, ㉡은 화자의 상사몽이 변하여 된 것으로 화자의 소망인 임과의 만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상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은 구름 그림자이므로 시간적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은 화자의 분신이므로 공간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

② ㉠은 화자에게 착각을 일으켰을 뿐 절망을 준 것은 아니며 ㉡은 화자에게 희망을 준다기보다는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화자의 착각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임과 만나지 못한 상황과 연결되며, ㉡ 또한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 대신 임에게 마음을 전달해주는 존재이다. 즉, ㉠, ㉡ 모두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과 관련될 뿐 화자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⑤ ㉡은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므로 화자의 사랑을 임에게 전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화자가 임으로 착각한 대상이므로 화자의 사랑을 임에게 전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나)에서 '고개'는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로, 화자는 임과의 사랑을 위해 이 높고 험준한 고개를 쉬지 않고 넘을 수 있다고 하여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적극적인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5~126 입을 기다리는 마음 ①

208쪽

키포인트 체크 착각, 상상, 원망

1 ㉡ 2 ㉢ 3 ㉣ 4 연쇄법, 여러 사물을 연속해서 이어지게 나열함으로써 임을 오지 못하게 하는 제약들을 구체적으로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1 (가)의 '보선 버서 품에 품고 ~ 천방지방 지방천방', (나)의 '무쇠로 성을 쓰고 ~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너코'에 대구법이 나타난다(a), 또한 (가)의 중장에 나타난 화자의 행동과 (나)의 중장에 나타난 임을 오지 못하게 하는 사물을 각각 과장되게 표현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d).

☞오답 틀어보기 b. (가), (나) 모두 의도와는 반대로 말한 내용이 없다.

c.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나)에만 해당한다.

2 (가)의 화자는 임이 오겠다는 소식에 일찍 문밖에 나갔다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나가고 있다. 따라서 임과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가)에는 임이 오기도 전에 일찍 대문 밖에 나가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초조한 모습,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허둥지둥 급하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④, ⑤ (나)의 화자는 중장과 종장에서 가상의 상황 설정과 직설적인 질문을 통해 임에 대한 원망과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가)에서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뿐 화자가 임에게 속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임이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녁밥을 일찍 먹고 대문 밖으로 나가 건너편 산을 바라보며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②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주추리 삼대를 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③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않고 임을 맞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⑤ ㉡에서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했다는 실상을 확인하고 밤이었으니 다행이지 만약 낮이었다면 남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웃었을 것이라며 자조 섞인 어조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4 [A]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무쇠성, 집, 뒤주, 궤 등 여러 사물을 상상하여 나열함으로써 임이 화자에게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및 제약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있다.

127~128 입을 기다리는 마음 ②

210쪽

키포인트 체크 독수공방, 개, 귀뚜라미

1 ㉡ 2 ㉢ 3 ㉣ 4 '귀뚜라미'는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화자는 '귀뚜라미'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1 (가)에는 가을밤에 독수공방하며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이, (나)에는 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어 (가)와 (나) 모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일상생활 속의 흔한 동물인 '개'를 대상으로 삼아 회화화하고 있는 (나)에만 해당한다.

③ (나)에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지만, (가)와 (나) 모두 '헌신과 원망'이라는 이중적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④ 화자의 심정을 '귀뚜라미'에 이입하여 독수공방하는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가)에만 해당한다.

⑤ 두 작품 모두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2 (가)에서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가 겨우 잠이 든다. 그런데 '귀뚜라미'가 그 열린 잠을 '슬뜨리도(㉠)' 깨워 다시 그리움을 부채질하므로 화자는 '귀뚜라미'를 원망한다. 또한 종장에서 화자는 '귀뚜라미'에 대한 이러한 원망의 마음을 털어 내기 위해 '두어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원망하는 마음을 털어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틀어보기 ②, ⑤ '귀뚜라미'를 연민하거나 동정하는 심정은 초장의 '어엿부다'에 드러난다. 그러나 ㉡에는 뉘우침이나 외로움을 이겨 내려는 정서가 담겨 있지 않다.

3 (나)에서 '개'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전가한 대상이다. <보기>의 화자는 임이 떠나는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임이 아니라 임이 떠날 수 있도록 배를 제공하는 사공(㉢)에게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때 '사공'은 (나)의 '개'와 시적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㉔는 입과 이별한 공간으로, 입과의 단절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⑤ ㉔는 입이 만날 새로운 여인을 의미하나 화자가 이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4 (가)의 종장에서 화자는 독수공방하는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아는 존재는 '귀포리'뿐이라고 하며 동병상련을 드러내고 있다. 즉, 화자는 '귀포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으며, 여기서 '귀포리'는 화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129~130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 212쪽

키포인트 체크 이별, 까투리, 도사공, 나열, 그리움

1 ㉔ 2 ㉓ 3 ㉔ 4 ㉕ 5 (가)와 (나)는 모두 사실시조로, 열거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종장의 내용을 길게 제시함으로써 감정의 절실함을 드러내었다.

1 (나)의 종장에서는 입을 보지 못하면 간장에 불이 나서 타 죽게 될 것이고, 불지라도 놀랍고 끔찍하여 두 팔과 두 다리가 저절로 녹아내린 듯할 것이라고 하는 등 그 고통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는 입을 잃은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와 절망적 상황의 뱃사공의 처지를 열거했고, (나)에서는 세상에서 무섭다고 인식되는 것들을 열거했다.

④ 두 작품 모두 떠난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했다.

⑤ (나)는 문답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가)는 입과 이별한 슬픔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면서 현실과 밀착된 소재를 활용했다. 즉,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적인 삶에서 실질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뱃길에 비유하여 고통스러움의 정도를 나타내고, 입을 잃은 자신의 슬픈 심정을 강조했다.

3 (가)에는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열거법 등의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었다. <보기>와 (가)는 모두 '가토리'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나'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려 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의 종장 '7을 흐리오'는 '견주리오', '비교하리오'라는 의미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③ <보기>와 달리 (가)의 종장에서는 '도사공'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과장하여 열거하고 있다.

④ <보기>에 비해 (가)는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종장을 길게 늘어놓고 있다.

⑤ '가토리', '도사공'과 비교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가)와 <보기> 모두 활용하고 있다.

4 (나)의 초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종장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나열한 뒤, 종장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입을 못 보는 고통과 소식 없는 입이라고 답하고 있다.

5 (가)와 (나)에는 공통적으로 열거법, 과장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사실시조가 사대부들의 정제된 평시조와 달리 형식의 과격을 통해 절실한 감정을 표현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가)의 화자는 종장에서

절망적 상황에 처한 뱃사공의 처지를 자세히 열거하고, 종장에서 이별의 슬픔이 그보다 참담하다며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종장에서 온갖 무서운 대상을 열거하고, 종장에서 이러한 대상을 만나는 것보다 입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섭다고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131~133 삶의 고뇌와 시름 ① 214쪽

키포인트 체크 답답함, 시집살이, 경계, 창, 구박, 말, 해소, 한탄, 당부

1 ㉔ 2 ㉑ 3 ㉒ 4 ㉕ 5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1 (다)에는 앞과 뒤가 모순을 이루는 역설에 의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남에 대한 말을 하면 남도 나에게 대한 말을 한다는 이치가 나타나 있을 뿐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의 초장에서 점층적 표현이 나타나며, 종장에서는 여러 일상적 사물을 열거하고 있다.

② (나)에서 '며느리'가 '식어마님'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가 나타나 있다.

③ (나)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집 식구들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

⑤ (다)는 '말'이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2 (가)와 (나)의 종장은 유사한 소재나 내용을 나열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을 뿐 대립적인 시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②, ⑤ (가)와 (나)의 종장은 둘 다 길게 늘어낸 사실이 나타난다. (가)에서는 사물들을, (나)에서는 비유를 길게 나열하여 서술함으로써 시상을 확대하고 형식의 과격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종장에 제시된 사물들과 (나)의 종장에 시집 식구들을 빗댄 소재들은 친근한 일상의 것들로, 각각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과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드러낸다.

④ (가)의 종장에서는 창과 관련한 소재를 나열한 발상, (나)의 종장에서는 시집 식구들을 빗댄 소재들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삶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3 ㉑은 (가)의 화자가 답답함을 풀기 위해 가슴에 창이라도 내고 싶다고 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창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화자의 괴로움을 해소해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㉑은 성격이 날카로운 자신을 괴롭히는 시누이를 비유하는 사물이다. 따라서 화자의 괴로움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㉑은 화자가 자신의 답답함을 해소할 창을 만드는 도구이므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고 볼 수 없고, ㉑은 시누이를 비유한 것이므로 화자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없다.

③ ㉑은 창을 만드는 도구이므로 화자와 대상을 단절시킨다고 볼 수 없고, ㉑은 오히려 화자와 시누이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㉑은 창을 만드는 도구이므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㉑은 화자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㉑에서만 찾을 수 있다.

4 (다)는 신중한 언어생활을 강조하여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㉕ 역시 말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음식이나 물건으로는 힘이 벅차서 많은 사람을 다 대접하지 못하므로 언변으로나마 잘 대접한다는 말이다. 혹은 말로만 남을 대접하는 체함을 의미한다.
- ②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③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④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가슴에 창을 내어 놓고 마음이 몹시 답답할 때 여닫아 보고 싶다는 것은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4 ~ 136 삶의 고뇌와 시름 ② 216쪽

키포인트 체크 시름, 처지, 한숨, 매화, 소식, 웃음, 인생무상, 이별

1 ③ 2 ④ 3 ⑤ 4 ④

- 1 (가)에서는 시름이 가득한 고단한 삶의 현실을 '한숨'이 자신도 모르는 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또한 (나)에서는 화자 자신을 '매화'에, 어지러운 세상살이를 '춘설'이 훑날리는 것에 빗대어 표현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한숨'을 의인화하는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낸 (가)에만 해당한다.
- ② 자신의 늙어 가는 처지를 돌아보며 삶에 대한 무상감을 나타낸 (나)에만 해당한다.
- ④ (나)를 입의 마음을 빼앗은 동료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작품으로 해석한다면, 입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의 주된 정서로 볼 수 있다.
- ⑤ '매화'와 '춘설'을 대조적 의미의 시어로 사용한 (나)에만 해당한다.
- 2 의인법을 활용한 것은 <보기>가 아니라 (가)이다. (가)는 '한숨'을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기발하고도 생생한 표현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가)와 <보기> 모두 삶의 시름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보기>의 중장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작품 간에 상호 교섭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한숨아', <보기>에서는 '창 내고자'를 반복하고 있으며, 두 작품 모두 장지문의 종류와 돌쩌귀 등의 부속품을 열거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한숨'을 '너'라고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 3 (다)의 계절적 배경인 '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사의 이별과 대비되어,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별한 사람이 봄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인간 이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초장의 '봄이 왔다 후퇴 소식(消息)을 모로더니'에서 알 수 있다.
- ③ 중장에서 '푸른 버들이 먼저 봄의 소식을 알았다고 했다.'
- ④ 자연은 순환적으로 계절이 반복되지만,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4 ㉠은 '꽃이 필 것도 같다.' 혹은 '사랑해 줄 법도 하다.'의 의미로, 부정적 전망이 아니라 일말의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은 한숨이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하는 모습으로 행위의 주체는 화자이다.
- ② ㉡은 한숨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다.
- ③ ㉢은 꽃인 동시에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중의적 표현이다.
- ⑤ ㉣에는 이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37~139 해학과 풍자 ① 218쪽

키포인트 체크 게것 장수, 결백, 한자어, 거짓말, 비판, 풍자, 모함

1 ② 2 ③ 3 ③ 4 ④

- 1 (가)에서는 돈호법, 의성어, 대화체를 사용하여 게것 장수의 현학적인 태도를 풍자했으며, (나)에서는 중의법, 언어유희 등을 활용하여 남을 모함하는 세태를 풍자했다. (다)에서는 반복법, 점층법, 과장법을 사용하여 거짓말이 만연하고 참소를 일삼는 세태를 풍자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가)와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세태를 풍자하고 있지만, (다)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현실 불가능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가)~(다)는 모두 사실시조로 평시조의 형식적 엄격성에서 벗어난 파격성이 드러나 있다.
- ④ 역설적 상황은 잠자리가 살려면 잠자리를 잡으려는 아이들에게 오라는 (나)에만 제시되어 있다.
- ⑤ (다)에 제시된 내용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실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2 (가)는 쉬운 우리말을 두고 한자어로 게를 표현하는 게것 장수를 통해 현학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현대에도 유식해 보이기 위해 우리 고유어 대신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게것 장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은 비속어 사용, ②는 사투리에 대한 거부감, ④는 우리말 파괴, ⑤는 청소년의 은어 사용 등 현재 우리 사회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3 (다)에서 부정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온 놈'이다. '개야미'는 개미 자체 혹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소재로 풍자의 대상은 아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나)는 아이들의 놀이를 소재로 하여 남을 속여 이득을 보려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다)는 참소와 비방이 난무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④ (다)의 중장에는 '님'에 대한 화자의 당부가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세태에 대한 비판만 드러난다.
- ⑤ (다)에는 '님'이라는 특정한 청자가 등장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 4 ㉠의 말은 앞서 제시된 내용, 즉 개미가 호랑이를 물고 갔다는 허황된 내용을 가리킨다. 이처럼 거짓된 말을 하는 주체는 중장에 제시되어 있는 '온 놈'이다. 또한 이 '온 놈'이 하는 말의 내용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내용인면서 의미상 화자와 같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 내용은 '참언'임을 알 수 있다.

키포인트 체크 두꺼비, 물개, 송골매, 허장성세, 탐관오리

1 ④ 2 ⑤ 3 ③ 4 두터비 - 솔개, 푸리 - 쥐, 백송골 - 봉황 5 '두터비'는 탐관오리나 타락한 양반, '푸리'는 힘없는 백성을 상징한다.

1 (가)~(다)는 힘없는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횡포를 각각 '두터비'와 '물썩'에 빗대어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한 작품이다. 세 작품에서 유사한 대상을 나열한 것은 (나)뿐이며, (가)와 (다)는 '두터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세 작품 모두 '두터비', '물썩'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당시 상황을 풍자했다.

②, ③, ⑤ (가)와 (다)에서는 탐관오리가 힘없는 서민을 괴롭히다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모습을, (나)에서는 백성을 착취하는 무리가 너무 많아 살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며 부패한 탐관오리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며 웃음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나)의 '물썩'과 <보기>의 '참새'는 힘없는 백성에게 수탈을 일삼는 관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을 의미하는 '가렴주구'가 가장 잘 어울린다.

오답 틀어보기 ①은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②는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 ③은 작은 일을 크게 불러 떠벌림, ④는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견문(見聞)이 매우 좁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3 ㉔은 '마침 나이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괴멍이 들 뻔했구나.'라는 뜻으로 '두터비'가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부분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㉔은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나타낸다.

② ㉔은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인 백송골을 보고 놀란 두터비의 비굴함을 드러낸다.

④ ㉔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무리가 가하는 고통을 열거한 것이다.

⑤ ㉔에서는 '두터비'를 한 눈이 멀고 한 다리를 저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4 (가)에서 '두터비(두꺼비)'는 약자(힘없는 백성)를 괴롭히는 강자(탐관오리)를, '푸리(파리)'는 약자(백성)를, '백송골'은 '두터비'보다 더 강한 자(중앙 관리 또는 외세)를 나타낸다. <보기>에서는 각각 '솔개', '쥐', '봉황'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

지식 +

- 김진태, <장공에 대 솔개>
- 갈래: 평시조
- 성격: 풍자적, 우의적
- 주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양반 계층 풍자
- 감상: 약한 백성들('쥐')은 착취하고,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관리('봉황') 앞에서는 꿈쩍하지 못하는 비굴한 양반('솔개')의 모습을 우화적 수법을 통해 풍자한 작품이다.

5 (가)와 (다)는 동물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두터비'는 탐관오리나 부패한 양반, 즉 '푸리'로 상징되는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던 당시의 사회 지도층을 상징한다.

키포인트 체크 흥시, 부모님, 대조, 한탄, 심리, 물리

1 ④ 2 ① 3 ⑤ 4 ㉔: 가까이 있어도 천 리처럼 느끼는 사이, ㉕: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움.

1 (가)는 사물인 흥시에서 부모님을 연상하여 흥시를 드릴 부모님이 곁에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 흥시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는 구체적인 자연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②, ③ (나)는 마음의 거리와 물리적 거리를 대조하면서 물리적 거리보다는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⑤ (가)에는 부모님, (나)에는 멀리 있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2 초장에서 소반 위의 조홍감(흥시)을 본 화자는 곱게 보인다며 반가워한다. 그리고 중장에서 회굴 고사를 떠올리며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중장에 이르러 가져가도 드릴 분이 없다는 사실에 서러워하고 있다.

3 ㉔은 화자와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오답 틀어보기 ① 화자는 소반 위에 있는 '조홍감'을 보고 부모님을 떠올리고 있다.

② 화자가 조홍감(흥시)을 가져다 드리면 반길 이는 화자의 부모님이다.

③ '설위호는이다.'라는 시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④ ㉔은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떨어져 있어도 지척처럼 느끼는 사이와 대립되는 것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서로 먼 사이이다. 중장에서 화자는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가까이 느끼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다.

키포인트 체크 선비, 유유자적, 임금

1 ③ 2 ⑤ 3 ④ 4 (바), 화자가 좋아하는 강산에서 살아가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1 이 작품에는 특정한 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의 '놈들'은 화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 속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몰라 화자를 비웃는 사람을 의미한다.

오답 틀어보기 ① 3(4)·4조 4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지키고 있다.

② (다)에서 '먼 뉘(산)'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중장, (다)의 중장, (라)의 초장, (바)의 초장에 설의적 표현이 나타난다.

⑤ 자연의 이미지를 '산수 간', '먼 뉘', '강산' 등의 다양한 시어로 나타내고 있다.

2 (다)의 중장은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해도 '먼 뉘(자연)'처럼 반갑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리던 님'은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았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의 삶이 더 낫다는 것

을 말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내 뜻을 모르는 ‘놈들’은 (A)를 선호하여 화자를 비웃지만, 화자는 (B)가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이라 판단하고 있다.

③ ‘보리밥 뜻나물’은 화자가 자연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④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잔을 들고 앉아 ‘먼 뒨’을 즐기고 있다.

3 (라)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임천한흥)가 부귀공명을 비롯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하며 자신의 현재 삶에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격지심’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이므로 이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안분지족’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을 이르는 말로, (가)에서 화자는 ‘내 분’이라고 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안빈낙도’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을 이르는 말로, (나)에서 화자는 보리밥과 뜻나물을 알맞게 먹으며 그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③ ‘물아일체’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을 이르는 말로, (다)에서 화자는 ‘먼 뒨’을 사람처럼 대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귀거래’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로, (마)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인간 만스(벼슬, 또는 관직)’를 하나도 맡기지 않고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4 (바)에서 화자는 자신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하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연군지정(戀君之情)에 바탕을 둔 것이다.

더 우위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보기>에서 ‘견회’란 ‘시름을 떨치다, 회포를 풀다, 마음을 달래다’의 뜻이라고 했다. 따라서 모함으로 인한 유배의 억울함을 달래려는 마음이 제목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종장에 자신은 결백하니 누가 자신을 모함하는 말을 해도 임금님이 잘 판단해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③, ④ 이 작품은 (가)~(다)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라)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마)에서 이 둘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 화자는 ‘내 일’이 ‘망녕된’ 줄을 알면서도 임을 위해 행했다고 했다. 제3수의 ‘내 뜻’ 또한 임을 향한 것이므로 <제2수>의 ‘내 일’과 <제3수>의 ‘내 뜻’은 상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화자의 행동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이고 <제2수>의 ‘아뵤’는 화자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타인들을 의미한다.

③ <제4수>에서 ‘뒨’과 ‘물’이 길고 멀다고 하여 대상과의 거리감, 단절감을 표현했으므로 이를 통해 ‘추성(秋城)’은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④ <제4수>의 ‘뒨’은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제5수>의 ‘뒨’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한다. <제5수>의 종장에서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괴불효인가 여기노라.’라고 했으므로 <제5수>의 ‘뒨’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확대해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5수>의 ‘님군 향한 뒨’은 충성심을 의미하므로 <제1수>의 ‘내 몸의 해을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① ‘시내’와 ② ‘외기러기’는 모두 자연물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다. ③은 울면서 흐르는 것으로, ④은 울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청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자연물이나 사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면 관념적 정서를 구체화하고 정서를 심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146 견회요_윤선도 226쪽

키포인트 체크 귀양(유배), 임금, 부모님, 동일시

1 ① 2 ⑤ 3 ② 4 ㉠과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

1 이 작품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시적 대상인 임금과 부모의 은혜를 예찬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②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다)와 (라)에서 울며 흐르는 ‘시내’와 울고 가는 ‘외기러기’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 않는다고 하며 지나간 일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

⑤ (라)에서 화자는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 (마)에서 화자는 어버이에 대한 효는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임금에 대한 마음을 잊으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는 ‘충’과 ‘효’가 하나라는 인식일 뿐 충을 효보다

147 오우가_윤선도 228쪽

키포인트 체크 벗, 인간, 예찬

1 ④ 2 ⑤ 3 ⑤ 4 • 공통점: 화자는 ‘달’이 높이 떠서 세상 모든 사물을 비취 주기를 바라고 있다. • 차이점: (바)에서 ‘달’은 과묵함의 미덕을 지닌 예찬의 대상이지만 <보기>에서의 ‘달’은 화자의 소망을 이루어 주길 기원하는 대상이다.

1 이 작품은 (가)에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소개하면서 시상을 일으키고 (나)~(바)에서 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각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시상을 점층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의 초장과 중장, (다)의 초장과 중장, (라)의 초장, (마)의 초장과 중장에 대구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시조의 규칙적인 음보와 함께 리듬감을 형성한다.

②, ⑤ (나)~(바)에서 자연물인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물'을 '구름, 바람'과 대조하여 물이 지닌 불변성을 예찬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바위'를 '꽃, 풀'과 대조하여 '바위'가 지닌 불변성과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다.

2 ①은 때에 따라 변하는 구름 빛깔, ②는 불었다 그쳤다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물의 속성인 불변성과 대비되는 가변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③은 계절에 따라 피었다 지는 꽃, ④는 푸르다가 누렇게 변하는 풀을 표현한 것으로 바위의 속성인 영원성과 대비되는 순간성을 나타낸다. ⑤는 대나무를 묘사한 것으로, (마)에서는 나무나 풀과 다르게 곧고 속이 비었으며 사계절 내내 푸른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①~④는 부정적 속성, ⑤는 긍정적 속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바)의 '보고도 말 아니하니'는 달의 과묵한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바)에서 화자는 달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작가가 현실에서 느낀 좌절감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면서 여러 자연물이 지닌 속성을 예찬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자연을 현실에서의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로 여긴 것과 관련된다.

② 자연물을 벗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처럼 '너', '그'라고 지칭하는 것을 통해 자연을 인격체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다솜'은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로, 화자는 이들이 지닌 긍정적 속성을 예찬함으로써 본보기로 삼고 있음을 드러낸다.

④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말고 다른 벗은 필요 없다는 의미로, 다섯 가지 자연물에 대한 예찬과 함께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보기>는 남편에게 '즌 달'로 비유되는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달'에게 기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을 예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바)와 차이가 있다.

2 ㉠은 악기 소리를 흉내 낸 말이 아니라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보기>에서 ㉠은 배의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보여 준다고 했다. 즉, ㉠은 배의 이동과 관련하여 각 계절의 10수마다, 제1수에서 배를 띄우는 모습('비 떠라 비 떠라')부터 제10수에서 배를 대는 모습('비 브터라 비 브터라')까지 제시되어 작품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④ ㉡은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로,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어 흥취를 더욱 높여 준다.

⑤ ㉠, ㉡과 같은 여음은 평시조의 단조로운 흐름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3 (라)에서 화자는 눈이 갠 후 펼쳐지는 바닷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며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을 신선의 세계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눈'은 겨울 풍경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뿐, 화자가 현실 정치로 인해 겪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낚싯대를 막대로 삼는다는 것은 고기를 잡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②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니 배가 가는 대로 두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 없이 그저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③ '물외'는 세속을 떠난 곳으로, 화자가 살아가는 자연을 의미한다.

⑤ 화자가 살아가는 자연을 인간 세계가 아닌 신선 세계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인간은 <보기>의 혼탁한 정치 현실과 연결 지을 수 있다.

4 이 작품은 시조의 일반적인 형식을 지키는 듯하면서도 살짝 빗겨나 있다. 먼저 일반적인 시조에는 없는 여음(후렴구)이 있으며, 후렴구를 빼면 다른 시조와 같은 형식처럼 보이지만 (나)에서는 종장의 첫 음보가 2음절이고, (다)에서는 종장의 첫 음보가 4음절이다.

148 어부사시사_윤선도

230쪽

키포인트 체크 어부, 계절, 합일

1 ① 2 ③ 3 ④ 4 여음이 삽입되어 있다.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1 이 작품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어부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의 속성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자연이 지닌 불변성이나 순리에 따른 변화, 인간에게 주는 혜택 등의 긍정적 속성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작품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틀어보기 ② (가)에서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며 느끼는 삶의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③ 이 작품은 계절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어촌의 모습과 그에 따른 어부 생활의 흥취를 담고 있다.

④ (나)와 (라)에서 자연에서 느끼는 정취를 촉각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⑤ '낚대', '어부', '봉창(篷窓; 배의 창문)', '만경류리(萬頃琉璃; 유리처럼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 등에서 나타난다.

149 매화사_인민영

232쪽

키포인트 체크 매화, 의인화, 절개

1 ⑤ 2 ⑤ 3 ① 4 (가)의 거문고 연주는 화자가 풍류를 즐기기 위한 방법이고, <보기>의 거문고 연주는 덕보가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이다.

1 (마)에서 '철쭉'과 '두견화'를 매화와 비교하고 있으나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매화뿐이라고 하며 대상 간의 공통된 속성이 아닌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와 (다)에서 매화를 '너'로 호칭하여 매화를 사람처럼 대하면서 매화의 고결함과 지조를 예찬하고 있다.

② (라)와 (마)의 종장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뜻을 강조하는 설의법이 쓰였으며, 이를 통해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방에서 매화를 보며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 떠오르는 달 등을 묘사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④ (다)에서 '네로구나'라고 말을 건네는 듯한 방식으로 눈 속에 핀 매화의 지조를 드러내고 있다.

2 '봄 뜻'은 당대 이념과 관련하여 '지조나 절개'로, 심미적 태도로는 '겨울 입에도 핀 아름다운 꽃'으로, 풍류적 태도로는 '겨울에도 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각각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 이념에만 국한하여 감상해야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에서는 '매영'이 불러일으킨 풍류를 거문고와 노래를 통해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② 거문고를 뜯으며 노래하다 다른 사람들과 풍류를 함께 즐기고자 술잔을 서로 권하는 것이다.

③ 달빛을 받은 매화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황혼에 뜨는 달을 기다린다고 했다.

④ 이 작품에서는 자연물인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면서도 절개, 지조 등의 규범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3 (가)의 '백발옹'은 매화를 바라보고 즐기는 화자를 의미한다.

☞오답 틀어보기 ② '부동터라.'는 향기가 떠돈다는 의미로, 후각을 시각화한 표현이다.

③ '빙자옥질'은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이라는 의미로, 매화를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하여 의인화한 표현이다.

④ '봄 뜻'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⑤ '척촉'과 '두견화'는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매화와는 대조되는 존재이다.

4 (가)에서는 매화 그림자가 비친 창을 배경으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으므로 이때 거문고 연주는 풍류를 즐기기 위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덕보가 세속과 거리를 두면서 거문고를 타고 있으므로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식 +

•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

- 갈래: 고전 수필
- 성격: 회고적, 예찬적
- 주제: 덕보 홍대용의 인물됨과 비범한 재주에 대한 예찬
- 감상: 묘지명에 해당하는 잡문이지만 수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덕보 홍대용과의 교류에 따른 개인적인 체험과 일화를 통해 그의 비범한 재주를 찬미하며 홍대용의 평소 생활 자세와 그가 지닌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2 | 가사

170 선상탄 _ 박민로

242쪽

키포인트 체크 임진왜란, 전쟁, 분노, 태평성대

1 ④ 2 ② 3 ⑤ 4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5 ③ 6 ④ 7 ①
8 ④ 9 왜적의 흉악한 꾀에 넘어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임진왜란을 의미한다. 10 왜가 비록 적이지만 죽이지 않고 우리 임금의 성덕으로 함께 잘 살고자

1 이 작품은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전쟁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을 뿐,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일장검(一長劍) 비기 초고', '여기 진목(勵氣驅目)하야' 등에서 남성적이고 강건한 문체를 엿볼 수 있다.

②, ③ 화자가 '주사(舟師)'의 신분으로 진동영에 내려간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⑤ 현원씨, 진시황, 서불과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여 배와 왜적이 생겨나게 한 그들을 원망함으로써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전쟁에 대한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나)에서 화자는 '비'가 있어 오랑캐가 쳐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며 '비'를 만든 현원씨를 원망하고 있다. 즉, 화자는 '비'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이때 '비'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의 '빈 배'는 남시를 갔던 화자가 무심한 달빛만시고 돌아오는 것이므로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우국충정을 바탕으로 왜적에 대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은 선상을 배회하며 과거의 일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전쟁을 일으킨 왜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은 선조 38년, 즉 1605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품의 배경이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이후임을 알 수 있다.

② ㉡은 병이 깊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우국충정을 발휘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는 행동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에 대한 화자의 강한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④ ㉣에서 '황운(黃雲)'은 전쟁의 기운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4 ㉤는 주사(舟師)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후 느끼는 시름이다. 왜적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 시름'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는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데서 오는 시름, 즉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5 이 작품에는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나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역설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의 '석일 주중에는 ~ 대검 장창뿐이로다.', (라)의 '사제갈도 생중달을 ~ 방연을 잡아거든' 등에서 대구 표현이 나타난다.

② (라)의 '구시월 상풍에 낙엽가치 헤치리라.'에서 적을 서릿바람에 낙엽이 지는 것처럼 해치겠다는 의지가 비유적으로 드러난다.

④ (라)의 '칠종칠금을 우린들 못 훔 것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적을 쉽게 물리치겠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마)의 '수이 걸항하야사라.'라는 부드러운 명령형 표현을 통해 왜적에게 빨리 항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6 (나)에서는 전쟁 전후에 달라진 배의 쓰임을 언급하고 있는데, ㉤는 술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옛날의 배 안, ㉥는 큰 칼과 긴 창뿐인 오늘날의 배 안을 가리킨다. 따라서 ㉤의 배는 풍류의 수단, ㉥의 배는 전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화자는 배가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배를 타고 흥취를 즐길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가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② ㉡와 ㉥ 모두 이동 수단으로서의 배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

③ 배의 쓰임이 ㉡에서 ㉥로 달라진 것은 전쟁 때문으로, 계절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⑤㉔와 ⑥는 배에 대한 화자의 인식보다는 배의 쓰임과 관련이 있다.

7 '저그나 저흙소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가 왜적들의 신체가 왜소하다며 업신여기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② '생중달'과 '방연'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므로 왜적인 '서절구투'와 대응한다고 볼 수 없다.

③, ④ '제갈공명, 사마중달, 손빈, 방연' 등의 고사를 인용하여 무인으로 서 화자의 기개와 우국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갈공명은 죽은 몸, 손빈은 발이 없는 몸이지만, 화자 자신은 수족이 성하고 살아 있어서 화자 자신이 더 나은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8 ㉔은 '태평성대의 백성', ㉔은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유사하다.

9 '해추(海醜)'는 '왜적'을, '홍요(兇譟)'는 '흉악한 꾀'를, '만고수(萬古羞)'는 '왜적으로 인해 당한 치욕, 즉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작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왜적에 당한 수치심을 드러내고 있다.

10 (마)에서는 왜적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임금의 덕이 왜적과도 함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은 단순히 적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통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1 누항사_ 박인로 246쪽

키포인트 체크 고향, 궁핍, 빈이무원

1 ⑤ 2 ② 3 ② 4 ⑤ 5 ③ 6 ⑤ 7 ④ 8 ⑤ 9 일상 생활의 단면을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그렸다.(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대부의 현실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1 이 작품은 작가가 농촌 생활을 하며 겪은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전원생활을 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나)에서 소 주인이 꿩을 안주 삼아 술을 취하게 먹었다고 한 것은 건넌집에서 대접받은 상황으로, 화자에게 소를 빌려 줄 수 없는 이유와 연결될 뿐 전원생활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사의 기본 형식인 4음보의 율격을 대체로 지키면서도 그 속에 농촌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겪은 화자의 생활 모습이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사건처럼 전개되고 있다.

② (가)의 '친절호라 너진 집의 ~ 허위허위 다라서', (나)의 '헌 먼덕 수기 스고 ~ 설피설피 물너 오니'에 마음이 급해 소를 빌리러 가는 화자의 심리와 소를 빌리지 못해 좌절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③ 화자와 소 주인 간의 대화를 인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④ 농사를 짓고자 하나 소가 없어 이웃에 소를 빌리러 가고, 소 빌리기를 거절당해 실망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2 화자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난한 양반 사대부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 수 있지만, 화자의 신분이 평민으로 바뀐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③ 화자는 양반 사대부이지만 소를 소유한 농민보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처지로, 이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양반 사대부의 궁핍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양반 사대부가 평민에게 소를 빌려 달라고 아쉬운 말을 하는 것은 권위적이었던 양반 사대부의 삶의 방식이 무너진 것을 보여 준다.

⑤ 극심한 가뭄('한기태심')으로 농사지를 시기를 놓치고, 소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은 임진왜란 이후의 피폐해진 사회적 상황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목 불근 수기치'는 화자가 아니라 건넌집 사람이 소 주인에게 대접한 것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화자는 농사를 지으려 하지만 소가 없는 '궁가', 즉 가난한 처지로 걱정이 많아서 소를 빌리려 온 것이다.

③, ④ 소 주인은 소를 빌리러 온 화자에게 '간 이근 삼해주'를 대접한 건넌집 사람의 '이러한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없어 그에게 소를 빌려 주겠다고 '큰 언약'을 했다고 한다. 즉, 이러한 이유로 화자의 부탁을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살피는 모습에서 실리에 따라 행동하는 민중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소 빌리기를 거절당하고 맥없이 물러 나오는 화자를 보고 개가 짖는 것을 통해 화자의 비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4 ㉔~㉔은 소 주인이 화자에게 한 말이므로 대화의 대상이 화자이지만, ㉔은 소 주인이 건넌집 사람에게 한 말이므로 대화의 대상이 건넌집 사람이다.

5 이 작품에는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노동과 관련된 내용은 (가)에 나타나는데, (가)에서 화자는 봄에 해야 할 밭갈이를 못하게 되자 우울해하다가 결국 밭갈이를 포기한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틀어보기 ① 밭을 갈기 위해 소를 빌리려다 실패한 작가의 생활 체험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과 빈이 무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다)의 '인간 어니 일이 명 밧긔 삼겨시리.'는 설의적 표현으로, 운명론적 인생관을 드러낸 부분이다.

④ (나)에서 '명월청풍'과 '백구'를 의인화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다)의 후반부에서 '태평천하', '충효', '화형제 신봉우'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6 (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가난을 '명(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자신의 삶에 '설은 뜻(서러운 마음)'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화자가 '설은 뜻'에서 시름을 얻는 것은 아니며, 강호는 빈이 무원의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공간이므로 시름을 위로받기 위해 찾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7 ㉔에서 '유비군자'는 교양 있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화자처럼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을 세속적 삶을 추구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㉔은 소를 빌리지 못해 밭갈이를 할 수 없는 화자가 밭이 있는 들, 나아가 세상에서 느끼는 거리감을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 ㉔에서는 아까운 쟁기가 '빈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할 만한 지위를 얻지 못하고 농촌에서의 삶에도 소외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㉔은 '먹고사는 일이 누가 되어'라는 뜻으로,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안빈낙도를 다짐했지만 배고픔 때문에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잊고 지냈음을 알 수 있다.

⑤㉔은 자연을 벗하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화자가 선택한 안빈낙도의 삶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

8 '온포(溫飽)'란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음.'을 뜻하는 말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나머지는 모두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는 삶과 관련된다.

9 <상춘곡>으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 가사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안빈낙도의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사실적·구체적인 현실 상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선 전기 가사와 구별된다.

172 이동장유가 - 김인겸

250쪽

키포인트 체크 일본, 여정, 열등

1③ 2⑤ 3④ 4③ 5 풍랑 속에서 배가 가야 할 길,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 6② 7③ 8① 9③

1 (가)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 바다의 모습과 (다)에서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배경 묘사가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④ (나)의 '태산 그릇 성년 물결 ~ 물 속의 희롱하니.'에서 풍랑이 일어난 바다의 모습을 비유법과 과장법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② '-도다', '-구나', '-고' 등의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밤에 폭풍이 일어나 배가 흔들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다)에서는 풍랑이 가라앉은 아침에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의 경관에 감탄하고 있다.

2 (다)는 화자가 풍랑이 가라앉은 아침 바다의 장엄한 광경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보고 들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삼방서기로서 통신사 일행의 여러 기록을 담당할 작가의 임무와 관련하여 기록한 것이다.

② (가)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부산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통신사 일행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가)의 부산 앞바다에서 (나), (다)의 바다 한가운데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난다.

④ (나)는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작가의 주관적 감상으로 볼 수 있다.

3 이 작품에서 화자는 풍랑이 심해 배가 몹시 흔들리자 선실 안에서 이를 견디고 있을 뿐, 돛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가)의 '삼현과 군악 소리 산히를 진동하니'를 드러내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 '연히 변진 각 포의 / 불빛 두어 덤이 구름 맞고 뿔 만하니.'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에서 '이윽고 희듯거늘 장관을 하여 보시'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4 ㉔은 '요강'과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인 '타구'가 넘어지는 모습으로, 화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㉔은 화자 일행이 여섯 배로 나누어 탄 것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 일행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㉔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돛이 마치 반달 모양처럼 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④ ㉔의 '구만니 우주 속의 큰 물결'은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일망무제(一望無際)'와 의미가 통한다.

⑤ ㉔은 부산에 있는 산이 눈썹처럼 작게 보인다는 것이므로 육지에서 멀리 떠나왔음을 의미한다.

5 ㉔은 '일본으로 향하는 배가 가는 길'을 가리키는 동시에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화자는 '선동(배)'에서 대마도의 '좌슈포', '포구'로 이동하고 있으며(㉔), 화자가 직접 본 대마도의 마을 모습과 일본 사람들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㉔).

☞오답 틀어보기 ㉔. 일본 사람들을 알아보는 태도가 드러나 있으며 대상에 대한 친근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㉔. 폭풍을 이기고 대마도에 당도한 뒤 포구에 들어가며 본 마을의 모습과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서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7 화자는 (가)에서 종사장에 대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대마도의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개인의 주관적 감상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⑤ (다)에서 일본 사람의 외양과 의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가사의 장편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② 화자가 일본에서 체험한 것을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일본 문화를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대마도에 도착하여 목격한 마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8 폭풍을 만나 배 안의 사람들이 뺨뿔미와 토를 할 때 종사상이 태연히 앉아 있었다고 한 것은 종사상의 의연한 모습을 드러낸 표현일 뿐 종사상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② (가)의 '더마도 갖잡다고 샴공이 니르거늘, / 고타 니러 나와 보니 십니는 남았고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선형이 안온하야 좌슈포로 드러가니, / 신시는 하여 있고 복선은 문져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인개 | 쇼도하고 여귀 세 집 더귀 네 집 / 합하야 헤게 되면 소오십 호 더 아니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남진 잇는 겨집들은 감아하게 니를 칠하고 ~ 압호로 씩미고 니를 칠티 아났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㉔은 자연의 경치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 것이므로 <보기>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㉔에서는 사신 일행을 맞으러 오는 배를 '왜선'이라 낮추어 부르고 있다.

②, ④ ⑥의 '왜놈'과 ④의 '왜봉 여섯 놈'은 일본 사람을 낮추어 부른 말이다.
 ⑤ ㉔는 일본의 집을 노적 더미에 비유한 것으로, 일본을 알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173 만연사_ 안조환 254쪽

키포인트 체크 유배, 사실적, 반성

1 ② 2 ② 3 ③ 4 ㉔: 탐화봉접, ⑥: 화자는 법에 걸려 유배를 오게 되었다. 5 ④ 6 ④ 7 ⑤ 8 ①

- 1** (나)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황금색으로 변한 보리밭의 모습과 풍년이 들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지만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의 '남방 염천', '백풍'에서 계절감(여름)이 드러난다. ③ (가)의 '옥식 진찬 어디 두고 ~ 모양은 귀신이랴'에서 과거와 대조되는 음식과 옷, 귀신 같은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어렵고 비참한 처지가 드러난다. ④ (다)의 '뱀 물릴 줄 알았으면 ~ 공명 탐심 하였으랴'에서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고 (나)와 (다)의 마지막 부분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물노라 저 농부야 ~ 부르는가'에서 농부에게 말을 걸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2** (가)에는 유배 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며, (나)와 (다)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화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에서 화자는 한숨이 절로 난다고 하며 유배당한 처지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③ 화자는 유배 오기 전의 풍족한 생활을 떠올리고 있으며, 공명을 좇아 그릇된 행동을 했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다. ④ (다)의 '어제 옳던 말이 오늘에야 원 줄 알고 / 뉘우친 마음이야 없다 야 하라마는'에서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과거의 풍족한 생활과 대조하여 현재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㉔는 열심히 일하여 수확하는 농부의 삶이 즐거운 것을 알았다면 공명을 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후회하는 내용일 뿐 이를 유배에서 풀려나도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㉔에서 뜨거운 여름날에 입고 있는 누비바지가 굴뚝을 막았던 멍석 같다고 표현한 것은 유배지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㉔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하여 미친 사람이 다 되었다는 표현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㉔은 비유적 표현으로 '백운(옥식 없는 삶)'이 좋은 줄 알았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자신의 잘못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임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㉔은 자신이 죄를 지을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나타낸 표현으로, 자신의 죄가 실수였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4** 공명을 좇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은 '탐화봉접'으로, '망라에 걸렸으랴'에서 화자가 공명을 좇다 법에 걸려 유배를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다)에는 화자가 낚싯대를 들자 놀라 달아나려는 '백구(갈매기)'를 보며 임금에 대한 충성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즉, '홍중의 붉은 마음'은 화자가 지니고 있던 마음으로 이를 '백구'를 매개로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지 화자가 '백구'를 통해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다)의 '성상이 버리시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는 (가)에서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라고 하며 무슨 일이라도 마음을 붙여 시름을 잊어 보려고 한다. ③ (나)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 의취를 취함이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물고기를 낚으려는 목적으로 낚시질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⑤ (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가슴속에 임금에 대한 충성심, 성에 대한 감사가 있음을 밝히며 이를 임금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 6** ㉔은 귀양 온 화자가 어떤 일이라도 마음을 붙여 시름을 잊으려 하는 것에서, ㉒과 ㉔은 화자가 무심하게 낚싯대를 드리우고 갈매기를 보며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에서, ㉔은 (가)의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귀 설마 하라(설마 돌아가지 못하겠는가)'와 (다)의 '(임금의 은혜를) 갚을 법도 있거니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자신을 포함한 적대자나 그들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 7** 이 작품과 <보기>는 소재 활용과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당대 문학 작품들 사이에 어떤 표현이 유행했는지, 또 이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④ <보기>에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주제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의 창작 계층이 이 작품과 다르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두 작품을 통해 향유 계층의 확산 과정을 탐구할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지식+

• **작자 미상 <백구야 놀라지 마라>**
 • 갈래: 시조
 • 성격: 풍류적, 탈속적, 한정가
 •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살고 싶은 마음
 • 감상: 세속의 명예는 비랄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자연과 더불어 한가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시조이다. 인간 세상의 부귀나 공명을 다 잊고 강호에 숨어서 백구를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8** ㉔는 귀양 와 고생하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한 말로, 화자가 현재 생활에 적응하여 만족감을 나타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② ㉔는 '낚시하는 자리'라는 의미로, 화자가 현재 낚시질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③ ㉔는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매우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를 의미한다. ④ ㉔는 흥이 나지 않는 낚싯대를 별 뜻 없이 들었다는 말로, (나)의 '남'

시를 드리우고 ~ 취어가 아니로다'와 같이 화자가 고기잡이에 뜻이 없음을 드러낸다.

⑤ ㉔는 '홍중의 붉은 마음'과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 성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으로 연군지정과 관련 있다.

174 연행가_홍순학 258쪽

키포인트 체크 사신, 견문, 우국지정

1③ 2② 3④ 4② 5 객관적이고 치밀한 관찰을 통해 대상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1 이 작품은 청나라에 사신으로 떠나면서 보고 들은 견문과 그에 대한 감상을 담은 가사이다. (라)~(바)에서 알 수 있듯 당시의 청나라를 낯잡아 보는 태도가 깔려 있으므로 사대주의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가)에서 압록강을 건너며 먼 사행길에 오르는 두려움과 부담감, 부모님에 대한 걱정 등을 드러내고 있다.

② (라)~(바)에서 호인들의 모습, 의복 등을 관찰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④ (가)~(다)에서 압록강을 건너 봉황성에 이르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⑤ (가)에서 화자의 나이가 25세이며 여태 경기 지방 바깥으로 백 리도 다녀 본 일이 없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가)의 '출세한 지 이십오 년'이라는 표현은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이라는 뜻으로, 출세를 지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경기 지경 뵈 니 밧기 먼길 단여 본 일 업다.'라고 한 것에서 지금까지 먼 길을 여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③ '허박하고 약한 고질 말 이 형역 걱정일세.'에서 허약한 체질로 인해 여행의 괴로움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도라보고 도라보니 우리나라 다시 보즈.'에서 고국을 떠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반년이나 엇지홀고, 이위정이 어려우며,'에서 부모님 곁을 떠나는 기간이 6개월이나 되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보기>에서는 이 작품의 장편 가사로서의 면모와 산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작품은 기행 수필로서 화자의 견문과 감상을 자세하게 담고 있을 뿐, 당대 시대상태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장편 형식으로 여정과 견문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②, ③ 3·4(4·4)조의 운율로 내용이 전개되지만 노래로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정서 표출에 초점을 두고 있지도 않다.

⑤ 이 작품은 주로 청나라 문물이나 청나라 사람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지식+

• <연행가>의 문학적 의의와 한계

<연행가>는 조선 후기 장편 기행 가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일동장유가>와 함께 사행 가사(使行歌辭)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사신으로서 왕명

을 받은 후의 심정이나 책무 의식을 비롯해 여정에 따른 느낌이나 감회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청나라 문물이나 풍속, 세태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풍속사적인 가치도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대상을 사실적으로 소개·나열하여 문학적인 성취가 부족한 점이나 반청(反淸) 의식에 사로잡혀 민족의식을 강조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4 ㉔의 '통군정'과 '빅마산'은 조선의 공간이다. 화자는 '아니 뵈고(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고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압록강'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낯선 곳을 여행하는 설렘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자는 '우리나라 다시 보즈.'라고 하여 고국을 떠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밭끼을 기다려서'는 '날이 밭끼을 기다려서'라는 뜻으로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계절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녹창 주호 여염들은 오식이 영농호고'와 '화소 치란 시정들은 만물이 변화하다.'는 앞뒤 문장이 짝을 이루는 대구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청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의 변화함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 것으로, 청나라 사람들을 낯잡아 보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지저귀며'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청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나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청나라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5 청나라 사람의 의복의 특징을 세세하게 묘사한 데서 작가의 치밀한 관찰력을 엿볼 수 있다.

175 춘면곡_작자 미상 260쪽

키포인트 체크 남성, 이별, 그리움

1⑤ 2① 3④ 4④ 5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과장된 표현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냈다.

1 이 작품에서 화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은 '서창(서재)'이며, 공간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는 임과 이별한 안타까움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어 상황 변화를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나뵈', '원앙', '정마', '두견', '외기력' 등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③ 화자와 임, 그리고 화자가 처한 상황(임의 부재)을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 임과 평생 이별하지 말자고 약속한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

2 ㉔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보기>의 '늪꾼 뵈'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선택한 대상으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3 '편월'과 '잘새'는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소재일 뿐, '편월'과 '잘새'에 임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틀어보기** ① [A]는 우리 고전 문학에서 흔히 쓰이는 관습적 표현으로, 화자의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 정서로 전환하여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의 ~되야 ~고저'와 같은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화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 ⑤ 현세에서 입을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후세에 자연물로 태어나서라도 입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4 '외기력이'가 슬피 운다고 한 것은 입과 이별한 화자의 슬픈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오답 틀어보기 ㉠ '편월'은 화자가 되고자 하는 분신일 뿐 감정을 이입한 대상은 아니다.

5 ㉠에서는 태산이 평지가 되고 금강이 다 마르도록 입에 대한 슬픈 회포를 가늠 길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입에 대한 회포가 끝이 없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해서 드러낸 것이다.

4 (다)의 앞부분에 기러기가 무리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떠나면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비애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표현으로 봐야 한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시종일관 봄 경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흥에 겨워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④, ⑤ (다)의 '층암 절벽상의 ~ 은옥같이 흘러지니'에 가사의 기본 율격인 3·4조에서 벗어난 표현이 나타나며, 폭포수의 모습을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앞부분과 비교하여 후반부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③ 화자의 시선이 '하늘 → 산 → 절벽의 폭포'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5 <보기>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대상을 애상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의 기러기가 날아가는 장면에서 '어이 갈꼬 슬피 운다.'라는 표현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

176 유산가_작자 미상

262쪽

키포인트 체크 봄, 자연, 감흥

1 ② 2 ③ 3 ① 4 ① 5 기러기, 운다

1 이 작품은 봄을 맞이한 유희와 감흥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풍자적 기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라)의 '경개 무궁 좋은씨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화란 춘성', '만화방장', '춘색' 등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란 의성어나 의태어, 즉 음의 성질이나 높낮이 또는 강약에 따른 어감이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다)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⑤ '무릉도원', '연명 오류', '소부 허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이 작품에서 자연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공간이 아닌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의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강산을 들어를 가니'에서 자연을 즐기려는 화자의 소박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화자가 자연을 '무릉도원'과 '연명 오류'라고 표현한 것에서 자연을 동양적인 이상향의 공간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봄을 맞이한 자연의 경치와 폭포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격정적으로 예찬하고 있다.

⑤ (가)의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유희적이고 향락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3 이 작품은 봄을 맞이하는 감흥과 풍류를 한시구와 순우리말을 적절히 섞어서 표현하고 있다. 창작 계층이 서민층임에도 한시구 등을 활용한 것은 수용 계층인 양반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7 덴동 어미 화전가_작자 미상

264쪽

키포인트 체크 화전놀이, 대화, 덴동 어미

1 ③ 2 ② 3 ⑤ 4 ② 5 화자는 '열일곱 살 청춘과녀'이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는 데 관심이 없다. 6 ② 7 ④ 8 ③ 9 ④ 10 이 작품은 덴동 어미가 살아온 이야기(일생담)가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다른 <화전가>와 구분된다.

1 이 작품의 화자는 화전놀이를 떠나는 부녀자로, (라)의 '열일곱 살 청춘과녀 나도 같이 놀러 가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인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부녀자들의 봄놀이인 화전놀이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② 화전놀이를 떠나는 부녀자들의 삶의 모습과 정서가 잘 드러난다.

④ 화전놀이를 가기 위해 음식을 모으는 모습이나 각기 형편에 맞게 단장하는 모습에서 서민층 여인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⑤ 전체적으로 4·4조와 4음보를 통한 운율이 느껴진다.

2 화전놀이는 조선 시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이나 <보기>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찾을 수는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④ 화전놀이는 봄철에 진달래꽃이 필 때 야외에 나가 꽃을 떡에 넣거나 부치거나 하여 여럿이 함께 먹으며 시름을 달래는 놀이이다.

③ 계절적 배경인 '봄'은 한과 시름을 품은 부녀자들이 화전놀이를 통해 춤과 노래로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화전놀이를 하는 날은 여인들이 집 밖에서 자신들의 한과 탄식을 마음껏 분출하도록 사회적으로 허용해 준 날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작품 전체적으로는 인물 간의 대화가 나오지만, (다)는 화자의 서술이 주가 되며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전놀이를 가기 위해 치장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신부녀의 모습을 ‘광한전 선녀’, ‘월궁항아’에 빗대어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청홍사, 분홍 단기, 청준주, 홍준주, 금죽절, 은죽절, 은장도, 금장도, 은조롱, 금조롱’ 등의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4 ㉠에는 ‘가세’가 반복되면서 일정한 어구를 삽입해서 전개하는 반복과 변조의 ‘a-a-b-a’의 구조가 나타난다. ㉡ 역시 ‘살어리’가 반복되면서 ‘청산애’가 삽입된 유사한 구조가 나타난다.

지식+

- ‘a-a-b-a’ 구조를 활용한 현대 시
 - 산에는 꽃 피네./꽃이 피네./갈 봄 여름 없이/꽃이 피네. - 김소월, <산유화>
 - 접동/접동/아우래비 접동 - 김소월, <접동새>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갈계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박두진, <해>
 - 해야 뜨지 마라 해야 뜨지 마라 / 동해 불끈 천둥근 해야 뜨지 마라 - 고정희, <청산별곡>
 -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 홍사옹, <나는 왕이로소이다>

- 5 화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인물 좋건마는’이라고 하면서도 ‘열일곱 살 청춘과녀(과부)이기 때문에 ‘단장할 마음 전혀 없’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처지로 인해 외모를 꾸미는 데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6 (가)에서 청춘과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자, (나)에서 텐동 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보라며 자신의 인생사를 이야기하고 청춘과부에게 충고를 전한다. 이 작품은 이와 같이 두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 7 텐동 어미의 첫 번째 남편은 그녀를 타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이후 양가 부모가 의논하여 텐동 어미는 재가하게 된다. 따라서 시부모가 텐동 어미를 구박했다고 볼 수는 없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나)의 ‘나도 본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일리니 /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 고리장 키우다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순흥 지방에서 태어난 텐동 어미는 예천 읍내의 아전 집으로 시집갔다.
 - ③ 텐동 어미의 첫 번째 남편은 단웃날 그녀를 타다가 그넷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죽었다.
 - ⑤ ‘수만 냥 이포를 ~ 남의 집 되고’에서 알 수 있다.
- 8 (라), (마)에는 청춘과부에 대한 텐동 어미의 충고와 이를 들은 청춘과부가 깨달음을 얻고 수심을 풀어내는 장면이 나온다. 따라서 텐동 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텐동 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살아가는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충고하고 있을 뿐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 ② 청춘과부에게 함께 화전놀이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미 화전놀이를 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 ④ 청춘과부는 텐동 어미의 말을 듣고 화전놀이를 즐기면서 근심을 풀어나갔다고 말하고 있다.
 - ⑤ 청춘과부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 9 ㉠를 통해 당대의 가혹한 징세와 아전들이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10 이 작품은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전가>의 일반적 형식을 따르면서도 텐동 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화전가>와는 차이가 있다.

178 복찬가_이광명 268쪽

키포인트 체크 연좌제, 어머니, 효심

1 ① 2 ④ 3 ② 4 일점의리

- 1 ‘문노라 붉은 돌아 냥지의 비취거뇨’에 도치법이 사용되었지만 이 구절은 달과 구름처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 것이지, 열악한 유배 상황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 오답 틀어보기 ② ‘노친 소식 나 모를 제 ~ 일반고사 뉘 해울고’에서 설의법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여의 일흔 농이오 치 업슨 빈 아난가’에서 ‘용’과 ‘배’는 각각 여의주와 키를 잃었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비유한다.
 - ④ ‘흐르는 내히 되어~창전의 가 노닐고저’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대구를 이루면서 고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일점의리 슬히더니 어느 조손 디신홀고’에서 자신이 아니면 어머니를 모실 자손이 없음을 의문형 어미로 표현하며 어머니 봉양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 2 <보기>에서는 아침 조반이 형편없고 그마저도 굶을 때가 많아 배가 수시로 고프 정도로 유배 생활이 열악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 작품에서는 주로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의 화자는 당과 싸움의 희생양으로 유배에 처해졌지만 패배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화자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안위뿐이다.
 - ② <보기>에는 유배 생활의 어려움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으나 이 작품에는 주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③ 이 작품의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유배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일반적인 유배 가사와는 다르게 이 작품에서는 암담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충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 3 ㉠은 화자와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뜻하며, ㉡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대변한다.
 - ☞ 오답 틀어보기 ① ㉠은 화자와 어머니와의 단절과 관계되지만, ㉡이 어머니와의 만남을 뜻하지는 않는다.
 - ③ ㉠은 만남의 매개체가 아니라 화자와 어머니와의 단절을 뜻하고, ㉡은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 ④ ㉠은 유배지의 자연환경, 즉 물리적 환경이 아닌 심리적 환경으로 볼 수 있고, ㉡은 고향의 자연환경이 아닌 고향에 대한 생각의 매개체이다.
 - ⑤ ㉠은 화자와 어머니 사이의 장애물을 뜻하며, ㉡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둘 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뜻하지 않는다.

- 4 <보기>에서 '조홍감'은 화자가 부모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자는 '조홍감'을 품고 가드릴 사람이 없어 슬퍼한다. 따라서 여기서 '조홍감'의 의미는 부모님에 대한 효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이와 유사하게 '효'를 의미하는 시어는 '일점의 리'이다. 화자는 유배 전에 어머니의 일점의리를 살폈는데, 유배를 와서 일점의리를 살피지 못하는 것을 서글퍼하고 있다.

3 | 민요

183 아리랑 _ 작자 미상

272쪽

키포인트 체크 이별, 사랑, 원망

1㉓ 2㉓ 3㉓ 4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

- 1 이 작품은 원래 노동의 피로를 덜어 주기 위한 노동요였으나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요의 성격을 상실하고 노래 자체로만 즐기는 민요가 되었다.
- 2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음운이나 시어의 반복, 음절 수나 음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음성 상징어의 반복 등이 있다. 이 작품에는 의태어나 의성어 등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틀어보기 ① 3·3·4조를 기본으로 하는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②, ④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후렴구에 'ㄹ'과 'ㅇ'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청청하늘엔 별도 많고 /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3 이 작품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공동작 성격을 띠게 되어 각 연 간에 논리적 인과성이 없지만, <보기>는 개인적으로 1연에서 4연까지 논리적 인과성을 띠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두 작품 모두 우리 민족의 한(恨)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②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④, ⑤ <보기>의 화자는 떠난 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반면, 이 작품의 화자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며 겉으로는 입을 원망하면서도 입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
- 4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했을 때 ㉓ '수심'은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84 시집살이 노래 _ 작자 미상

274쪽

키포인트 체크 형님, 사촌 동생, 시집살이, 여성

1㉓ 2㉓ 3㉓ 4 시집살이로 인한 괴로움이 형상화되어 있다.

- 1 이 작품은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겪는 서민 여성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소박하고 간결한 일상 언어를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기품 있는 말투로 체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게?'와 같이 사촌 동생이 질문을 하면,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와 같이 사촌 형님이 대답하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시집 식구들과 자신을 새에 비유하며 시집살이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형님 온다'와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와 같이 4음보의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⑤ '수박 식기', '도리소반' 등 평범한 일상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 표현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 2 <보기>의 화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부당한 속박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양반 사대부가의 여성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화자인 서민 여성은 불행을 강요하는 도덕적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 고발과 항거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서민들의 소박한 삶의 애환이 드러나는 주요이고 <보기>는 조선 중기의 시인인 허난설헌이 지은 규방 가사로 사대부 여성들이 주요 향유층이었다.
② 이 작품에서는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실솔(귀뚜라미)'에 이입하여 입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서민 여성과 양반 사대부가의 여성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두 작품 모두 가부장적인 봉건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괴로움을 다루고 있다.
④ 이 작품의 화자는 남편을 '미련새'라고 표현하여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냈고, <보기>의 화자는 '백마 금편으로 어티어티 머무르고.'라고 하며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3 ㉓은 동생의 물음에 대한 형님의 대답으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으며,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 꺼낸 말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 사촌 동생이 결혼하려는 상황이나 결혼을 만류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② '오 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솔', '열두 방' 등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의 고된 가사노동을 강조하고 있다.
③ 시집 식구들을 '호랑새', '꾸중새', '할림새', '뽕죽새', '뽕중새', '미련새' 등과 같이 새에 비유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랫동안 귀머거리나 장님, 병어리처럼 속박을 견디고 살아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⑤ 시집오기 전의 용모를 '배꽃 같은 얼굴'에 비유하고, 시집온 후의 용모를 '호박꽃'에 비유하여 고된 시집살이로 인해 용모가 추하게 변한 것을 한탄하고 있다.

- 4 이 작품의 ㉓에서 화자는 시집살이를 '개집살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시집살이로 인한 괴로움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85 잠 노래 _ 작자 미상 276쪽

키포인트 체크 바느질, 잠, 긍정적

1① 2④ 3② 4잠아잠아무삼잠고가라가라멀리가라

- 1 민요의 주된 작자층은 사대부 계층이 아니라 서민들로, 민요에는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과 삶의 모습이 녹아 있다.
- 2 민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방식으로 가창되는 경우가 많은데 후렴에서 독창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선후창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잠 노래>는 독창으로 부르는 민요에 속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늦은 밤에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바느질을 하는 여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잠을 의인화하여 작중 청자로 설정하고, 원망하고 나무라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② 이 작품은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③ '잠아 잠아'라고 하며 잠을 대상으로 하여 부르고 있다.
 - ⑤ 잠이 오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여 살아가려는 민중들의 건강한 삶의 태도를 반영했다.
- 3 '잠 못 들어 한하는데'의 주체는 화자의 처지를 비교하기 위해 주야에 한가하여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인물이므로, '잠'을 쫓으려는 화자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잠'을 의인화하여 작중 청자로 삼고 있다.
 - ③ '낮에 못한 일을 밤에 하려 마음먹고'에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하는 화자의 애환이 담겨 있다.
 - ④ 바느질을 하는 것으로 볼 때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 ⑤ 잠이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아래로부터 솟아오는가'라는 뜻으로 잠이 오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식 +

• <잠 노래>의 명칭

우리 민요에는 잠을 소재로 한 노래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들을 통칭하여 <잠 노래>라 부른다. 이들은 대개 쏟아지는 잠을 참고 밤새도록 일해야만 했던 부녀자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

- ① 잠아잠아오지마라 시어머니 눈에 난다
시어머니 눈에 나면 임의 눈에 절로 난다. <여수 지방 민요>
- ② 오는 잠을 어찌하나 잠아잠아오지마라
요네 눈에 오는 잠은 말도 많고 흥도 많다 <거창 지방 민요>

- 4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라는 구절은 자꾸만 쏟아지는 잠을 반복하여 부르면서 멀리 보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가 담겨 있는 구절이다.

186 정선 아리랑 _ 작자 미상 278쪽

키포인트 체크 정선, 모습, 애환

1⑤ 2④ 3④ 4아우라지

- 1 이 작품은 구비 전승된 민요로, 정선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정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담고 있다. 또한 4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승되는 과정에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창작되기도 했다. 따라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창작된 노래로 볼 수는 없다.

- 2 강원도 정선은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었지만 한강 물길을 따라 <정선 아리랑>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④는 잘못된 설명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정선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면 ①과 ③처럼 작품에 지명이 인용되어 있어 향토색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정선의 옛 이름이 무릉도원이었지만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과는 다르게 산만하다는 내용으로 정선의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 있다.
 - ③ 좁고 험한 계류가 많아 나룻배가 주요 교통수단이라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물이 불어 강을 건널 수 없자 ③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 ⑤ <보기>에서 땅이 적박해 농사를 지으며 정착해 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으므로, 정선 사람들은 농사짓기가 쉽지 않아 궁핍한 생활을 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 고려 시대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대표적인 고려 가요인 <청산별곡>은 민요적 성격을 띠고 분절체이며 후렴구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정선 아리랑>과 유사한 점이 많다. 두 작품은 모두 노래로 흥겹게 부르기에 좋으며 기억하기 쉬운 구비 전승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각 연의 내용이 연관성이 긴밀하지 않고 대부분 독립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4 '아우라지'는 '두 갈래 이상의 물이 한데 모이는 물목'이라는 뜻으로 정선에 있는 나무의 이름이며, 뒷부분의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라는 내용과 어울려 깊은 산골의 쓸쓸한 풍경을 더해 주고 있다.

187 진도 아리랑 _ 작자 미상 280쪽

키포인트 체크 진도, 이별, 탄식

1① 2③ 3② 4힘난한 인생을 '문경 새재'로 표현하여 화자의 인생이 힘든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1 푸른 하늘에 떠 있는 잔별만큼이나 '우리네 가슴에는 눈물도 많다'라고 하며 어렵고 힘든 삶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② '날 두고 가시는 임 가고 싶어 가느냐'라는 것은 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임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 ③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를 토로하고 있을 뿐, 극복 의지를 표면에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임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다.
 - ⑤ '문경 새재'라는 지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인생의 험난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는 거리가 멀다.
- 2 주된 내용을 담은 부분에서는 삶의 탄식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고, 후렴구는 각 연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각 연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 전체 분위기를 통일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 역시 다른 아리랑과 마찬가지로 주된 내용을 담은 부분과 의미 없는 후렴구로 구성되어 있다.

②, ⑤ 이 작품은 선후창 형식의 돌림 노래이며 후렴구가 각 연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 전체 분위기를 통일하고 안정감을 준다.

④ 후렴구는 모음 ‘아’, ‘오’ 등과 유음 ‘르, 이’를 사용해 매끄러운 느낌을 주며 작품에 리듬감을 더해 주고 있다.

3 이 작품에서는 시름과 고뇌로 인한 한스러운 삶을 하늘에 흩뿌려진 ‘잔별’의 이미지와 결합하고 있다. 즉,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한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보기>의 ‘별밭’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에서 ‘문경 새재’는 삶의 험난함을 상징하고, <보기>의 ‘눈깔들’은 어머니의 한을 환기한다.

③ 이 작품의 ‘눈물’은 반짝이는 이미지이지만,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보기>가 서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두 작품 모두 운문체이다.

⑤ <보기>는 구전 문학이 아닌 기록 문학으로, 이 작품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지식+

• 박재삼, <추억에서>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회고적, 애상적, 향토적
- 주제: 한스러운 삶을 살다 간 어머니에 대한 회상
- 감상: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힘겨운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한(恨)과 슬픔을 향토적인 시어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그려낸 작품이다.

4 ‘문경 새재는 ~ 눈물이로다’에서 굽이굽이 이어진 ‘문경 새재’처럼 인생의 여정이 험난함을 노래하고 있다.

188 사할린 본조 아리랑 _ 작자 미상(정성애) 282쪽

키포인트 체크 해외 동포, 사할린, 한탄

1 ⑤ 2 ④ 3 ④ 4 타향에서 남편이 죽음을 맞이함.

1 이 작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 온 후 일제의 탄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화자는 일본 놈들이 무서워 ‘우리 님’을 따라서, 여기 사할린에 왔음을 밝히고 있다.

② 3연에서 화자는 조선(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신아리랑>의 후렴구와 유사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리랑의 형식을 계승하여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3연에서는 조선과 여기(사할린)를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민족적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에서는 징용 간 일본에서 고향 집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음이 드러나 있다. 또한 어머니한테 쌀가루가 왔다는 것으로 볼 때 <사할린 본조 아리랑>과는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과 <보기> 모두 타향에서의 고달픈 삶이 드러나 있으나, 이 작품의 경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② 이 작품과 <보기>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시각적으로 묘사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작품과 <보기> 모두 징용의 이유가 배고픔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보기>는 징용 와 보니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어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지식+

• 작자 미상, <일본 아리랑>

- 갈래: 민요
- 성격: 애상적, 한탄적
- 주제: 일제 강점기에 징용된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 감상: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탄광으로 징용당한 조선인 광부들이 부른 아리랑으로 전해진다.

3 이 작품은 아리랑의 형식적인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 따라 부르기 편한 구조를 가진다. 즉, 3음보와 2줄 형식의 사설이 대구를 이루면서 반복된다. 여기서의 사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르게 부를 수 있다.

4 ①은 우리 영감님이 화자만 혼자 두고 자기만 갔다고 제시하고 있다. 노래의 맥락을 통해 볼 때 여기서는 남편이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 한시

193 요양의 달 _ 허균 286쪽

키포인트 체크 사신, 고향, 귀향

1 ③ 2 ④ 3 ⑤ 4 나그네

1 이 작품에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날 뿐 색채 대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국에서 본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고국을 떠나온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가 바라본 대상은 이국의 보름달이고 떠올린 대상은 고향의 조그만 누각이다.

④ ‘아득하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⑤ 앞부분에는 이국의 풍경을 제시하고, 뒷부분에는 고향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2 고국을 떠나온 화자는 ①을 보며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보름달’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반면 <보기>의 ‘울고 가는’ 외기러기는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외롭고 슬픈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이다.

3 화자는 깊어 가는 가을을 느끼며 자신이 나그네 신세임을 절감한다. 이로 볼 때 ‘깊은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고조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 이 작품에서 화자는 낯선 미국땅에서 고향에 돌아가기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나그네'라고 표현했다.

194 보리타작 _ 정약용 288쪽

키포인트 체크 양반, 보리타작, 성찰(반성)

1③ 2⑤ 3④ 4낙원

- 1 이 작품에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젓빛처럼 뿌영고', '햇볕 받아 번쩍이네'에서 시각적 심상을, '웅헤야 소리 내며 밭따추어 두드리니',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에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② 1~8구에서는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9~12구에서는 노동의 기쁨과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등 농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에서 과장법을 사용하여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 2 11~12구는 다른 이들이 벼슬길을 좇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관직에 몸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구절이다.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삶이란 농민들의 삶처럼 건강한 노동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3 이 작품의 '벼슬길'과 <보기>의 '너나쁜 일'은 모두 세속적인 욕망을 뜻하는 것으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의 '보리밥'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소재이고, <보기>의 '보리밥'은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② 이 작품의 '마당'은 농부들이 보리타작하는 노동의 공간이고, <보기>의 '뭉 7'는 화자가 여유 있게 즐기는 풍류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작품의 '노랫가락'은 농부들이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흥겨움이 느껴지며, <보기>의 '노니노라'에서는 여유 있게 자연을 즐기는 삶의 모습이 느껴진다.
 ⑤ 이 작품의 '헤매리오'와 <보기>의 '부들 줄이 이시라'는 세속적 욕망을 경계하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 4 이 작품에서 '낙원'은 세속적 욕망(벼슬길)에서 벗어나 현실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195 유배지에서 처의 죽음을 슬퍼하며 _ 김정희 290쪽

키포인트 체크 유배, 죽음, 애통

1① 2① 3② 4아내를 잃은 화자의 슬픔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 1 이 작품은 다시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아내를 잃은 화자의 슬픈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태어날까?'에 의문형 문장이 쓰이기는 했지만 설의적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와도 관련 없다.
 ③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나 화자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내세라는 미래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지는 않았다.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아내를 잃은 화자의 괴로움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 반어적 표현을 통한 부정적 현실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기'에는 화자의 소망을 호소하는 대상이 제시되었지만,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② '송'에는 내세에 부부의 처지가 바뀌어 태어나길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③ '전'에서는 내세에서 화자와 아내의 처지가 지금의 화자와 아내의 처지와 반대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즉, 자신이 아내가 머무는 곳에 있고 아내가 유배지에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④ '결'에서는 아내를 잃은 화자의 심정을 죽은 아내가 알았으면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⑤ '전'과 '결'에서는 화자와 아내의 거리가 '천 리'나 떨어져 있어서 부고를 나중에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3 '월하노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늙은이로(ㄱ), 화자는 월하노인에게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면 자신과 아내의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하며 아내를 잃은 슬픔을 하소연하고 있다.(ㄷ)
 [오답 틀어보기] ㄴ. 월하노인이 화자의 마음을 아내에게 전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ㄷ. 화자는 자신과 아내의 처지를 바꿔 달라고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다.

- 4 ㉠에서는 내세에서 아내가 자신의 처지가 되어 멀리 있는 자신의 부고를 들으면 현재 자신의 슬픔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멀리서 아내의 죽음을 뒤늦게 전해 들은 슬픔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196 자술 _ 이옥봉 292쪽

키포인트 체크 임, 꿈속, 그리워함

1② 2⑤ 3① 4 화자의 간절한 소망(임과의 재회)이 가상으로 실현되는 기능을 한다.

- 1 이 작품은 임에게 말을 직접 건네는 듯한 표현을 통해 시적 화자의 애절함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정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임에 대한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만 영탄적 어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대립적인 시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임의 안부를 묻고 있을 뿐 스스로 묻고 대답한 것은 아니다.

2 ㉠ '달'은 임의 안부를 묻는 여인의 창에 비치어 임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며, ㉡ '너'는 밤중에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는 품성을 지녀 화자가 벗으로 삼고자 함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은 달을 의인화하여 나타내고 있으나 ㉠은 의인화된 소재가 아니다.

② ㉠은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본보기로 여기며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일 뿐 화자와 동일시된 소재라고 볼 수 없다.

③ ㉠과 ㉡은 둘 다 '달'이라는 자연적 존재에 해당한다.

④ 이 작품에서는 ㉠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은 광명과 과묵함이 라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 줄 뿐 자연의 영원함과 거리가 멀다.

3 [A]에서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한 뒤 과장법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①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가정한 뒤 과장법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4 이 작품에서 화자는 꿈속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밤마다 임을 만나러 간다고 하며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도 화자는 꿈속에서 그리운 임을 만나고 있으므로 '꿈'은 화자의 간절한 현실적 소망이 가상으로 실현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 화왕가_이억

294쪽

키포인트 체크 화왕계, 설총, 예찬

1 ④ 2 ④ 3 ② 4 설총의 일화와 꽃의 의인화를 통해 재미를 느끼게 하면서도, 당시의 임금과 신하들에게 전하고자 한 교훈을 효과적으로 담았다.

1 17~18구에서 화자는 '훌륭하도다. 당시 설총 선생이시여.'라고 하며, 설총의 <화왕계> 덕분에 나라가 평안을 찾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설총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작품에는 후렴구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작품은 한자를 이용해서 지어진 한시이다.

⑤ 이 작품에 대상을 원망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인 '13~16구'에서는 화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임금(신문왕)이 실제로 신라 땅에 선정을 베푸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화왕이 선정을 베풀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전각, 즉 궁궐에서 임금을 위해 <화왕가>를 노래하는 신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②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진홍색 연붉은색'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나타냈다.

③ '머리 센 백두옹', 즉 할미꽃이 잡초에 뒤덮여 버려져 드러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⑤ 화자는 '보물 피리 소리', 즉 설총이 왕에게 바친 <화왕계> 덕분에 온갖 풍파가 멎었다고 말하고 있다.

3 ⑥는 <화왕가>의 화자인 작가 이익의 마음으로, 설화 속 상황에 개입하여 화왕이 장미꽃의 간언에 넘어갈까 봐 걱정하는 표현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교태'는 간신을 상징하는 장미꽃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③ '백두옹'은 간신을 상징하는 장미꽃과 대조되어 충신을 상징하는 '할미꽃'을 의미한다.

④ '난손과 두약'은 귀한 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훌륭한 인재를 가리킨다.

⑤ '보물 피리 소리'는 설총이 왕에게 바친 <화왕계>의 충언을 의미한다.

4 <보기>는 문학의 교훈성을 강조하는 글로, 문학을 통해 교훈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문학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이 작품은 설총의 일화와 꽃의 의인화를 통해 재미를 주면서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 사유악부_김려

296쪽

키포인트 체크 유배지, 연희, 그리움

1 ③ 2 ⑤ 3 ③ 4 조흥감 5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1 화자는 이전 유배지인 부령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그곳에서 만났던 '연희'를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통해 진리나 이치를 전달하는 역설법이 쓰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명령적 어조가 아니라 담담한 독백체 어조가 드러나 있다.

④ 의문문이 나오기는 하지만 설의적 표현이 쓰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앵두'처럼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가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자연 순환의 원리를 밝힌 것은 아니다.

2 11~12구에서 열매가 맺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날 뿐 화자 자신의 불우한 삶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생각하는 곳이 북쪽 바닷가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그곳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앵두'를 '수정'에 빗대어 앵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연희가 말한 "앵두가 ~ 붉나요?"를 직접 인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④ 화자가 '변방에서 귀양 살면서' 삼 년 동안 앵두 열매로 배를 채웠다는 것을 통해 가난했던 유배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3 화자는 북쪽 바닷가에서 지낼 때 함께했던 연희가 '앵두나무 알맹이'를 손수 따고, 앵두가 붉은지 자신의 입술이 붉은지 묻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앵두나무 알맹이'는 연희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나아가 화자와 연희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4 화자가 현재 보고 있는 ㉡은 맥락상 '앵두나무 꽃'으로, 그와 관련된 연희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조흥감'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조흥감'도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5 이 작품의 전체 290편은 매 편을 '그대 무엇을 생각하나요? 생각하는 것 저 북쪽 바닷가.'로 시작하고 있다. 이 구절은 내용상 '북쪽 바닷가'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매 편마다 반복됨으로써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199 송파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_ 정약용 298쪽

키포인트 체크 시 창작, 형식, 내용

1 ㉓ 2 ㉕ 3 ㉗ 4 중국 한시의 형식에 맞추기보다는 조선 사람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한 시(조선의 현실이 잘 드러나는 소재나 표현을 사용한 시)

1 이 작품의 화자는 1구에서 '늙은이의 한 가지 통쾌한 일은'이라고 하며 늙어 가는 인생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시를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면서 이를 비판하는 타인의 시선에도 초연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오답 틀어보기 ② 8구 '깃노라'에서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 10구의 '누구이겠나'와 12구의 '어찌 알 수 있으랴?'에서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⑤ 9구에서 '당신'에게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형 어조가 사용되었다.

2 이 작품과 <보기> 모두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관습에 따르는 것보다는 주체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문학 작품의 교훈이 아니라 창작할 때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보기>는 흥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이 작품과 <보기> 모두 우리나라 문학을 중국 문학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중국의 한시 창작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보기>에서는 서민들의 일상적인 노래도 문학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지식+

김만중, <서포만필>

- 갈래: 증수필, 문학 비평문(평론)
- 성격: 비판적, 비평적, 주관적
- 주제: 진정한 국문 문학의 가치
- 감상: 송강 정철의 가사를 우리나라의 진정한 문학으로 극찬하면서 국문 문학의 당위성을 논한 시화(詩話: 한문학에서 작품에 대한 비평, 해설, 고증 등을 기록한 것)이다. 내용 전달에 치중하는 한문학으로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우리말의 가락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한글 문학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한문학만을 문학으로 인정하던 당시의 지배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국문 문학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주적인 문화 의식을 드러냈다.

3 이 작품의 화자는 시 창작에서 '흥'과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압운', '퇴고', '구구한 격과 법'은 꼭 따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 '조선의 시'는 비록 중국에서 전래된 한시의 형식이지만 그 격식에 매이지 않고 소재나 표현이 자기 시대의 요구에 합당한 시를 의미한다.

200 절명시 _ 황현

300쪽

키포인트 체크 나라, 자결, 괴로움

1 ㉕ 2 ㉔ 3 ㉔ 4 ㉕ 5 무궁화 세계, 우리나라

1 '머리털 다 세었는데'에서 화자가 나이 들었음을 알 수 있으나 젊은 날을 회상하거나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제1수>의 '오늘', <제3수>의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라는 구절을 통해 국권 피탈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제3수>에 '글 아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망국에 대한 분함과 선비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뇌, 나라를 위하는 마음 등은 모두 유교적인 충(忠)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제2수>에서 망국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2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글 아는 선비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민족의 화려했던 역사를 회상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꺼질 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은 일제에게 국권을 피탈당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②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임금에 신하에게 내리는 조칙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③ 망국의 슬픔을 '강산은 쟁그리네'라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⑤ '부끄럽기만 하네'에는 진동처럼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고 자결을 선택한 화자의 부끄러운 내면 심리가 담겨 있다.

3 화자는 망국의 상황에 탄식하며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고뇌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성찰적(반성하고 살피는) 태도가 드러나므로, 이와 가장 관계 깊은 구절은 글 아는 선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㉕이다.

지식+

운동주, <서시>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성찰적, 고백적, 의지적, 상징적
- 주제: 순수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
- 감상: 이 작품은 운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두에 붙여진 시로, <서시(序詩)>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집 전체의 내용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은 현실의 어둠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의 양심을 외롭게 지키며 맑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한 젊은 지식인의 모습을 간결한 표현과 상징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4 나라가 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행동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충(진동의 충)인데, 화자는 망국의 슬픔으로 죽음을 선택했으므로 진정한 충이 아닌 인(윤곡의 인)이라고 한 것이다.

5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근역(權域: 무궁화가 많은 땅)'이라고 불렸는데, 이 작품에서도 '무궁화 세계'는 우리나라를 대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쓰였다.